

INVITATION
TO THE
ARTS

JUNE

예술가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2016 06 vol.294



Cover Story

부조니 탄생 150주년 기념
백건우 피아노 리사이틀

세계의 공연장
가장 혁신적인 오페라 무대
브레겐츠 페스티벌

부록 프로그램 가이드



부산문화회관
culture.busan.go.kr

국립발레단

Ballet with Commentary
해설이 있는 발레

Don Quixote

돈키호테



예술감독 강수진

안무 마리우스 프티파

알렉산드르 고르스키(재안무)

음악 루드비히 민쿠스

2016.6.6.(월) 5:00PM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20회 정기연주회

바이올린 스베틀린 루세브
Svetlin Roussev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20회 정기연주회

EROICA

에로리카

지휘 콘스탄틴 트링크스
Constantin Trinks

Program

글린카 | 「루슬란과 루드밀라」 서곡
M.Glinka | Overture to "Ruslan and Ludmilla"

차이코프스키 | 바이올린 협주곡 라장조 작품35
P.I.Tchaikovsky | Violin Concerto in D Major op.35

베토벤 | 교향곡 제3번 내림마장조 「영웅」 작품55
L.V.Beethoven | Symphony No.3 in E^b Major "Eroica" op.55

2016. 6. 10 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 최 부산광역시 문 의 607-3106 (홍보팀), 607-3145 (공연운영팀), 607-3151 (정기회원)

입장권 R석 20,000원 S석 15,000원 A석 10,000원 B석 5,000원 예 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culture.busan.go.kr

☐ 셔틀버스 운행(무료) • 출발지: 대안역 5번 출구 유엔교차로 방향 100m 7번가 피자 앞 → 부산문화회관 • 출발시간: 월~금 19:00 (공연있는 날에 한함)

할인(전화예매시)

50%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다자녀가정

20% ▶ 정기회원(문예체육계 7명) | 예술인패스 소지자 | 대학생 및 만24세이하 | 외국인

※ 단체(10명이상) 할인 10%~30% 및 학생단체(3,000원) ▶ 전화문의

박영규와 헤븐 싱어즈

Heaven's 2nd Concert



1부 클래식 뮤직 Classical Music

오케스트라 곡 Orchestra pieces
오페라 아리아 Opera arias
세계 명곡 World famous songs

2부 크로스오버 뮤직 Crossover Music

뮤지컬 명곡 From musicals
대중 가요 및 팝송 Pop music

Special Guests



Soprano 박은주



Soprano 왕기현



Piano 하영화

반주자



반주 / (사)부산네오파하모닉오케스트라

2016. 6. 24 금 PM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부산광역시 주관. 부산문화회관 BS마린캄머오퍼

티켓. VIP석 7만원 / R석 5만원 / S석 3만원 / A석 2만원 / B석 1만원

예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http://culture.busan.go.kr>

공연문의. 051) 607-6065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YOON HAK WON CHORALE

윤학원 코랄

아! 대한 민국

2016. 6. 25 | 토 | 5시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부산광역시 주관. 부산문화회관

예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http://culture.busan.go.kr> 티켓. R석 2만원 S석 1만원 A석 5천원 공연문의. 051) 607-6066

부산시립합창단
제162회
정기연주회

G. Faure
REQUIEM
C. Gounod
SOLENNELLE MISSA



Soprano 왕기현



Tenor 양승엽



Baritone 이규원



Organist 김미나



수석지휘자 전상철

부산시립합창단 / 부산시립교향악단 출연단체

2016. **6. 28** 화 오후 **7시 30분**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부산광역시

주관. 부산시립예술단

문의. 홍보팀 051) 607-3108 / 공연운영팀 051) 607-3142

예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http://culture.busan.go.kr>

입장료. R석 10,000원 S석 7,000원 A석 5,000원

CONTENTS

CULTURAL ST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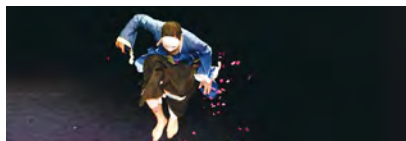
- 08 **커버스토리**
부조니 탄생 150주년 기념
백건우 피아노 리사이틀
- 10 **6월 공연 캘린더**
- 12 **세계의 공연장**
가장 혁신적인 오페라 무대
브레겐츠 페스티벌
- 16 **축제로속으로 고고**
제10회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 18 **그곳에 가면**
42년만에 새 단장하고 시민들과 만나는
부산민속예술관
- 20 **우리는 문화가족**
클래식 음악의 세계로 이끄는 길라잡이
이지 오페라 클래식
- 22 **테마가 있는 여행**
대구 근대문화 골목투어

BOARDS INSIDE



- 28 **프리뷰**
- 36 **리뷰**
- 38 **프로그램 가이드**

CENTER NEWS



- 56 **새로 나온 음반**
- 57 **새로 나온 책**
- 58 **스페셜 무비**
- 59 **스페셜 이벤트**
- 60 **부산문화회관 소식**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예술에의 초대 2016년 6월호 통권 294호

발행처 부산문화회관

48534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 76번길 1 Tel.051 120(주간), 051 607 6222(야간)

예술단 공연문의 051 607 3100 대관문의 051 607 6051~5

발행인 이승호 편집인 손금숙 편집 정복엽 발행일 2016년 5월 25일 인쇄처 효민디앤피 051 807 5100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부조니 탄생 150주년 기념

백건우 피아노 리사이틀

KUN-WOO PAIK PIANO RECITAL

7월 7일 목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V석 12만원 R석 9만원 S석 7만원 A석 5만원 B석 2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부산문화회관 607-6066, 3100

음악에 대한 진지한 자세와 끊임없이 연구하는 태도로 '건반 위의 순례자', '건반 위의 구도자'로 불리며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거장 피아니스트 백건우가 7월 부산을 찾는다. 특히 피아노의 거장 부조니 탄생 150주년을 맞아 마련되는 이번 무대는 우승 기준이 까다롭기로 유명한 부조니 콩쿠르에서 지난 1969년 한국인 최초로 골드 메달을 수상하는가 하면 2000년 부조니가 편곡한 작품으로만 앨범을 발매해 '우리 시대의 부조니'라는 평가를 받은 백건우가 부조니의 대표곡을 연주하기로 하면서 벌써부터 음악애호가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고 있다.

풍부한 레퍼토리와 서정적인 피아니즘으로 전 세계적으로 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는 백건우는 10세에 불과한 나이로 국립관현악단과 함께 그리그의 피아노 협주곡을 협연하면서 어린 시절부터 피아노 신동으로 주목받았다. 15세 때 주변의 권유로 미국으로 건너가 줄리어드 음악학교에서 러시아 피아니스트의 전통을 잇고 있는 로지나 레빈을 사사한 백건우는 줄리어드에서 대학원까지 마친 후 유럽으로 무대를 옮겨 독일의 명 피아니스트 빌헬름 캠프를 사사했다. 빌헬름 캠프와의 인연은 백건우의 연주자 인생에 큰 전환점이 되는데, 음악에 대한 진지한 태도와 학구적 자세는 그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캠프의 지도로 음악적 완성도를 높여간 백건우는 1967년 나움버그 콩쿠르(Naumberg Award)에서 우승한 후 1969년 리벤트리 콩쿠르(Leventritt) 결선에 올랐으며, 같은 해에 부조니 콩쿠르에 입상하며 국제무대에 이름을 알렸다. 백건우는 이후 세계 유명 오케스트라와의 협연, 황금 디아파종상 수상, 프랑스 3대 음악상 수상 등으로 명성을 쌓아갔다.

백건우는 리스트와 무소르그스키, 쇼팽과 베토벤까지 작곡가의 음악 세계를 깊이 있게 파고드는 '전작주의자'로 알려져 있다. 1972년 뉴욕의 링컨센터에서 처음으로 라벨의 독주곡 전곡을 연주한 후 베를린 필하모닉 홀에 이어 런던과 파리에서 연주함으로써 라벨의 뛰어난 해석자로서 입지를 굳힌 백건우는 1991년 5월 폴란드 TV로 중계된 '프로코피예프 탄생 100주년 기념 음악회'에서 안토니 비트 지휘의 폴란드 국립 라디오 오케스트라와 함께 프로코피예프의 5개의 협주곡 모두를 연주했다. 또 1996년 4월 보르도 오케스트라와 함께 3개의 바르톡 협주곡을 연주했으며 1998년에는 RCA 레이블로 라흐마니노프 협주곡을 발매, '러시아 사람보다 더 라흐마니노프를 잘 이해하는 연주자'라는 찬사를 받으며 큰 호평을 받기도 했다.

이런 화려한 경력과 함께 백건우는 1992년 1월, 스크랴빈 피아노 작품집 앨범으로 황금디아파종 상을 수상했으며, 1993년 낙

소스 레이블로 발매된 프로코피예프 피아노 협주곡 5개 전곡 녹음으로 다시 한 번 황금디아파종 상을 수상하는 동시에 프랑스 3대 음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지난 2000년 10월 중국정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초청된 한국의 첫 번째 아티스트이기도 한 백건우는 2003년 프로코피예프의 사망 15주년이 되는 해, 베를린, 밀라노, 부다페스트, 베이징, 도쿄, 서울, 니스, 세빌리아 등에서 연주회를 가졌다. 2005년 데카에서 베토벤 소나타 32작품을 녹음하기 시작한 백건우는 2007년 베토벤 소나타 32작품 녹음 완성을 축하하는 8번의 리사이틀을 중국과 한국에서 열기도 했다. 지난 2011년과 2013년에는 한국 섬마을을 찾아 지역 주민을 위한 음악회인 '섬마을 콘서트' 투어를 가지면서 큰 화제를 모았으며 2014년 7월에는 제주도 제주항 특설무대에서 '세월호 사고 100일 추모공연-백건우의 영혼을 위한 소나타'로 온 국민의 뜨거운 성원을 받기도 했다. 현재 프랑스 파리에 거주하며 연주에 전념하고 있는 백건우는 2000년 프랑스 정부로부터 '예술문화기사훈장'을 수여받았으며 국내에서는 대한민국 문화훈장, 호암예술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번 무대에서 백건우의 연주로 만나는 부조니는 이탈리아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로 바흐 음악의 고유함을 지키면서도 독창적 색감을 부여해 격조 높은 음악으로 승화시킨 거장으로, 베토벤과 더불어 백건우가 오랫동안 붙들고 있는 음악적 화두이기도 하다.

부조니의 곡을 '우주를 뒤흔드는 음악'이라고 평가하기도 한 백건우는 이번 무대에서 부조니의 '엘레지 BV249' 중 제2곡 '이탈리아로!'(나폴리 풍으로),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를 따른 환상곡 '아버지의 추억에 부침' BV253, '엘레지 BV249' 중 제4곡 '투란도트의 규방'(간주곡), 소나티네 제6번 '카르멘에 실내악 환상곡' BV284 등 부조니 곡으로 1부 무대를 꾸민다. 이어 2부 무대에서는 그가 사랑하는 작곡가인 라벨 '소나티네'를 비롯해 드뷔시 '프렐류드 제1권' 중 제3번, 6번, 7번, 쇼팽의 '스케르초 제1번 작품 20', '스케르초 제2번 작품 31'을 들려준다.

06

2016 JUNE

10

표 공연은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에 한하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하십시오.
- 이 공연 전시일정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공연정보는
<http://culture.busan.go.kr>을 클릭하세요.
- 초대(무료)공연은 반드시 주최 측에 문의바랍니다.

SUN	MON	TUE
전시실 부산회화제 - 대·중전시실 5월 30일(월)~6월 4일(토) 문의:김명수 010-4138-4847 제22회 부산서예대전 - 대·중전시실 6월 8일(수)~6월 12일(일) 문의:윤중철 010-9753-0718 *시상식 6월 12일(일) 오후 2:00 국제회의장	제42회 부산미술대전 심사(서예, 문인화) - 대·중전시실 6월 13일(월)~6월 14일(화) 문의:부산미술협회 632-2400 제42회 부산미술대전 심사(디자인) - 대전전시실 6월 17일(금)~6월 19일(일) 문의:부산미술협회 632-2400	2016 부산조각가협회전 - 중전시실 6월 24일(금)~7월 2일(토) 문의:총무 송현철 010-2846-2146 *7월 2일(토) 오후 12:00까지 전시 진행
5	6	7
제11회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 국제미술대회 예선 08:00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 조직 위원회(626-7002)	대 국립발레단 해설이 있는 발레 '돈키호테' 17:00 5만원·3만원·2만원·1만원 부산문화회관(607-6066, 3100) 중 2016년 제12회 부산국제무용제(BIDF) AK21 국제안무가육성공연 19:00 균일 1만원 부산국제무용제 조직위원회(868-7881~2)	중 2016년 제12회 부산국제무용제(BIDF) 폐막식 및 폐막축하공연 19:00 균일 2만원 부산국제무용제 조직위원회(868-7881~2)
12	13	14
중 신라시니어스퀘이어 창단연주회 17:00 초대/신라시니어스퀘이어(010-5252-5008) 소 국악밴드 母樂의 '엄마의 콘서트' 16:00 균일 1만원/서현인(010-2396-0540)	대 제33회 부산음악콩쿠르 예선 09:00 부산MBC 사업부(760-1126) 중 제33회 부산음악콩쿠르 예선 09:00 부산MBC 사업부(760-1126) 소 제33회 부산음악콩쿠르 예선 09:00 부산MBC 사업부(760-1126)	대 제33회 부산음악콩쿠르 예선 09:00 부산MBC 사업부(760-1126) 중 제33회 부산음악콩쿠르 예선 09:00 부산MBC 사업부(760-1126) 소 제33회 부산음악콩쿠르 예선 09:00 부산MBC 사업부(760-1126)
19	20	21
중 선우난영&김현정 듀오리사이틀 '사제간의 듀오 음악여행 II' 17:00 균일 2만원/아트뱅크코리아(442-1941)	대 2016 Art Festival 예술제 제29회 무용정기공연 19:00 초대/부산예술고등학교(514-1229, 1230) 중 단비울남성앙상블 창단 17주년 기념 제12회 정기연주회 '이음(異音), 공감(共感)' 19:30 초대/단비울남성앙상블(010-2418-6468)	대 부산원로교향악단 제9회 정기연주회 19:30 초대/부산원로교향악단(010-3074-0366) 중 제12회 동의피아노소사이어티 정기연주회 19:30 균일 1만원 동의피아노소사이어티(010-2252-3010) 소 부산시립무용단 2016 풍류(風流) 13기 발표회 15:00 무료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607-3154, 3107)
26	27	28
소 나르시스 발리댄스 국제 페스티벌 19:00 균일 2만 5천원/나르시스 발리댄스(468- 0229, 010-9069-0229)		대 부산시립합창단 제162회 정기연주회 'G.포레 레퀴엠& C.구노 장엄미사' 19:30 1만원·7천원·5천원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607-3108, 3142) 중 부산메트로폴리탄 팝스오케스트라 오페 라를 읽어주는 남자 '갈라 콘서트' 19:30 균일 2만원/부산메트로폴리탄팝스오케스트라 (070-7727-0188)

WED	THU	FRI	SAT
1 대 제5회 부산사람 이태석 기념음악회 '가곡과 아리아의 밤' 19:30 초대(초대권 소지자에 한함) (사)부산사람이태석기념사업회(637-0125) 소 가족뮤지컬 '정글북' 10:15, 11:20 균일 1만원(단체 예매시 6천원) 극단 심인(017-437-3639)	2 대 닥터스심포닉밴드 제15회 정기연주회 19:30 무료/이국희(010-9458-9258) 중 한국창작합창21 제11회 정기작품발표회 '음악에 길을 묻다 VII' 19:30 초대/김영도(010-8519-9033) 소 황윤희의 態 19:30 초대/황윤희(010-2620-8251)	3 소 전은지 플루트 클래스 연주회 19:00 초대/전은지(010-5327-6025)	4 대 2016 장범준 전국공연 '사랑에 빠져요' 18:00 9만 9천원·S석 8만 8천원 (주)WSM(1566-5490) 소 토요일상설무대 '양상블 ART-O' 16:00 선착순 무료입장/부산문화화관(607-6055)
8 중 제16회 소프라노 박현정 독창회 '해설과 함께하는 오페라 아리아의 밤' 20:00 균일 2만원/부산문화(1600-1803)	9 중 김성희, 장효진 피아노 듀오 리사이틀 19:30 균일 2만원/김성희(010-4844-7469)	10 대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20회 정기연주회 '에로이카' 19:30 2만원·1만5천원·1만원·5천원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607-3106, 3145) 중 가족뮤지컬 '정글소년 모글리' 10:10, 11:10 균일 6천원/키즈샘&프랜즈(02-6205-6593)	11 대 벨라보체합창단 제3회 정기연주회 19:00 초대/벨라보체합창단(010-5500-3086) 중 라온제나 심포니오케스트라 제8회 정기연주회 18:00 무료 라온제나심포니오케스트라(010-9507-9090) 소 토요일상설무대 부산시립무용단 16:00 선착순 무료입장/부산문화화관(607-6055)
15 대 제33회 부산음악콩쿠르 예선 09:00 부산MBC 사업부(760-1126) 중 제33회 부산음악콩쿠르 예선 09:00 부산MBC 사업부(760-1126) 소 제33회 부산음악콩쿠르 예선 09:00 부산MBC 사업부(760-1126)	16 대 제33회 부산음악콩쿠르 예선 09:00 부산MBC 사업부(760-1126) 중 제33회 부산음악콩쿠르 예선 09:00 부산MBC 사업부(760-1126) 소 제33회 부산음악콩쿠르 예선 09:00 부산MBC 사업부(760-1126)	17 대 제33회 부산음악콩쿠르 예선 09:00 부산MBC 사업부(760-1126) 중 제33회 부산음악콩쿠르 예선 09:00 부산MBC 사업부(760-1126) 소 제33회 부산음악콩쿠르 예선 09:00 부산MBC 사업부(760-1126)	18 대 부산하모니합창단 제13회 정기연주회 19:00 초대/부산하모니합창단(610-1304, 010-5663-3347) 중 유나이티드 코리안 유스오케스트라 제13회 정기연주회 17:00 균일 5천원 양보람(010-3863-3087) 소 토요일상설무대 'JEM 합창단' 16:00 선착순 무료입장/부산문화화관(607-6055)
22 대 제33회 부산음악콩쿠르 본선 09:00 부산MBC 사업부(760-1126) 중 제33회 부산음악콩쿠르 본선 09:00 부산MBC 사업부(760-1126) 소 제33회 부산음악콩쿠르 본선 09:00 부산MBC 사업부(760-1126)	23 대 제33회 부산음악콩쿠르 본선 09:00 부산MBC 사업부(760-1126) 중 제33회 부산음악콩쿠르 본선 09:00 부산MBC 사업부(760-1126) 소 제33회 부산음악콩쿠르 본선 09:00 부산MBC 사업부(760-1126)	24 대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박영규와 헤븐 싱어즈' 19:30 7만원·5만원·3만원·2만원·1만원 부산문화회관(607-6065, 3100) 중 소프라노 윤경연 귀국 독창회 19:30 균일 1만원/윤경연(010-3150-7978)	25 대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윤학원 코랄-아! 대한민국' 17:00 2만원·1만원·5천원 부산문화회관(607-6066, 3100) 중 유나이티드 코리안 오케스트라 특별연주회 '협주곡의 밤' 17:00 무료/양보람(010-3863-3087) 소 토요일상설무대 '부산시립합창단' 16:00 선착순 무료입장/부산문화화관(607-6055)
29 대 2016 부산음악대축제Ⅱ '시민대합창제' 19:30 무료/부산음악협회(634-1295) 소 서울 부산 클라리넷 커백션 19:30 균일 1만원/최우선(010-3014-5774)	30 대 미래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제5회 정기연주회 19:30 우리아트(010-5555-3825) 중 로드뮤지컬 '브레멘 음악대' 10:15, 11:20 균일 2만원(단체 예매시 5천원) 극단 남비곰비(02-882-9001) 소 장경미 The 5tu 가야금 독주회 '초심으로 돌아가서' 19:30 균일 1만원/장경미(010-6431-6440)	7/1 대 한여름밤의 클래식 산책 '시네마 콘서트' 19:30 초대(초대권 소지자에 한함)/(사)밀레니엄심포니오케스트라(02-6292-9370) 소 남부산우체국 개국30주년 기념 열린음악회 19:00 초대(초대권 소지자에 한함) 남부산우체국(620-9010)	

가장 혁신적인 오페라 무대

브레겐츠 페스티벌

BREGENZER
FESTSPIELE

12



베르디 오페라 '아이타'

글·사진 이 상 훈 드림원정대 대표

보덴제(Bodensee)는 스위스, 독일, 오스트리아 3국이 면해있으며 그 크기가 유럽에서 세번째로 큰 호수이다. 독일 국경에 콘스탄츠(Konstanz), 린다우(Lindau) 두 도시를 두고 3국 중 가장 큰 면적이 면해 있으며 스위스는 장크트 갈렌(St. Gallen), 그리고 보덴호수 동쪽 끝자락에 이번 호에 소개할 도시인 브레겐츠(Bregenz)가 오스트리아 국경에 닿아있다. 그리고 이 곳에서는 최근 가장 혁신적인 무대를 자랑하는 오페라 축제인 브레겐츠 페스티벌이 해마다 여름이면 개최된다.

최근에는 국내의 한 개봉관에서 13/14 시즌 작품인 '마술피리(Die Zauberflote)'가 소개되었기에 국내에도 꽤 알려져 있다. 많은 오페라 팬들에게는 일찌감치 유럽의 핫플레이스로 자리매김한 지 오래지만, 이 축제가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건 2008년 개봉한 영화 007 시리즈 '퀀텀 오브 솔러스'의 영향이 컸다. 당시 푸치니의 오페라 '토스카(Tosca)' 중 3막 카바라도시의 처형장면이 007 총격 장면과 오버랩되면서 극중 긴장감을 고조시켰는데, 이 장면이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었다.

유럽의 많은 오페라 축제 중, 여름밤 야외에서 공연되는 곳은 여러 곳이 있다. 이미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베로나 오페라 축제가 우선 으뜸이고 푸치니의 고향 인근 토레 델 라고(Torre del Lago)에서의 푸치니 페스티벌, 1990년 3테너의 콘서트로 유명한 로마의 카라칼라(Caracalla) 욕장에서 역시 여름이면 오페라 축제가 열린다. 베로나 아레나(Arena di Verona)에서

공연되는 오페라 축제는 시즌당 7~8 작품이 올라가는데 거의 매일 밤 작품이 교대로 공연된다. 푸치니 페스티벌 역시 그가 작곡한 오페라가 3~4 작품 올라가는데 이렇듯 야외오페라 역시 시즌별로 라인업이 구성되기 마련이다.

하지만 브레겐츠가 이들과 차별을 둔 것은 단 하나의 작품으로 승부를 걸었다는 것이다. 그것도 한 해에 한 작품이 아니라 2년에 한 작품씩 무대에 올려지는데, 그래서 모든 역량을 하나의 작품에 모을 수 있었고 이는 가장 혁신적인 무대와 연출을 자랑하는 오페라 페스티벌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되었다.

시작은 이렇었다. 1946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보덴제를 찾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바지선 두 대를 호수 위에 띄워놓고 공연을 한 게 그 처음이다. 하지만 수상 무대라는 제한 때문에(이는 또한 장점이 되기도 하였다) 무대는 점점 더 보완이 되었으며 지금은 첨단 기계장비와 음향장비를 갖춘 세계최고의 야외 무대축제로 자리매김했다.

필자가 이 오페라 축제와 처음 인연을 맺었던 건 09/10 시즌에 만난 베르디의 오페라 '아이다(AIDA)'에서 부터였다. 당시 연출을 맡았던 그레이엄 비크는 극의 배경이 되었던 이집트의 파라오를 미국의 자유의 여신상으로 대신하였으며 호수 위의 무대 섬(Floating Stage on the Lake)이라는 특징점을 십분 발휘하여, 호수 안에 잠겨 있던 무대를 대형 크레인으로 수면에서 들어올려 공중에서 합체시키는 상상력을 발휘했다. 그것도 개선행진곡에



브레겐츠 축제극장 전경



맞추어서 말이다. 당시 패권국가였던 이집트의 위세를 팩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 작금의 미합중국에 빚댄 연출도 설득력 있어 보였다.

11/12 시즌은 움베르토 지오르다노의 오페라 '안드레아 쉐니에(Andrea Chenier)'이다. 다소 생소한 이름일 수 있겠지만 베리즈모(사실주의) 오페라의 대표격으로 프랑스 혁명 당시 실존 인물을 작품에 다루고 있다. 이 작품이 어떻게 연출될까는 많은 오페라 팬들에게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브레겐츠의 무대는 관객을 실망시키지 않았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불란서의 화가 자크 루이 다비드(Jacques-Louis David)의 '마라의 죽음(Death of Marat)'을 모티브로 대형 무대를 만들었다. 실제 마라는 프랑스 혁명을 이끌었던 지도자 중 한 사람으로 상대당인 지롱드 당 소속의 자객에 의해 살해당하게 되는데 이를 다비드는 순교자의 이미지로 마라를 그렸다. 작품의 시대적 배경과 접점이 생기는 지점인 것이다.

13/14 시즌은 모차르트의 마지막 작품인 '마술피리(Die Zauberflöte)'가 무대에 선보였고, 이번 시즌인 15/16년도에는 푸치니의 오페라 '투란도트(Turandot)'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올라갔다. 과거 한 차례 공연된 적이 있는 작품인데다 지난 시즌까지 음악감독을 맡았던 영국의 전위연출가 데이비드 파운트니가 떠난 후 무대에 올려지는 첫 작품이라 기대와 우려를 한번에 받았다.



움베르토 지오르다노 오페라 '안드레아 쉐니에'

하지만 막상 뚜껑이 열리고 보니 살짝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았다. 이는 브레겐츠의 무대에 대한 큰 기대감에서 오는 것일지도 모른다. 적어도 '투란도트=쉬누아즈(중국풍)' 라는 공식을 깨주었으면 했는데, 이번 투란도트 무대컨셉은 만리장성과 진시황릉의 병마용이었다. 그래도 티켓오피스 상황은 예년보다 더 나아져 7천석 가까이 되는 야외무대는 연일 매진 행렬이다. 게다가 작년 4월 영국에서 개최한 국제 오페라 어워즈(The International Opera Awards)에서, 올해의 오페라축제 부문 위너로 수상하는 영예까지 누렸다. 한국인 테너 김정호씨가 작품의 조역 '퐁' 역할을 맡은 것도 주목할 만했다.

다음으로는 브레겐츠 페스티벌의 상주 오케스트라인 빈 심포니(Wiener Symphoniker)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한때는 빈 필하모닉(Wiener Philharmoniker)에 버금가는 영화를 누렸지만, 지금은 그에는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여전히 빈을 대표하는 관현악단으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 볼프강 자발리슈 등이 지휘를 맡기도 하였다. 세계최고의 음악축제인 잘츠부르크 페스티벌(Salzburger Festival)의 호스트 오케스트라가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라면 이곳 브레겐츠에서는 빈 심포니가 반주를 맡고 있다. 그렇기에 이 오페라 축제의 진가가 더 발휘되는 것이다.

얼마전 한 언론에서 지난 시즌 작품이었던 오페라 '마술피리'의 경제효과를 언급한 적이 있는데 2015년 기준으로 인구 3만이 채 안되는 이 작은 도시 브레겐츠에서 오페라가 열렸던 한달 동안 관람객 25만 명이 몰렸으며, 티켓 수입으로만 570만 유로(약 85억원), 인근 카지노와 호텔, 상점이 누리는 경제효과는 무려 2,000억 원에 달한다는 기사를 접한 적이 있다. 덕분에 이 도시의 브랜드는 '브레겐츠=오페라페스티벌' 이라는 공식으로 자리매김한지 오래이다. 최근 국내의 축제 내용이 도시마다 개성없이 중첩되는 상황과 비교하면 한번 심사숙고해 보아 될 지점이기도 하다.

브레겐츠를 찾아가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오스트리아 서부 포어아를베르크 주의 주도인 브레겐츠는 우리가 잘 아는 비엔나나 잘츠부르크와는 거리가 있다. 오히려 동계올림픽 개최지였던 인스부르크랑 더 가깝다. 국내에서는 직항편이 연결되어 있는 취리히나 뮌헨에서 기차로 가는 방법이 가장 수월하다.



모차르트 오페라 '마술피리'



푸치니 오페라 '투란도트'



제10회 대구국제뮤지컬 페스티벌

DAEGU INTERNATIONAL MUSICAL FESTIVAL

전 세계 뮤지컬인이 주목하는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이하 DIMF)'이 올해로 탄생 10주년을 맞는다. '아시아의 브로드웨이'를 꿈꾸며 지난 2006년 Pre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을 시작으로 첫발을 내딛은 DIMF은 그동안 전 세계 프로덕션과 공연관계자, 대중을 아우르는 아시아 최초의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로 뮤지컬 애호가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6월 24일 코오롱아외음악당에서 열리는 개막축하공연을 시작으로 그 화려한 축제의 막을 올리는 DIMF 2016에서는 개막작을 포함한 5편의 해외공식초청작과 특별공연, 창작지원작 등 총 14편의 작품이 무대에 오른다. 10주년을 맞는 올해 DIMF 개막작은 할리우드 영화로도 유명한 뮤지컬 '금발이 너무해(영국)'. 지난해 DIMF 개막작으로 화제가 되었던 뮤지컬 '포비든 플래닛'에 이어 웨스트엔드와 브로드웨이를 휩쓴 Richard Darboire 제작사의 흥행작으로, 영국 오디션 프로그램 X-Factor 출신으로 영국 뮤지컬계의 새로운 스타로 급부상중인 루시 존슨이 영동하면서도 사랑스러운 금발미녀 '엘 우즈'로 완벽하게 변신, 관객들과 만난다.

뮤지컬축제의 마지막을 알리는 폐막작은 지난 2014년 제8회 DIMF 어워즈에서 '마타하리'로 여우주연상을 거머쥐었던 슬로바키아 국민배우 시



- ❶ 개막작 '금발이 너무해'
- ❷ 공식초청작 '감브리누스'
- ❸ ❹ 폐막작 '마담 드 폰파두르'
- ❺ '투란도트'



· 주요 일정

개막 축하공연 6월 24일(금) 오후 7:30 코오롱야외음악당
 특별공연 '개구리 원정대(중국)' 6월 24일(금)~26일(일) 아양아트센터
 개막작 '금발이 너무해' 6월 25일(토)~7월 2일(토) 대구오페라 하우스
 공식초청작 '지구멸망 30일 전' 6월 25일(토)~26일(일) 봉산문화회관 가온홀
 특별공연 '최치원' 6월 25일(토)~26일(일) 수성아트피아 용지홀
 DIMF 창작지원작 '조선연애술사' 6월 25일(토)~26일(일) 문화예술전용극장 CT
 DIMF 창작지원작 '장 담그는 날' 6월 30일(목)~7월 3일(일) 문화예술전용극장 CT
 공식초청작 '해상, 음(海上, 음)' 7월 1일(금)~2일(토) 계명아트센터
 DIMF 창작지원작 '로렐라이' 7월 1일(금)~3일(일) 봉산문화회관 가온홀
 폐막작 '마담 드 폰파두르' 7월 6일(수)~9일(토) 대구오페라하우스
 DIMF 창작지원작 '우당탕탕 열애기' 7월 6일(수)~10일(일) 봉산문화회관 스페이스 라온
 특별공연 '뮤지컬 투란도트' 7월 7일(목)~10일(일) 계명아트센터
 공식초청작 '감브리누스' 7월 8일(목)~10일(일) 수성아트피아 용지홀
 특별공연 '원이엄마' 7월 9일(토) 아양아트센터
 DIMF 창작지원작 '선택' 7월 9일(금)~10일(일) 봉산문화회관 가온홀
 폐막식 7월 11일(월) 오후 7:30 대구오페라하우스

사 스킴로브스까의 귀환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마담 드 폰파두르(슬로바키아)'로, 18세기 프랑스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은 루이 15세의 가장 유명하고 아름다웠던 왕의 여자 '마담 드 폰파두르'를 창작뮤지컬로 만날 수 있다. 이밖에 선술집 감브리누스를 배경으로 모두에게 사랑받던 악사 사슈카의 이야기를 통해 혼란스러웠던 러시아 변혁기의 시대상을 그린 '감브리누스(러시아)', 항 일전쟁 70주년을 기념해 중국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상해음악원 출신의 아티스트들이 탄생시킨 창작뮤지컬 '해상, 음(중국)', 2015년 제9회 DIMF 창작뮤지컬 수상작인 코믹뮤지컬 '지구멸망 30일 전(한국)' 등 다섯 작품이 공식초청작으로 선보인다.

올해 DIMF 특별공연은 모두 네 작품으로, DIMF가 직접 제작하여 2011년 DIMF 개막작으로 선보인 창작뮤지컬 '투란도트'와 개구리 가족의 험난한 새 터전 찾기 프로젝트를 통해 환경보호의 메시지를 담은 가족뮤지컬 '개구리 원정대(중국)', 신라의 마지막 문인 최치원의 일대기를 뮤지컬로 제작한 Made by 경주의 창작뮤지컬 '최치원', 430여 년 전 안동의 실존인물인 고성 이씨 이응태와 그의 부인의 애절한 사랑이야기를 담은 안동을 대표하는 창작뮤지컬 '원이엄마' 등이 무대에 오른다.

한국 창작뮤지컬의 저변확대와 활성화를 위해 제1회 때부터 지속적으로 진행해오고 있는 DIMF 창작지원사업은 그동안 '번지점프를 하다', '스페셜레터', '모비딕', '폴하우스' 등 수 많은 창작뮤지컬을 배출해내며 그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는 총 54개 지원작 중 심사를 거쳐 선정된 다섯 작품이 관객과 만난다. 조선시대, 사랑마저도 권력의 도구여야 했던 궁에서 훼손된 사랑을 갈망하는 여자와 그를 구실로 한 몫 잡아보려 했던 사내의 예측하지 못한 사랑을 그린 '조선연애술사'와 종갓집을 배경으로 한국의 맛 '장'이라는 소재를 통해 따뜻한 가족애를 그린 '장 담그는 날', 2015년 'DIMF 뮤지컬아카데미' 트라이아웃 선정작으로, '로렐라이' 전설을 새롭게 재해석한

판타지뮤지컬 '로렐라이', 두근거림이나 설렘도 없는 7년차 연애에 접어든 젊은 청춘남녀의 한바탕 해프닝을 그린 '우당탕탕 열애기', 안동하회별신굿 탈놀이의 전설에서 모티브를 얻어 현대와 전통을 아우르는 새로운 뮤지컬 형식으로 재탄생된 '선택' 등 드라마, 로맨틱 코미디, 픽션 사극 코미디, 판타지 등 다양한 장르의 창작뮤지컬이 선보인다. 특히 이 작품들 중 'DIMF 어워즈'에서 '창작뮤지컬상'을 수상한 작품은 내년 제11회 DIMF 공식초청작으로 다시 한번 관객과 만날 수 있다.

이밖에 제10회 DIMF에서는 8개 학교가 참가하는 대학생뮤지컬페스티벌을 비롯해 뮤지컬 전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DIMF 뮤지컬 아카데미', 시민들이 거리에서 다양한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축제 속의 축제로 펼쳐지는 거리축제 '딤프린지(DIMFringe)', 찾아가는 DIMF, 뮤지컬 스타와 관객이 만나는 DIMF 뮤지컬 토크콘서트, DIMF 주요 작품의 무대 세트를 만나볼 수 있는 DIMF 백스테이지투어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펼쳐진다.

42년만에 새 단장하고 시민들과 만나는

부산민속예술관

‘예향(藝鄕)의 고장’ 동래지역에서 전승되고 있는 무형문화재 전승과 보급에 앞장서고 있는 부산민속예술관이 개관 42년만에 새 단장하고 부산시민들과 만난다.

부산시민들의 대표적인 휴식공간인 온천동 금강공원 내 숲속에 자리하고 있는 부산민속예술관은 지난 1974년 7월, 동래지역의 전통 민속예술인 중요무형문화재 제18호 동래야류를 비롯해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3호 동래학춤, 제4호 동래지신밧기, 제10호 동래고무, 제14호 동래한량춤 등 동래지역에서 전승되는 전통민속예술의 발굴과 계승, 보급을 위해 문을 열었다. 개관 당시 120석 규모의 공연장을 갖춘 2층 규모의 건물에서 시작한 부산민속예술관은 4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건물 노후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부산민속예술관을 이용하는 지역 민속예술인들로부터 전수관으로서의 그 기능을 잃었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부산민속예술관의 새로운 모습을 원하는 지역 민속예술인들의 바람에 개관 후부터 운영을 맡아 부산민속예술관을 지키고 있는 부산민속예술보존협회의 노력이 더해지면서 부산민속예술관은 지난 2014년 말 전면 증·개축공사에 들어가 올해 5월 새로운 모습으로 문을 열었다.

이번에 새롭게 단장한 부산민속예술관은 연면적 1715.54㎡, 건축면적 670.10㎡, 지상 3층 건물로, 지붕에 고풍스런 전통양식을 가미한 현대식 건물로 지어졌다. 1층에는 대연습실과 소연습실, 악기보관실, 자료보관실 등이 들어서 있으며, 2층에는 188석 규모의 공연장, 3층에는 사무실이 자리하고 있다. 특히 예전 공연장보다 객석수도 많아지고 무대 규모도 커진 공연장은 부산민속예술보존협회의 상설 공연장으로서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을 위한 예술회관으로서의 역할도 함께 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부산민속예술보존협회를 구성하고 있는 동래야류와 동래학춤, 동래지신밧기, 동래고무, 동래한량춤 외에도 중요무형문화재 제45호 대금산조(강백천류),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8호 가야금산조(강태홍류), 제16호 아쟁산조(박대성류), 제21호 지연장(동래 전통연 제작) 등 동래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4개 민속예술단체가 올해 새롭게 부산민속예술관에 합류하면서 앞으로의 합동무대에 기대가 커지고 있다.

“오래전부터 지역 민속예술인들의 숙원사업이었던 부산민속예술관의 증·개축공사가 별 사고없이 마무리되어 무엇보다 기쁩니다. 앞으로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의 전통 민속놀이를 알려나가고 시민들과 함께 향유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부산민속예술보존협회 백정강 이사장은 부산민속예술관이 단순히 무형문화재를 전승하고 보급하는 전수관으로서 뿐 아니라 지역민들이 언제나 문화예술을 누리고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적극 운영해나갈 계획이다.

부산민속예술보존협회는 매년 5월 부산민속예술보존협회가 전승하고 있는 무형문화재 정기발표회를 겸한 동래민속예술축제를 열고 있다. 최근 들어 5월 첫 주 일요일에 열고있는 동래민속예술축제는 올해로 51회를 맞는 대표적인 행사로, 올해 무대에서는 5개의 무형문화재 공연 외에도 전라북도지정무형문화재 제7-6호 고창농악을 선보이기도 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 부산민속예술보존협회는 고창농악보존회와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앞으로 타 지역과의 문화예술교류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지난 2011년부터 열고 있는 일요상설무대 ‘얼췌 동래! 전통 민속예술 한마당’은 올해 총 6차례 진행되며 앞으로 넷째 주 일요일인 6월 26일, 9월 25일, 10월 23일, 11월 27일 부산민속예술관 야외마당에서 펼쳐진다. 또, 영남의 대표적인 전통예술경연대회로 각광받고 있는 제41회 부산동래 전국전통예술경연대회는 타 공연장에서 열리던 예년과 달리 올해부터 새롭게 단장된 부산민속예술관에서 열리며,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2016 동래전통예술문화대학’은 매년 3월과 9월에 강좌를 시작한다.

■문의/부산민속예술관 555-0092, www.pusanminsok.or.kr

- ① 부산민속예술관 전경
- ② 부산민속예술관 입구
- ③ 부산민속예술관 대연습실
- ④ 부산민속예술관 공연장
- ⑤⑥ 부산민속예술관 야외공연





클래식 음악의 세계로 이끄는 길라잡이

이지 오페라 클래식

‘아는 만큼 느끼고 느낀 만큼 보인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한 때 대한민국을 답사 열풍에 휩싸이게 했던 밀리언 셀러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에서 저자인 유홍준 교수는 ‘미술에 대한 안목을 어떻게 기를 것인가’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는 그의 다른 저서인 ‘명작순례’에서 작품을 보는 자신만의 눈인 ‘안목’을 기르는 길은 좋은 작품을 좋은 선생님과 함께 보는 것이라 덧붙였다. 과연 미술만 그럴까, 일반인들이 어렵게만 생각하는 클래식 음악 역시 알고 들으면 즐겁다는 사람들이 여기 있다. 바로 클래식 음악을 함께 감상하고 공유하는 클래식 문화예술 커뮤니티 ‘이지 오페라 클래식’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지난 2013년 5월 창단한 ‘이지 오페라 클래식’은 클래식 음악전공자와는 거리가 먼, 오페라와 클래식 음악을 사랑하는 일반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매달 첫 주 금요일 저녁, 중앙동에 자리한 부산 유일의 오페라 전용 감상실인 ‘서퍽리 오페라’에서 클래식 음악으로 소통하며 감동을 나누고 있다.

‘이지 오페라 클래식’은 타 클래식음악 감상동호회에서 인연을 맺은 회원 5명으로 첫 발을 내딛었다. 클래식 음악에 대한 호기심은 넘치나 그저 어렵고 부담스럽다는 선입견으로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일반인들을 위해 그야말로 클래식을 쉽게(Easy) 접근할 수 있는 감상동호회를 만든 것. 그 당시 회원들이 오페라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데다 ‘서퍽리 오페라’가 정기모임 장소를 제공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지 오페라 클래식’이 탄생했다. 올해로 4년째로 접어들면서 현재 ‘이지 오페라 클래식’에는 회원 25명이 활동하고 있다.

“물론 전문가 수준의 회원들도 있지만 ‘이지 오페라 클래식’ 회원 대부분은 그저 클래식 음악이 좋아 모인 일

반인들입니다. 교수, 의사, 교사, 공무원, 일반 직장인 등 그 직업은 다르지만 대부분이 30~40대의 젊은층이라 특히 회원들간에 오가는 공감대가 비슷합니다.”

현재 ‘이지 오페라 클래식’ 카페지기를 맡고 있는 손정훈 씨. 매달 한차례 열리는 정기모임과 번개모임, 공연관람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클래식과 더불어 서로 살아가는 이야기로 회원들간에 친목을 다지고 있다. 특히 정기모임은 동호회의 음악 멘토인 김희성, 김승우 회원과 초청강사의 해설이 있는 음악감상회로 진행된다. 그 달의 정기모임 멘토가 주제와 곡을 선정, 사전에 동호회 카페를 통해 알리면 회원들은 모임 전까지 미리 읽고 모임에 참석한다.

현재 동서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멘토 김희성 교수는 “강의 일정으로 시간이 빠듯하지만 회원들의 뜨거운 열정을 생각하면 음악 선곡과 악곡 해설에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동호회 활동에 애정을 드러낸다. 입문자들이 클래식 음악에 대해 체계적으로 알아나갈 수 있도록 시대별로 곡의 형식 및 특징, 작곡가 등 주제를 정해 접근하고 있다. 가입 당시 클래식 음악이라면 손사레부터 찔던 회원들도 꾸준한 활동으로 이제는 스스로 평도 하는 애호가 수준으로 들어섰다.

정기모임 장소인 ‘서퍽리 오페라’가 진행하는 정기감상회를 통해 번개모임도 자주 갖고 있는 ‘이지 오페라 클래식’ 회원들은 가끔은 부산문화회관 등 공연장을 찾아 생생한 라이브 연주를 즐기는가 하면 매년 10월에는 ‘대구국제 오페라축제’ 참여를 위해 대구를 방문하는 등 음악감상에서 한걸음 나아가 다양한 문화활동도 함께 즐기고 있다.

“대학시절 클래식 음악과 인연을 맺은 후 처음에는 그저 혼자서 즐기다 동호회 활동을 시작하며 클래식 음악 애호가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클래식 음악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그 길을 쉽게 찾지 못하는 주위 분들에게 클래식 음악의 즐거움을 누리게 해주고 싶습니다.”

‘이지 오페라 클래식’의 또 한 명의 멘토 김승우 씨는 클래식음악에 쉽게 접근할 수 없어 망설였던 입문자들이나 클래식 음악에 대한 감동과 열정을 함께 공유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지 오페라 클래식’의 문은 언제나 열려있으며 새로운 회원과의 만남을 기대한다.

■문의/이지 오페라 클래식(cafe.daum.net/operajanchi)

여름이 다가온 것을 알리는 입하(立夏)도 지나고 신록을 재촉하는 5월의 둘째 주 금요일인 5월 13일,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과 떠나는 116번째 테마여행이 펼쳐졌다. 5월의 테마여행지는 우리나라 근현대사 흔적이 고스란히 살아있는 대구광역시. 그중에서도 최근 대구의 대표적인 테마 관광상품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골목 투어'에 나섰다.

다양한 주제와 테마에 맞춰 대구의 역사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총 다섯 개의 골목투어 코스 중 이날 정기회원 가족들이 도전할 코스는 골목투어를 전국 유명 관광지로 만든 가장 인기있는 핵심코스인 제2코스 '근대문화골목' 코스.



우리나라 근현대사
발자취를 따라 떠나는

대구 근대문화골목 투어

◀ 청라언덕

▼ 3·1운동 만세길



‘근대문화골목’코스는 청라언덕에서 진골목까지 이어지는 1.64km 가량의 비교적 짧은 구간으로, 100여 년 전 근대역사가 가장 잘 보존되어 있어 찾는 이들이 가장 많다. 특히 이번 대구여행에는 부산시립무용단 단원 장래훈, 서정연 씨가 동행하면서 여행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높아졌다.

두 시간여를 달려 도착한 곳은 바로 ‘근대문화골목’ 코스의 첫 출발지인 청라언덕. 이번 골목 투어를 이끌어줄 문화유산해설사 김경화 씨가 회원가족들을 반갑게 맞는다. 부산시립합창단 단원을 역임하기도 했던 김경화 해설사는 지난 2012년과 2014년 골목 투어에서도 화려한 입담으로 회원들의 많은 박수를 받았다.

청라언덕에는 1899년 문을 연 영남지역의 첫 서양 진료소인 제중원인 지금의 동산병원과 앞서 1898년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 지어진 대구, 경북지역 최초의 교회인 제일교회, 그리고 선교사들이 살았던 3채의 선교사주택 등 100여 년 전 근대역사의 흔적이 잘 보존되어 있다. 그 정경 또한 아름다워 드라마 ‘사랑비’, ‘각시탈’, 영화 ‘오월의 신부’, ‘모던 보이’ 등의 촬영지로도 유명하다. 특히 푸를 청(靑), 담쟁이 라(蘿), ‘푸른 담쟁이로 덮힌 언덕’이라는 뜻의 청라언덕은 ‘봄의 교향악이 울려 퍼지는 청라언덕 위에 백합 필적에~’로 시작하는 가곡 ‘동무생각’에 등장하는 바로 그 언덕으로, 1910년대 계성고등학교를 다녔던 작곡가 박태준이 당시 짝사랑했던 여고생을 생각하며 작곡한 곡으로 알려져 있다. 아련한 첫사랑의 추억을 떠올리는 가운데 김경화 해설사의 선창으로 정기회원들이 부르는 ‘동무생각’이 청라언덕에 울려 퍼졌다.

이어 발길을 옮긴 곳은 인근에 자리한 ‘3·1만세운동길’. 90계단길이라고도 불리는 ‘3·1만세운동길’은 3·1운동 당시 만세운동을 준비하던 학생들이 일본군의 감시를 피해 몰래 지나다니면서 붙여진 이름으로 지금은 3·1운동 당시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 골목길 벽에 부착되어 그 날을 생생하게 증언해주고 있다. ‘3·1만세운동길’을 내려와 횡단보도를 건너면 서울 명동성당, 전주 전동성당과 함께 한국의 3대 성당으로 손꼽히는 대구 최초의 서양식 건물인 계산성당을 만날 수 있다.

계산성당을 나와 민족시인 이상화의 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가 새겨진 보도를 따라 가다보면 이상화 선생의 고택을 만날 수 있다. 이곳은 1939년부터 임종때까지 약 4년간 머물며 작품활동을 했던 곳으로, 이상화 선생의 유품이 전시되고 있다. 이상화고택은 인근지역 개발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었지만 대구시민들이 고택보존운동본부를 만들어 지켜낸 대구시민의 자존심과 같은 곳이다. 바로 옆에는 대구에서 시작된 국채보상운동을 주창한 서상돈 선생의 고택도 자리하고 있어 함께 둘러볼 수 있다.

오전 일정의 마지막 장소는 환경과 한방을 주제로 한 에코한방웰빙체험

관과 약령시한의약박물관. 특히 약령시의 역사와 인근 약전골목의 유래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약령시한의약박물관은 다양한 한의약 관련 전시품과 함께 한의약을 이용한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다. 약령시한의약박물관에서 제공하는 따뜻한 쌍화차로 차 한잔의 여유를 즐긴 회원들은 박물관 앞 넓은 마당에서 부산시립무용단 장래훈, 서정연 씨의 '우리춤 체조'로 숨가쁘게 달려왔던 오전 일정의 피로를 말끔히 풀었다.

정기회원 가족들은 뒤늦은 점심식사를 위해 인근 진골목으로 서둘러 발길을 돌렸다. '길다'라는 경상도 방언 '질다'에서 유래해 '긴 골목'이란 뜻을 가진 진골목은 인근 변화가와와는 다른 대구의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현존하는 대구 최초의 양옥건물인 '정소야과'와 이제는 전국적인 명소가 된 미도다방을 만날 수 있다. 평양식콩나물비빔밥으로 점심식사를 마친 회원가족들은 대구근대역사관이 자리하고 있는 경상감영공원으로



1 이육사 생가 2 부산시립무용단 '우리춤 체조' 3 약령시 한의약박물관
4 대구근대역사관 5 김광석다시그리기길

자리를 옮겼다. 지난 2011년 개관한 대구근대역사관은 1932년 조선식산은행 대구지점으로 건립된, 르네상스 양식의 조형미가 뛰어난 건물로, 19세기 후반~20세기 초 대구의 생활, 풍습, 교육, 문화 등을 알 수 있는 다양한 모형과 전시물, 영상 등이 전시되고 있다. 대구근대역사관을 둘러본 후 인근 경상감영공원으로 발길을 옮긴 회원들은 경상도의 행정, 사법, 군무를 통괄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았던 경상감영의 관찰사가 집무를 보던 선화당과 관찰사 처소로 사용되던 징청각까지 둘러본 후 대구 테마여행의 마지막 여행지인 '김광석다시그리기길'로 출발했다.

영원한 가객(歌客) 김광석을 추모하며 대구 방천시장 옆에 조성된 '김광석다시그리기길'은 김광석의 모습과 노래가 그려진 벽화와 조형물을 따라 그의 노래들이 흘러나오면서 지난해에만 84만여 명이 찾을 정도로 전국적인 명소로 사랑받고 있다. 서른 둘 짧은 생이었지만 추억 속 노래로 여전히 기억되고 있는 김광석처럼 이번 대구 테마여행 역시 회원들의 가슴 속에 오랫동안 좋은 추억으로 기억될 것이다.



7월 8일 천년고찰 직지사를 품고 있는 김천

사명대사의 출가득도 사찰인 직지사를 비롯해 찬란한 문화유적과 절경이 잘 보존되어 있는 김천 여름여행.

- 8:00 부산문화회관 출발
- 10:30 김천 도착, 반곡포도마을 포도따기 체험
- 11:30 부산시립예술단과의 만남
- 12:00 중식
- 13:00 직지사 탐방
- 14:00 세계도자기박물관, 백수문화관 탐방
- 15:30 방초정 탐방
- 16:00 부산 출발

8월 12일 아름다운 보물섬 남해 여름여행

국내 최대, 최초의 남해유배문화관과 남해의 상징 마늘나라 나라전시관, 두모마을에서 여름을 즐기는 아름다운 보물섬 남해 여행.

- 07:00 부산문화회관 출발
- 10:00 두모마을 도착, 갯벌 바지락캐기 체험
- 11:30 부산시립예술단과의 만남
- 12:00 중식
- 14:00 남해유배문화관, 보물섬 마늘나라 전시관 탐방
- 16:00 부산 출발

06월 테마여행 당첨자

● 신규 회원

- | | |
|----------------|----------------|
| 김미라(금정구 중앙대로) | 이호숙(사상구 백양대로) |
| 권호경(동래구 명륜로) | 윤정인(남구 신선로) |
| 박노진(부산진구 가야대로) | 정명희(해운대구 마린시티) |
| 백영심(동래구 여고로) | 조철호(해운대구 마린시티) |
| 변승철(사하구 다대로) | 최윤석(해운대구 선수촌로) |

● 기존 회원

- | | |
|---------------|----------------|
| 김강영(동래구 북천로) | 박원석(남구 유엔로) |
| 김성덕(사상구 냉정로) | 박창식(남구 석포로) |
| 김연자(남구 석포로) | 양민정(남구 유엔로) |
| 김정설(부산진구 새싹로) | 정지수(사상구 새벽시장로) |
| 박영희(수영구 광남로) | 한정숙(해운대구 선수촌로) |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에 응모하세요!

부산시립예술단원들과 함께 떠나는 품격 높은 테마여행의 행운을 드립니다. 테마여행에 참가하고 싶은 정기회원님들은 신청엽서를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홍보팀으로 보내주시십시오. 당첨되신 회원은 동반 1인과 함께 여행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체험비는 회원부담)

| 신청방법 | 엽서 · 전화 · 홈페이지

culture.busan.go.kr 정기회원 테마여행 게시판

| 문 의 |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홍보팀 607-3100



부산시립극단 제56회 정기공연

부산연극 역사의 힘 II

SUPER DAD

휴먼가족극

진 주(김은옥)
엄일탁 딸(의상실주인)

오 대위(장현준)
인근 부대 장교

태 큐(전현준)
엄일탁 아들(기출중)

양춘식(씨보기)
엄일탁 친구(지린집 사장)

여순남(이현주)

엄일탁(황창기)
독불장군이라 엄장군이라 불림

택배원(정행심)

그 가족이 수상하다

2016. 7. 12(화) ~ 16(토) 평일 7시30분 주말 5시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주최 | 부산광역시

주관 | 부산광역시시립예술단

제작 | 부산시립극단

입장권 | 1만원

예매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http://culture.busan.go.kr> 문의 | 607-3107(홍보팀), 607-3147(공연운영팀)

할인 | 20%(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예술인패스 소지자, 대학생 및 만 23세 이하 청년, 중·고생(전화예매시))

50%(장애인(1-3급 동반인, 4-6급 본인), 국가유공자, 경로우대자,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전화예매시))

예술감독 박종필 작 김태수 객원연출 전승환 무대감독 정순지 조명디자인 이명건 음악 박인규 무대디자인 황경호 조연출 안예은 기획 조승환 홍보 조영미

CULTURE

LIFE

June 2016
vol.294
INVITATION TO THE ARTS

28 프리뷰

36 리뷰

38 프로그램 가이드

56 새로 나온 음반

57 새로 나온 책

〈부산 주요 공연장 안내〉

국립부산국악원 | 811-0040

금정문화회관 | 519-5651

동래문화회관 | 550-6611

부산광역시 학생예술문화회관 | 366-8114

부산문화회관 | 1607-6051~5

부산북구문화빙상센터 | 309-4087

부산시민회관 | 630-5200

부산예술회관 | 612-1372

부산햇살가득한날에 | 1899-3253

영도문화예술회관 | 419-5571~3

영화의전당 | 780-6000

을숙도문화회관 | 220-5812~3

해운대문화회관 | 749-7651

가온아트홀 | 1600-1602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 663-5363

공간소극장 | 611-8518

글로벌아트홀 | 505-5995

디코소극장 | 464-1996

레몬트리소극장 | 626-0116

무대공감 | 623-0678

무지크바움 | 070-7692-0747

미리내소극장 | 504-2544

센텀시티 소향씨어터 | 1544-1555

소극장 6번출구 | 625-2117

수아트홀 | 744-1415

소민아트센터 | 991-1100

숨사탕아트홀 | 922-4545

신명천지소극장 | 515-7314

아트카페 움 | 557-3369

액터스소극장 | 611-6616

에저또소극장 | 852-9161

열린아트홀 | 527-012W3

용천지탈소극장 | 612-4312

일터소극장 | 635-5370

자유바다소극장 | 441-2733

차성아트홀 | 723-7203

청춘나비소극장 | 070-8241-2560

초콜릿팩토리 | 621-4005

축제 소극장 | 661-6981

한결아트홀(구.가마골소극장) | 1588-9155

AN아트홀 광안 | 1600-0316

AN아트홀 서면 | 070-4175-9035

BEXCO 오디토리움 | 740-7300

BNK부산은행조은극장 | 1588-2757

KBS부산홀 | 620-7181

MBC롯데아트홀 | 1688-8998

SM아트홀 | 1600-1602

Preview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국립발레단 해설이 있는 발레 '돈키호테 Don Quixote'

메르세데스와 투우사 ©Korean National Ballet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희극발레의 대명사 '돈키호테'가 국립발레단 '해설이 있는 발레' 공연으로 6월 6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관객과 만난다.

6.6(월) 오후 5:00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V석 5만원,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부산문화회관
607-6066, 3100

국립발레단의 해설이 있는 발레로 지난 2011년 무대에 오른 '돈키호테'는 역대 시리즈 가운데서도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작품으로, 스페인의 대문호 세르반테스의 동명소설에 등장하는 결혼 소동을 소재로 하고 있다. 프랑스 태생의 무용가이자 안무가인 마리우스 프티파가 러시아 황실 발레단의 마스터로 있을 때 안무한 전 3막의 발레작품으로, 1869년 모스크바에서 러시아 황실 발레단에 의해 초연됐다. 프티파는 그가 일찍이 에스파냐를 여행하면서 익힌 그 고장의 춤을 이 작품에서 재현했으며, 루드비히 민쿠스의 밝은 음악은 에스파냐의 춤을 효과적으로 살렸다.

발레 '돈키호테'에서 돈키호테는 세르반테스의 원작에 나오는 광기와 몽상으로 가득찬 주인공이 아닌, 여인숙 주인의 말팔랑이 딸 키트리와 가난한 이발사 바질과의 사랑을 이어주는 감초 역할로 등장한다. 공연 해설은 극중 인물인 '가마쉬'가 직접 맡는다. 가마쉬는 결혼식 당일 이발사 바질에게 신부인 키트리를 빼앗긴 돈 많은 귀족으로, 스토리 전개 뿐 아니라 삼각관계의 라이벌이자 사랑에 실패한 등장인물로 질투, 분노, 해탈의 감정과 모험을 생생하고 흥미진진하게 들려준다.

경쾌한 음악과 코믹한 스토리가 어우러진 발레 '돈키호테'는 스페인의 정취가 가득 담긴 붉은색의 화려한 의상과 어우러지는 투우사의 춤, 플라멩코 춤을 비롯해 흥겨운 탬버린과 캐스터네츠를 이용한 현란한 춤 등 다양한 볼거리가 가득해 발레 초보자들도 물론 어린이들도 쉽게 이해하고 즐길 수 있다. 특히 하이라이트이자 마지막을 장식하는 키트리와 바질의 결혼식 장면은 아다지오, 남녀 솔로 바리에이션 등으로 이뤄진 '그랑 파드되(2인무)'로, 수많은 발레 작품의 그랑 파드되 중에서도 가장 화려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여성 무용수의 32바퀴 연속 회전과 남성 무

용수의 화려한 점프 등 고난이도 기교의 절정으로, 클래식 발레의 정수를 감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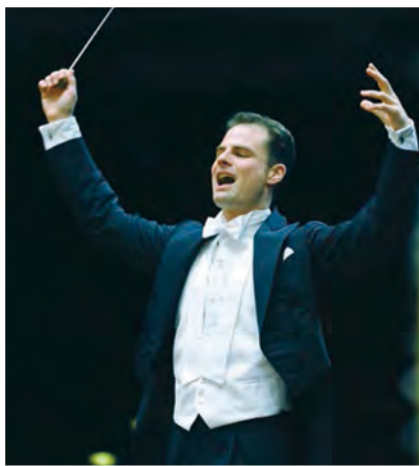
발레 '돈키호테'로 부산을 찾은 국립발레단은 1962년 창단된 최초의 직업발레단으로 국내 최고의 무용수들과 세계 유명 작품을 레퍼토리로 보유하고 있다. 2014년에는 독일 슈투트가르트 발레단의 수석무용수로 활동해온 한국발레의 대명사 강수진 예술감독을 수장으로 맞아 국립발레단을 아시아 최고의 발레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세계 발레계에 대한민국 발레의 위상을 알리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 예술감독/ 강수진
- 안무/ 마리우스 프티파,
알렉산드르 고르스키(재안무)
- 음악/ 루드비히 민쿠스

Preview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20회 정기연주회 에로िका EROICA

지휘 콘스탄틴 트링크스 Constantin Trinks



바이올린 스베틀린 루세브 Svetlana Roussev



뛰어난 교향악 연주력과 오페라 작품의 명쾌한 해석으로 전 세계 오페라극장에서 환영받고 있는 독일 지휘자 콘스탄틴 트링크스가 부산시립교향악단 객원지휘자로 부산을 찾는다.

6.10(금) 오후 7:30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2만원, S석 1만 5천원,
A석 1만원, B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607-3106, 3145

6월 10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리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20회 정기연주회에서는 콘스탄틴 트링크스가 지휘하고 서울시립교향악단 악장을 역임하고 현재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악장으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스베틀린 루세브의 협연으로 글린카 '무솔란과 루드밀라' 서곡, 차이코프스키 '바이올린 협주곡', 베토벤 교향곡 제3번 '영웅(Eroica)'을 들려준다.

독일 칼스루에 음대에서 귄터 라인홀에게 피아노를, 볼프-디터 하우스리트에게 지휘를 공부한 객원지휘자 콘스탄틴 트링크스는 2년 동안 바덴주립극장 오페라 코치 및 지휘자로 재직하던 뒤 자를란트 주립극장에서 2002년 제2지휘자, 2004년 제1지휘자, 2006년~2009년 음악감독 대행으로 활동했으며 2009년부터 2012년까지는 다름슈타트 국립극장에서 음악감독으로 재직했다. 다름슈타트 국립극장 음악감독으로 활동할 당시 '니벨룽의 반지', '뉘른베르크의 명가수' 등의 정교한 연주로 국제적 갈채를 받았으며, 이후 '트리스탄과 이졸데'를 비롯한 바그너의 극작품을 모두 연주하는 등 바그너 스페셜리스트로도 명성을 얻고 있는 트링크스는 그동안 프랑크푸르트 HR심포니오케스트라, 자르브뤼켄 카이저스라우테른 방송교향악단, 도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몽펠리에 국립 오케스트라, 보르도 국립 오케스트라, 뮌헨 방송교향악단, KBS 교향악단, 뮌헨도르프 교향악단, 에센 관현악단, 로이틀링겐 뷔르템베르크 필하모닉 등을 지휘한 바 있다.

뛰어난 기교와 집중력으로 바로크에서 현대에 이르는 폭넓은 레퍼토리를 연주하는 협연자 스베틀린 루세브는 1991년 파리 국립고등음악원에 입학, 제라르 푸레와 장자크 칸토로프를 사사하고 1994년 바이올린 연주부문과 실내악 부문에서 만장일치로 1등상을 받았다. 인디애나폴리스, 롱티보, 멜버른 콩쿠르 등에 입상하고 2001년 샌다이 국제음악콩쿠르 1등상, 특별 관객상, 마흐 협주곡 최고해석상을 받은 루세브는 2006년 불가리아 '올해의 음악가'로 선정되었으

며 2007년 불가리아 문화부가 시상하는 '크리스탈 리라'를 받은 바 있다. 솔로이스트로 프랑스 국립 교향악단,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서울시립교향악단, 도쿄 필하모닉, 불가리아 국립교향악단 등과 협연했으며 '루세브-살크-로자노바 트리오'의 멤버로 실내악 연주자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온 루세브는 현재 모교인 파리 국립고등음악원 교수로 후진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 루세브는 눈부신 독주 기교, 풍부한 오케스트라 색채, 애수에 찬 러시아 선율로 최고의 바이올린 협주곡으로 평가받는 차이코프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협연하고, 2부 무대에서는 객원악장으로 부산시립교향악단과 호흡을 맞춘다.

이번 무대의 마지막 곡이자 연주회 부제이기도 한 베토벤 교향곡 제3번 '에로िका'는 불굴의 투지로 모든 난관을 극복한 승리자이자 고전음악의 완성자인 베토벤이 영웅의 위대한 이상을 음악으로 표현한 불멸의 작품으로, 비극적 장엄미와 열정의 감동을 만끽할 수 있다.

Preview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박영규와 헤븐 싱어즈

노래 박영규(左), 헤븐 싱어즈(右)



아름다운 하모니를 추구하는 트리오 그룹 '헤븐 싱어즈'와 연기자로서 뿐만 아니라 뛰어난 노래 실력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탤런트 박영규와 함께하는 '박영규와 헤븐 싱어즈'가 6월 24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6.24(금) 오후 7:30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V석 7만원,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B석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부산문화회관
607-6065, 3100

시민들에게 다양한 음악 감상의 즐거움을 선사하고 대중 스타와의 콜라보레이션 무대를 통해 클래식 음악 인구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무대에서는 유명 오페라 아리아로 마련되는 1부 무대에 이어 2부에서는 대중에게 친숙한 뮤지컬 명곡, 가요, 팝송 등을 들려준다.

깊이 있는 내면 연기와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춘 연기자 박영규는 1985년 영화 '별리'로 데뷔한 후 이듬해인 1986년 MBC 특채 탤런트로 뽑히며 브라운관에서도 큰 활약을 보이면서 발군의 연기력으로 백상예술대상, KBS연기상, SBS연기상 등을 수상하며 스크린과 안방극장을 종횡무진해왔다. 1980년대 후반 '카멜레온'이라는 가요를 발표하며 대중의 큰 사랑을 받기도 한 박영규는 클래식 음악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면서 2014년과 2015년 TV프로그램인 '불후의 명곡'과 '열린음악회'에 출연해 시청자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키며 성악가로서 클래식음악을 대중에게 알리는 가교 역할을 해오고 있다.

지난 2014년 테너 홍지형, 바리톤 강경원, 베이스 권영기 등 부산의 대표적인 남성 성악가 세 명으로 결성된 헤븐 싱어즈는 남성미 넘치는 파워 보이스와 감미로운 음색, 추억과 웃음을 전하는 품격 높은 퍼포먼스로 관객과 만나왔다. 특히 헤븐 싱어즈는 오페라에서부터 가곡, 칸초네, 뮤지컬 넘버, 7080 가요, POP & K-POP 등 남녀노소를 초월한 다양한 레퍼토리들과 관객들의 기호에 맞는 다채로운 장르의 무대 연출로 관객과 소통하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1부 무대에서는 (사)네오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슈트라우스 오페레타 '박쥐' 서곡을 시작으로 박영규와 헤븐 싱어즈, 그리고 소프라노 박은주, 왕기현이 특별 출연해 구노 오페라

'로미오와 줄리엣' 중 '아 꿈 속에 살고 싶어라', 세계 명곡 메들리 '라 비앙 로즈, 아마폴라, 그라나다', 도니제티 오페라 '샤무니의 린다' 중 '내 마음의 빛', 오페라 '사랑의 묘약' 중 '남 몰래 흘리는 눈물',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중 '내가 바라는 모든 것' 등을 들려준다. 2부에서는 엔리코 모리코네 '넬라 판타지아', 뮤지컬 '마이 페어 레이디' 중 '밤새 춤출 수 있었는데',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중 '지금 이 순간', 동요 '과수원길', 가요 '돌아와요 부산항에', 팝송 'My Way' 등 우리 귀에 친숙한 곡으로 관객과 만난다.

Preview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윤학원코랄 '아! 대한민국'

지휘 윤학원(左), 노래 윤학원코랄(右)



한국합창의 고품격화, 대중화를 이끌어온 '합창계의 대부' 윤학원이 이끄는 윤학원코랄이 6월 25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부산시민들과 만난다.

6.25(토) 오후 5:00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2만원, A석 1만원, A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부산문화회관
607-6066, 3100

지난 2004년 2월, 윤학원 교수가 25년간 후학을 가르쳐온 중앙대학교 음악대학을 명예 은퇴하면서 최고의 합창음악을 들려주고자 창단한 윤학원코랄은 2007년 5월 극동방송사와 함께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자 '극동방송 윤학원코랄'로 새롭게 발걸음을 내딛었다. 윤학원코랄은 엄격한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전공자와 실력있는 아마추어 연주자들이 지휘자 윤학원의 섬세하면서도 철두철미한 지도와 열정으로 최고의 소리를 만들어가고 있다. 특히 정제된 모습과 완벽한 자음의 일치를 통해 울려퍼지는 '윤학원코랄'만의 독특한 톤 컬러는 르네상스, 마드리갈에서 현대음악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레퍼토리를 소화해내고 있다.

매년 국내외 초청연주회와 교회순회연주를 갖고 있는 윤학원코랄은 2007년 6월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개최된 제3회 교회합창음악 심포지움, 2010년 제10회 대만국제합창제, 2011년 인도네시아 반둥 합창심포지움 등 해외무대에서 많은 찬사를 받았으며, 엔니오 모리코네 내한연주, 안드레아 보첼리 내한연주 등 협연무대를 성황리에 가진 바 있다. 특히 지난 2014년 8월 미국 LAKMA 초청으로 LA 월트디즈니콘서트홀과 라스베이거스 지역에서 성공리에 연주를 마친 윤학원코랄은 오는 8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LA 월트디즈니콘서트홀에서 초청연주회를 가질 예정이다.

합창을 국민 예술로 정착시키고, 한국합창의 위대함을 세계에 널리 알린 윤학원 예술감독 겸 지휘자는 연세대학교 작곡과 졸업, University of Lowell 대학원 수료, 미국 Midwest University에서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했으며, 지난 40여 년 동안 월트비전선명회합창단, 대우합창단, 서울레이디스싱어즈, 인천시립합창단을 통해 한국합창의 발전에 힘써왔다. 현재는 한국의 젊은 작곡가들을 발굴해 새롭고 발전적인 한국합창을 창작, 이를 세계에 알려 합창 한류를 주도하고 있다. 천부적인 음악적 감각과 열정, 시대를 직관하는 통찰력으로 '아시아의 Eric

Ericson'이라 불리는 윤학원은 현재 한국합창 지휘자아카데미 원장, CTS Project Choir 지휘자, CTS 소년소녀합창단 단장, 중앙대학교 음악대학 명예교수, 인천시립합창단 명예예술감독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반딧불 Mass'라는 부제가 붙어 있듯 마치 밤하늘의 아름다움 속에 함께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박지훈 작곡 'MISSA BREVIS'를 시작으로 우리 귀에 친숙한 클래식과 영화음악을 재미있는 메들리로 엮은 오병희 작, 편곡의 'Go! Classic', 'Go! Cinema', 그리고 합창곡의 진수를 맛볼 수 있는 무반주 한국합창을 들려준다. 마지막 무대는 200여 명이 함께하는 연합합창으로, 태극기의 4괘를 의미하는 '건·곤·감·리' 4괘장에 담긴 이상을 대한민국 번영을 위해 이미지화한 우효원 작곡 '아! 대한민국'으로 깊은 감동을 전한다.

(*위 프로그램은 사전공지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Preview

부산시립합창단 제162회 정기연주회 G.포레 '레퀴엠' & C.구노 '장엄미사'

지휘 전상철



매년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미사와 레퀴엠 음악으로 추모의 마음을 전해온 부산시립합창단이 올해는 G.포레의 '레퀴엠'과 C.구노의 '장엄미사'로 호국선열의 넋을 기리는 마음을 담아 영혼의 울림을 들려준다.

소프라노 왕기현



부산시립합창단 수석지휘자 전상철이 지휘하고 부산시립 교향악단, 소프라노 왕기현, 테너 양승엽, 바리톤 이규원, 오르가니스트 김미나가 함께하는 이번 무대는 특히 2016 한·불 수교 130주년을 맞아 프랑스의 대표적인 작곡가 포레와 구노의 작품으로 마련된다.

바리톤 이규원



흔히 '진혼곡'으로 불리는 '레퀴엠'은 '죽은 자의 영혼을 달래는 의식'에 쓰였던 곡이다. 모차르트의 레퀴엠이 비극적이고 장엄하다면 포레의 레퀴엠은 전체적으로 아름답고 평화로운 느낌을 자아낸다. '죽음의 자장가'라는 별칭처럼 죽음을 어두운 공포가 아닌 인간의 영원한 안식처처럼 부드럽고 아름답게 노래하면서 사랑하는 이를 잃은 이와 떠난 자의 마음을 동시에 어루만지면 위로한다.

테너 양승엽



구노의 대표적인 종교곡인 '장엄미사'는 여성 순교자 중 가장 유명한 '성 세실리아'를 위한 미사곡으로, 하늘의 놀라운 은총을 따스한 감수성으로 표현하고 있다. 전통적인 미사 통상문의 6악장으로 구성된 '장엄미사'는 텍스트에 대한 음악적 묘사가 매우 탁월하다.

오르가니스트 김미나



이번 무대에서 솔리스트로 관객과 만나는 소프라노 왕기현은 경성대학교 음악학과와 이태리 Piacenza G.Nicolini 국립음악원, 밀라노 시립음악원 보컬과 및 오페라과를 졸업하고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로 유럽 데뷔무대를 가진 후 오스트리아, 독일, 프랑스, 스위스, 영국, 덴마크 등 유럽을 중심으로 활동해왔다.

6.28(화) 오후 7:30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1만원, S석 7천원, A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607-3108, 3142

부산대학교 음악학과와 이태리 'L.PEROSI' 국립음악원, 'A.R.A.M' 아카데미아를 졸업한 테너 양승엽은 U.GIORDANO, Citta di Anglo, M.Batistini, Citta di Nettuno 등 다수 국제콩쿠르에서 입상한 바 있으며, 한양대학교 성악과 졸업 및 동대학원 성악과 수료, 미국 템플대학교 음악대학원 오페라과 졸업, AVA(Academy of Vocal Arts) 최고연주자과정을 수료한 바리톤 이규원은 미국 아나폴리스 국제콩쿠르 입상, 테네시 오페라 콩쿠르 1등, Pi Kappa Lambda Music Competition 1등, 이대웅 콩쿠르 1등 등 국제콩쿠르에서 입상한 바 있다.

고신대학교 교회음악학과와 독일 쾰른국립대학 예술연주자(오르간 및 쳄발로)를 졸업한 오르가니스트 김미나는 바로크 앙상블 'La Folia'의 쳄발리스트로 독일에서 활동한 바 있으며 현재 부산오르가노 소속 전문 오르간 연주자, 바로크 연주단체 Musica Supervia 리더로 활동하고 있다.

Preview

2016 제25회 부산무용제



부산지역 창작무용 활성화를 위해 매년 펼쳐지는 무용 예술가들의 축제이자 경연장인 부산무용제 2016년 무대가 7월 4일부터 3일간 부산문화회관에서 펼쳐진다.

7.4(월)-6(수) 오후7:30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일반 1만원, 학생 5천원
문의 부산무용협회
632-5116, busandance.com

창작무용 경연을 통해 지역의 전문 무용단체와 무용인들에게 발표의 기회를 제공해온 부산무용제는 10월에 열리는 전국무용제에 참가할 부산대표팀을 선발하는 부산의 중요한 무용행사 중 하나로 올해는 부산발레연구회와 현대무용단 '자유', 강미리 할 무용단, 이태상 프로젝트, 댄스 시어터 줄라이 등 4팀이 참가해 경연을 펼친다.

첫날인 7월 4일에는 부산발레연구회 홍상은이 안무한 'Pleasing Chaos(혼돈, 그 시작의 알림)'과 현대무용단 '자유' 문은아의 'Repetition of O(O의 반복)' 등 두 작품이 선보인다. 부산대학교 무용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동대학원 무용학과 석사과정에 있는 홍상은은 창작춤 'Pleasing Chaos(혼돈, 그 시작의 알림)'을 통해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어 더 불안하고 두렵지만 반면 그 이면에 기대와 설렘을 가질 수 있어 혼란스러운 미래를 춤사위로 그려낸다. 부산대학교 무용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을 수료한 후 현재 현대무용단 '자유' 정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문은아는 이번 작품에서 반복된 삶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일상의 공포를 다양한 움직임의 변화와 그 움직임에서 나타나는 공간과 시각적 변화를 통해 담아낸다.

둘째날인 5일에는 강미리 할 무용단 한지은이 내면적 고찰이라는 생소한 미지의 영역 앞에서 고정관념이 충돌하면서 오는 괴로움을 신명으로 승화하고 다시 추슬러 삶을 살아가는 힘을 낼 수 있게 해주는 곳의 의미를 안무한 '내 안으로'를 선보인다. 부산대학교 무용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을 수료한 한지은은 제25회 부산무용콩쿠르 일반부 한국작가부문 은상, 제18회 새물결 창작가전 최우수작품상, 여자연기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어지는 무대는 이태상 프로젝트 대표 및 예술감독으로 있는 이태상이 안무한 '컨템포러리 굿(contemporary GUT)'으로, 부산의 근현

대사를 담고 있는 '산만디'에 삶의 터전을 두고 살아온 부산 사람들의 질곡과 애환을 '굿'이라는 제의의 형식을 빌려와 입체적인 현대예술로 풀어낸다. 안무자 이태상은 현재 부산즉흥춤축제 운영위원, 신라대학교 디자인·예술대학 무용학과 교수로 있다. 둘째날 마지막 작품인 댄스 시어터 줄라이의 '금홍아 금홍아'에서는 시인 이상과 화가 구본웅, 그리고 기생 금홍의 이야기를 또 다른 작가 시각에서 구성, 시대적 상황과 금홍이의 관계를 다시 재해석한다. 안무자 박재현은 부산대학교 예술대학원을 수료하고 제3회 문화올림픽 세계델픽대회 무용부문 한국대표 및 한국인 최초 은메달 수상, 제18회 부산KBS 무용콩쿠르 전체대상, 제21회 전국무용제 은상 및 연기자상을 수상한 바 있다.

마지막날인 6일은 지난해 부산무용제 대상작품인 손영일무용단의 '잊혀질 권리'가 축하공연으로 무대에 오르며, 폐막축하공연으로 부산시민과 함께 어우러지는 '부산시민대동춤'이 선보인다.



2016년 제12회 부산국제무용제

춤추는 부산, 흥겨운 세상

The 12th Busan International Dance Festival 2016

6월 3일(금) - 7일(화) 해운대해변 특설무대,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등

무료(AK21 국제안무가육성공연 균일 1만원, 폐막식 및 축하공연 균일 2만원)

(사)부산국제무용제 조직위원회(868-7881~2, www.bidf.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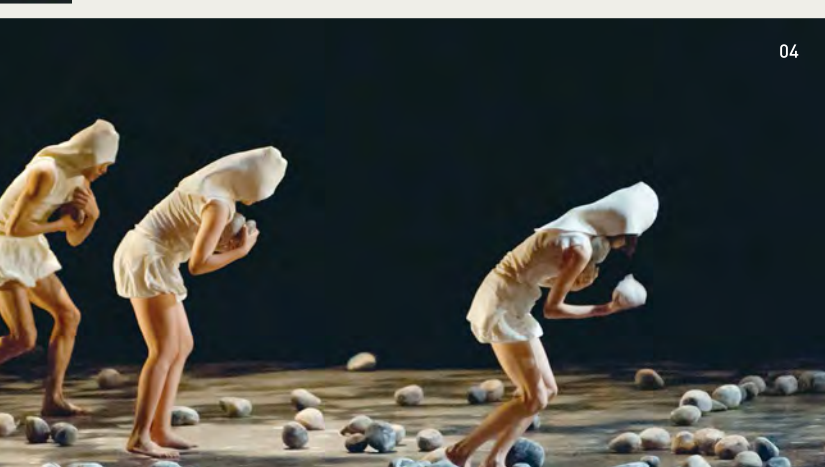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휴양지 페스티벌로 세계적인 명성을 쌓아가고 있는 2016 제12회 부산국제무용제(Busan International Dance Festival, BIDF)가 오는 6월 3일 그 화려한 막이 오른다.

지난 2005년 부산국제해변무용제로 첫 발을 내딛은 후 2008년 부산국제무용제로 명칭을 바꾸고 그동안 세계 다양한 장르의 무용작품을 선보여온 부산국제무용제는 2016년 올해 '춤추는 부산, 흥겨운 세상(Discover Busan, A delightful universe of dance)'이라는 주제로 국내 무용단체를 비롯해 덴마크, 미국, 불가리아, 스페인, 싱가포르, 아르헨티나, 인도, 일본, 중국, 프랑스 등 11개국 57개 무용단이 참가해 발레, 현대무용, 한국무용을 비롯한 탱고, 힙합, 민속무용 등 다양한 작품으로 시민과 관객들에게 춤의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선사한다. 특히 올해는 2014년 세월호 참사, 2015년 메르스 확산으로 축소되고 취소되었던 프로그램들을 다시 준비하고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새롭게 신설, 더욱 풍성한 무대를 선보인다.

우선 해외 초청단체로는 프랑스·스페인 Elephant in the Black Box를 비롯해 아르헨티나 Leandro Oliver&Laila Rezk, 중국 Ganzi national song and Dance Troupe, 일본 Dance Company Lasta, 프랑스 Le Guet-teur-Luc Petton&Cie, 인도 Nad-Roop, 덴마크 Mute Comp. Physical Theatre, 미국 Body Traffic, 스페인 Cobosmika Company SL, 불가리아 Atom Theater, 싱가포르 Odyssey Dance Theatre Ltd 등이 이번 무대를 위해 부산을 찾는다. 특히 올해 부산국제무용제 폐막작으로 선정된 'The 4 Seasons of Victoria'를 무대에 올리는 Elephant in the Black Box는 파리 오페라 발레단 솔로리스트였던 장 필립 듀리가 2012년에 만든 단체로 2014년 댄스 매거진이 선정한 '세계 베스트 5 무용단'에도 선정된 바 있다. 또한 국내 공식초청단체로는 한국현대무용계의 젊은 흐름을 이끌며 팬덤층을 형성하고 있는 LDP무용단을 비롯해 Arts communication21, (사)리움춤연구원 리움무용단, 전은선발레단, 박은화무용단, 썬무용단, 제스트, 틴무용단이 관객과 만난다. 세계무대에서 주역이 될 안무가를 발굴하는



02



04



03



05

AK(Art Korea)21 국제안무가육성공연은 예선과 본선을 거쳐 선정된 안무가 금배섭, 최영현, 이인규, 김규진의 경연무대로, 2015년 AK(Art Korea)21 국제안무가육성공연 수상자인 이동원의 축하공연과 더불어 젊은 안무가들의 열정적인 무대를 감상할 수 있다.

이밖에 공식초청공연이 펼쳐지는 해운대 해변특설무대에서는 매일 공연이 끝난 후 예술가들과 시민이 어울리며 즐기는 즉흥댄스시간을 통해 시민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특히 부산국제무용제가 국제교류 행사를 넘어 부산시민과 함께할 수 있는 축제로 성장하기 위해 올해 부터는 부산시 16개 구·군의 대표 단체들이 참여해 열띤 경연을 펼치는 '제1회 부산국제무용제 댄싱퍼레이드'를 펼친다. 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외초청팀인 불가리아 Atom Theater, 덴마크 Mute Comp. Physical Theatre 공연 관람 후 무용수와의 대화의 시간을 갖는 'BIDF 스쿨투어'도 6월 4일 영도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 01_ 프랑스 Le Gueigneur-Luc Petton&Cie_Oscar
- 02_ 미국 Body Traffic_O2JOY
- 03_ 덴마크 Mute Comp.Physical Theatre_Plumwine, Highway, Lemon
- 04_ 한국 박은화무용단_순간을 춤추다
- 05_ 스페인 Cobosmika Company SL_One To Another(OTA)

· 주요일정

개막식

6월 3일(금) 오후 7:00 해운대해변 특설무대

공식초청공연

6월 3일(금)~5일(일) 오후 7:30 해운대해변 특설무대

BIDF 스쿨투어

6월 4일(토) 오후 12:30 영도문화예술회관

춤아카데미

6월 4일(토) 오후 6:30 해운대해변 특설무대

AK21 국제안무가육성공연

6월 6일(월) 오후 7: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폐막식 및 폐막축하공연

6월 7일(화) 오후 7: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Review

부산신포니에타 창단 30주년 기념 정기연주회

박진홍 음악평론가



36

5월 2일 저녁 영화의 전당 하늘연극장에서는 부산신포니에타의 서른 번째 생일을 알리는 연주회가 있었다. 부산신포니에타는 1986년 부산대학교 김영희 교수가 지역의 음악인들을 중심으로 창단한 스트링 체임버로 지난 30년 동안 120회가 넘는 연주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실내악의 아름다움을 선사해 주었다.

이날 연주는 부산시립교향안단과 부산신포니에타 단원을 역임한 바이올리니스트 김지세 선생의 해설과 함께 했다. 그는 지난 30년 세월의 활동들을 반추하며 연주되는 작품에 대한 지식과 의미들을 담백하게 담아 관객들에게 전해 주었다.

이날 첫 곡은 바흐의 가장 대표적인 협주곡이라 할 수 있는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3번이었다. 매우 리드미컬하고 명쾌한 연주로 기분 좋게 시작하였다. 눈을 감고 있다면 상쾌한 봄바람이 불어 귓가를 맴도는 상상을 하게 되는 유쾌한 연주였다.

두 번째 연주는 피아니스트 박종화 교수와 부산신포니에타의 멋진 하모니를 만날 수 있는 무대였다. 박종화는 어린 시절부터 두각을 드러낸 천재 피아니스트로 부조니 콩쿠르, 퀸 엘리자베스 피아노 콩쿠르 등 세계 여러 콩쿠르에서 입

상을 하였으며 33세의 젊은 나이에 서울대학교 음악학부 교수에 임용되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날 무대에서는 모차르트 전문가들이 그의 작품 중 가장 훌륭한 협주곡이라고 평가하는 피아노 협주곡 24번을 연주했다. 이 곡은 이전 협주곡과는 다른 음악적 구성과 더불어 보다 심오한 깊이를 가지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작품을 해석하고 표현하는 것이 더욱 어려운 작품이다. 박종화와 부산신포니에타는 고전적 스타일에 약간의 낭만성을 가미했다고 생각되는 무대를 선보였는데 명쾌함과 진지함, 유연함과 중후함 등을 동시에 느낄 수 있었다. 30년의 세월 동안 농익은 스트링 앙상블과 천재적인 피아니스트의 만남으로 근래 보기 드문 최고의 명연주가 아니었나 생각이 된다.

후반부 첫 곡이 연주되기 전, 창단 30주년을 맞이하여 작은 생일 케이크가 무대 위에 등장했다. 충분히 성대하게 축하 받고 기념해도 될 무대였는데 조촐하게 진행된 것이 다소 아쉬웠다. 이어서 하이드리히의 생일 축하 변주곡이 연주되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생일 축하곡인 'Happy birthday to you'의 주제를 14개의 변주로 만든 작품이다. 이 곡은 단순하고 귀에 익은 멜로디를 다양한 스타일의 음악으로 감상할 수

있는 즐거움이 있는 작품이다. 이날은 창단 30주년이라는 의미와 맞닿아 더욱 의미가 있었고, 강렬함보다는 부드러움과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연주였다.

이어서 홀스트의 세인트 폴 모음곡 중 지그가 연주되었다. 이 곡은 홀스트가 근무했던 세인트 폴 여학교의 학생들을 위해 작곡한 작품 중 가장 널리 알려진 작품이다. 빠른 춤곡인 지그는 대단히 움직임이 많고 다이내믹하게 화려하게 변화하는 것이 특징인데 안정감 있게 춤을 추며 흐르듯 생명력이 느껴지는 연주를 보여 주었다. 마지막 곡으로 차이코프스키의 플로렌스의 추억이 연주되었다. 초반부터 긴장감 넘치면서도 역동적인 부분이 열정적으로 연주되었다. 흐트러짐 없이 부드러움과 격렬함 사이를 오가는 연주가 대단히 인상적이었다.

한 단체가 창단하여 10년을 이어 가기도 쉽지 않은데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애정과 열정을 가지고 관객들을 만나온 김영희 교수와 부산신포니에타의 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이제 또 다시 30년이 될 수 있는 길을 찾을 때가 아닌가 생각된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실내악의 향연을 선사해 주기를 기대해 본다.

Review

김민송 개인전 망각의 정원

2016.5.10(화)~5.29(일) 이듬갤러리

박미경 화가



김민송의 작품은 꿈을 꾸듯 몽환적이며 화면 가득 풍부한 색채로 사람들의 눈을 현혹 시킨다. 일상생활에서 끝이 없는 경쟁과 이로 인한 우울한 마음을 격고 있는 현대인들에게는 꿈과 현실이 뒤섞인 작은 신화 앞에서 뜻밖의 경험을 하게 된다.

고운색이 하나 둘 캔버스 위에 내려 앉아 연등 같은 식물이 되고 이름 모를 꽃이 되고 수많은 별들을 만들어 낸다. 이들은 이내 빛을 더하고 생명을 불어 넣어 마치 그림 속에 내가 함께 있는 듯 착각을 일으킨다. 작품 속 색채들의 묘한 어울림이 완성되는 풍경화에는 감상자 자신이 들어 있다. 작가의 이야기는 곧 감상하는 이들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이야기는 지난 여행지의 추억일 수도 있고 앞으로 만들어갈 기억이 될 수도 있다. 저마다의 이야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그림으로 완성된다. 우리는 이러한 과정에서 위로를 받고 위안을 얻는다. 작가의 색채감성은 바쁜 일상에 지친 이들에게는 심포로, 아픔을 겪은 이들에게는 치료제로서 삶의 의미로 다가가 힐링할 수 있게 하고 인간의 잠재의식 속의 자아를 발견할 수 있게 한다. 각박한 세상의 현대인들에게는 잠시나마 풍부한 색채를 통하

여 감성이 회복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김민송은 작가 노트에서 “저녁 깊은 밤의 꿈결인 듯 몽환적인 모습들, 움직이는 듯 멈추어 서 있고 환상과 일상이 교묘하게 교차된 공간, 오브제에서 나오는 아스라한 빛의 느낌으로 기억의 순간들을 표현하고 싶다. 일상 속에서 조우하는 사물들에 대한 감상으로부터 시작된 작업,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생활 속에서 모든 존재의 독특한 가치들이 새로운 관심으로 떠오른다. 멈추어져 있거나 흘러가버린 혹은 흘러오고 있는 시간의 그 순간들”이라고 했다.

김민송의 작품은 또 다른 하나의 소우주 같다. 형형색색의 식물들과 그와 대비되는 어두운 사막, 그리고 칠흑 같은 하늘에 무수히 박혀있는 별들은 그녀가 직접 사막에서 경험한 풍경들을 그린 것이다. 우리 눈에는 익숙지 않은 연등처럼 생긴 커다란 식물은 특별히 빛을 품은 듯 그라데이션 기법으로 표현했다. 연등을 겹겹이 쌓은 것 같은 식물들은 저마다의 소원과 소망을 담은 염원의 등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는 힐링의 소임을 다하는 것 같다.

제5회 부산사람 이태석 기념음악회 가곡과 아리아의 밤

일 시 | 6월 1일 수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초대(초대권 소지자에 한함)
문 의 | (사)부산사람이태석기념사업회
637-0125



‘한국의 슈바이처’라 불리는
故 이태석 신부의 고귀한 정
신을 기리고 나눔문화의 활
성화를 위해 마련하는 제5
회 부산사람 이태석 기념음
악회.
지휘자 오충근이 이끄는 부
산심포니오케스트라가 연주
하고 소프라노 김현애, 신민
원, 메조소프라노 성미진, 테너 조윤환, 바리톤 박
대용이 협연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故 이태석 신부
가 작곡한 ‘오케스트라와 합창을 위한 묵상(2016)’
을 비롯해 우리 귀에 친숙한 가곡과 오페라 아리아
를 들려준다.

- 예술감독, 지휘/오충근
- 연주/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BSO)
- 협연/소프라노 김현애, 신민원, 메조소프라노
성미진, 테너 조윤환, 바리톤 박대용

가족뮤지컬 ‘정글북’

일 시 | 6월 1일 수요일 오전 10:15, 11:20 소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단체 예매시 6천원)
문 의 | 극단 심인 017-437-3639



영화, 애니메이션으로 제작
되어 많은 사랑을 받은 영
국작가 키플링의 동명소설
을 가족뮤지컬로 제작한
‘정글북’.

정글의 천방지축 모글리, 그
런 모글리를 항상 보호하며
아껴주는 곰과 인간들에게
부모를 잃은 뒤부터 인과
인간일 수 밖에 없는 모글리

사이에서 갈등을 겪는 호랑이, 그리고 정글의 골치
덩어리 하이에나, 곰과 호랑이는 호시탐탐 모글리를
잡아먹으려는 하이에나로부터 모글리를 지키려 하
는데...

모글리와 동물친구와의 우정을 통해 친구와의 우
정, 가족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정글북’은 정글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입체적인 무대와 동물 캐릭터
의 이미지를 강조한 화려한 분장, 격조높은 라이브
연주로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닥터스 심포닉밴드 제15회 정기연주회

일 시 | 6월 2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총무 이국희 010-9458-9258



지난 1999년 부산, 경남지
역의 의사, 치과의사들이
주축이 되어 결성된 닥터스
심포닉밴드의 15번째 정기
연주회.

바쁜 일상에서도 꾸준히 음
악적 실력을 쌓아온 닥터스
심포닉밴드는 이번 무대
에서 클래식에서부터 영화음
악, 팝송, 가요 등 우리 귀에

친숙한 곡들을 관악 심포닉밴드라는 독특한 편성으
로 들려준다.

프로그램

The Final Countdown(Europe),
Festivo(Václav Nelhybel), Don't Let Me
Be Misunderstood(영화 ‘놈놈놈’ OST),
Jungle Fantasy(Naohiro Iwai), Dreamed A
Dream(뮤지컬 ‘레미제라블’ OST) 등 수록

- 지휘/정흥기
- 트럼펫 솔로/주현
- 특별출연/Hak Enter crew

한국창작합창21 제11회 정기작품발표회 음악에 길을 묻다 VII

일 시 | 6월 2일 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김영도 010-8519-9033



합창음악의 연구와 창작, 발
표를 통해 대중과 함께하는
창작합창 문화의 발전을 위
해 노력해온 창작합창21의
11번째 정기작품 발표회.
작곡가 권태우, 김은진, 김
종태, 배심행, 안혜정, 이옥
영, 임록, 임지연, 정혜란,
진소영, 황장수가 작곡한 혼
성합창곡, 여성합창곡을 부

산시립합창단 연주로 들려준다.

프로그램

- 안혜정/심자가, 그 사랑의 흔적
- 이옥영/주 여호와를 찬양하라(시편 150편)
- 김은진/우리가 어느 별에서(정호승 시)
- 임록/거기 너 있었는가
- 권태우/비단 모란(김영근 시)
- 김종태/어머니의 바다(신익교 시) 등
- 지휘/전상철
- 피아노/이승윤, 이경미
- 합창/부산시립합창단

황윤희의態

일 시 | 6월 2일 목요일 오후 7:30 소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황윤희 010-2620-8251



부산시립무용단 단원을 역
임하고 현재 (사)무궁화에
술원 부이사장, 김해문화의
전당 강사, 한국체육철학회
이사 및 논문심사위원, 세
계 그랑프리 무용경연대회
심사위원으로 있는 춤꾼 황
윤희의 무대.

황윤희는 제37회 전국무
용·국악대회 1등상, 제11
회 홍성가무악 전국국악대회 명인부 대상, 제65회
진주개천예술제 한국무용부문 대상, 제38회 전국무
용예술제 특장부 국회의장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프로그램

- 신칼대신지전무(황윤희), 임이조류 한량무(김태
호), 승무(황윤희), 장고춤(장경화, 장윤미), 최종
실류 소고춤(허태성), 살풀이(황윤희)
- 게스트/공정희(불매 장단소리연구소 대표), 장경
화(부산민속보존협회 동래고무 이수자),
김태호(중요무형문화재 진주검무, 가산
오광대 이수자), 장윤미(장선희무용단 출
터 단원), 허태성(부산시립무용단 단원)

전은지 플루트 클래스 연주회

일 시 | 6월 3일 금요일 오후 7:00 소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전은지 010-5327-6025



오스트리아 Burgenland
주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
악기교육과를 수석졸업하고
현재 Project Ensemble
Flute'z 리더로 활동하며 동
의대학교, 신라대학교, 부
산예술 중·고등학교 외래교
수로 후진양성에도 힘쓰고
있는 플루티스트 전은지와
그의 제자들이 마련하는 클

래스 연주회.

- 출연/전은지, 양나경(동래초 2학년), 한지민(교대
부속초 4학년), 박보미(두실초 5학년), 김은성
(사직초 6학년), 최윤서(연지초 6학년), 김찬미
(남산고 1학년), 구은빈(부산예고 2학년),
홍미리(신라대 1학년), 김혜민(신라대 1학년),
김성민(신라대 2학년), 황솔이(신라대 2학년),
오은지(울산대 3학년), 오영은(동의대 2학년),
정정우(부산예고 3학년), 김지민(동의대 4학년)

2016년 제12회 부산국제무용제 춤추는 부산, 흥겨운 세상

일 시 | 6월 3일(금)~7일(화) 해운대해변 특설무대,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등
입장료 | 무료(AK21국제안무가육성공연 균일 1만원, 폐막식 및 축하공연 균일 2만원)
문 의 | (사)부산국제무용제 조직위원회 (868-7881~2, www.bidf.kr)



초여름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휴양지 페스티벌로 세계적인 명성을 쌓아가고 있는 2016 제12회 부산국제무용제(Busan International Dance Festival, BIDF). 지난 2005년 부산국제해변무용제로 첫 발을 내딛은 후 2008년 부산국제무용제로 명칭을 바꾸고 그동안

세계 다양한 장르의 무용작품을 선보여온 부산국제무용제는 2016년 올해 '춤추는 부산, 흥겨운 세상(Discover Busan, A delightful universe of dance)'이라는 주제로 시민과 관객들에게 춤의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선사한다.

주요 일정

개막식 및 공식초청공연

3일(금) 오후 7:00 해운대해변 특설무대



한국 Arts communication21 '춘향-결혼식 장면' 아르헨티나 Leandro Oliver&Laila Rezk 'Argentina Tango' 중국 Ganzhi national song and Dance Troupe 'Kanba Ren' 일본 Dance Company Lasta 'Nightmare' 프랑스 Le Guetteur-Luc Petton&Cie 'Oscar' 인도 Nad-Roop 'Parampara ke Padachinha-전통의 발자취' 덴마크 Mute Comp.Physical Theatre 'Plumwine, Highway, Lemon' 중국 Ganzhi national song and Dance Troupe 'Zhenda Guozhuang' 한국 LDP무용단 'MAUM'

공식초청공연

4일(토) 오후 7:30 해운대해변 특설무대

한국 (사)리움춤 연구원 리움무용단 '리움 진도북춤' 프랑스 Le Guetteur-Luc Petton&Cie 'Oscar' 미국 Body Traffic 'O2JOY' 일본 Tokyo City Ballet 'Without Words' 중국 Ganzhi national song and Dance

Troupe 'Kanba Ren' 스페인 Cobosmika Company SL 'One To Another' 덴마크 Mute Comp.Physical Theatre 'Plumwine, Highway, Lemon' 한국 전은선 발레단 'Colors' 중국 Ganzhi national song and Dance Troupe 'Zhenda Guozhuang' 한국 Zest '자바위키즈'

공식초청공연

5일(일) 오후 7:30 해운대해변 특설무대



미국 Body Traffic 'O2JOY' 스페인 Cobosmika Company SL 'One To Another' 인도 Nad-Roop 'Parinati-결실' 불가리아 Atom Theater 'Helga-Underground' 한국 박은화 무용단 '순간을 춤추다' 프랑스·스페인 Elephant in the Black Box 'The 4 Seasons of Victoria' 한국 섬무용단 '드라마 음악과 함께하는 춤 여행' 싱가포르 Odyssey Dance Theatre Ltd 'Wow! Merlion' 한국 틸무용단 'Oh I see'

AK21 국제안무가육성공연

6월 6일(월) 오후 7: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세계무대에서 추억이 될 안무가를 발굴하는 AK(Arts Korea)21 국제안무가육성공연. 예선과 본선을 거쳐 선정된 안무가 김배선, 최영현, 이인규, 김규진의 경연무대로, 2015년 AK(Arts Korea)21 국제안무가육성공연 수상자인 이동원의 축하공연과 더불어 젊은 안무가들의 열정적인 무대를 감상할 수 있다.

작품

김배선/춤판 야무 '간 때문이야!' 최영현/노네임 소수 'WAVE' 이인규/인스테디오 무브먼트 '감성'感性'-Perfect Sense' 김규진/boogie company 'Movement' 이동원/아지드현대무용단 '인식하고 분리하기' [2015년 AK21 국제안무가육성공연 최우수단체 축하공연]

폐막식 및 폐막축하공연

'The 4 Seasons of Victoria'

6월 7일(화) 오후 7: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파리 오페라 발레단 솔로리스트였던 장 필립 듀리가 2012년에 만든 단체로 2014년 댄스 매거진이 선정한 세계 베스트 5 무용단'에도 선정된 바 있는 Elephant in the Black Box의 'The 4 Seasons of Victoria'.

2016 장범준 전국공연 '사랑에 빠져요'-부산

일 시 | 6월 4일 토요일 오후 6:00 대극장
입장료 | R석 9만 9천원, S석 8만 8천원
문 의 | (주)WSM 1566-5490



그룹 '버스커버스커'의 보컬에서 이제는 완전한 솔로가수로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장범준이 솔로 2집 앨범 발매를 기념해 마련한 전국 투어 부산무대. 목소리만 들어도 달달함이 넘치는 꿀 성대 장범준이 들려주는 가슴 따뜻한 무대로, '벚꽃엔딩', '처음엔 사랑이란

게', '여수밤바다' 등 '버스커 버스커'의 히트곡은 물론 '사랑에 빠졌조', '빛속으로', '그녀가 곁에 없다면' 등 솔로 2집에 수록된 신곡들을 최초 라이브 무대로 감상할 수 있다. 특히 이번 무대는 중독성 강한 멜로디가 가득한 주옥같은 히트곡 속에 장범준 특유의 수더분한 입담이 곁들여져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히 즐길 수 있다.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국립발레단 해설이 있는 발레 돈키호테Don Quixote

일 시 | 6월 6일 월요일 오후 5:00 대극장
입장료 | VIP 5만원,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 부산문화회관 607-6066, 3100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국립발레단 해설이 있는 발레 '돈키호테'. 경쾌한 음악과 코믹한 스토리가 어우러진 발레 '돈키호테'는 스페인의 정취가 가득 담긴 붉은색의 화려한 의상과 어우러지는 투우사의 춤, 플라멩코 춤을 비롯해 흥겨운 탬버린과 캐스터네츠를 이용한 현란한 춤 등 다양한 볼거리가 가득해 발레 초보자들은 물론 어린이들도 쉽게 이해하고 즐길 수 있다.

- 예술감독/강수진
- 안무/마리우스 프티파, 알렉산드르 고르스키 (재안무)
- 음악/루트비히 민구스

제16회 소프라노 박현정 독창회 해설과 함께하는 오페라 아리아의 밤

일 시 | 6월 8일 수요일 오후 8:0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 부산문화 1600-1803



신라대학교 음악과와 효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이태리 밀라노 음악원, 토스카니아 아카데미 까를로 베르곤지아 아카데미를 졸업하고 현재 부산 성악아카데미 회원으로 있는 소프라노 박현정 독창회.

한국성악콩쿠르 최우수상, Mascagni 국제성악콩쿠르 우등 등 다수 콩쿠르에서 입상한 바 있는 박현정은 독창회를 비롯해 토스카니 오케스트라, KBS교향악단, 부산시립교향악단, 대전시립교향악단, 울산시립교향악단, 창원시립교향악단, 국립오케스트라과의 협연무대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으며 오페라 주역으로도 활동해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우리 귀에 친숙한 주요 오페라 아리아를 상세한 해설과 함께 감상할 수 있다.

- 피아노/박미은
- 해설/장진규
- 특별출연/칸타빌레 남성중창단

김성희, 장효진 피아노 듀오 리사이틀

일 시 | 6월 9일 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의 | 김성희 010-4844-7469
장효진 010-4578-2351



경성대학교 음악학과와 독일 도르트문트 국립음대, 드레스덴 국립음대를 졸업한 피아니스트 김성희와 부산대학교 음악학과와 독일 데트폴트 국립음대, 인제대학교 대학원 음악치료학 석사과정을 졸업한 피아니스트 장효진의 듀오 무대.

김성희는 그동안 국내외 4차례 독주회를 비롯 피아노연주자클럽, 경성피아니스트, 듀오협회 정기연주회, 부산반주연구회 등 다수 실내악 무대 및 독주회 반주자로 활동해왔으며, 장효진은 국내외 6차례 독주회 및 부산듀오협회, 독우회, 부산국제음악제 프레콘서트 등 다수 무대에 서왔다.

[프로그램]

모차르트/두대의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K.448
보르딘/‘이고르공’ 중 ‘폴로베츠인의 춤’
거쉬인/2대의 피아노를 위한 포기와 베스 환상곡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20회 정기연주회 에로이카 EROICA

일 시 | 6월 10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2만원, A석 1만 5천원, A석 1만원,
B석 5천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607-3106, 3145



뛰어난 교향악 연주력과 오페라 작품의 명쾌한 해석으로 전 세계 오페라극장에서 환영받고 있는 독일 지휘자 콘스탄틴 트링크스가 객원지휘하고 현재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악장, 파리 국립고등음악원 교수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스테틀린 루세브가 협연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20회 정기연주회 ‘에로이카 EROICA’.

[프로그램]

글린카/‘루슬란과 루드미라’ 서곡
차이코프스키/바이올린 협주곡
베토벤/교향곡 제3번 ‘영웅’
• 객원지휘/콘스탄틴 트링크스
• 협연/스테틀린 루세브(바이올린)

가족뮤지컬 ‘정글소년 모글리’

일 시 | 6월 10일 금요일 오전 10:10, 11:1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6천원
문의 | 극단 키즈샌프랜즈 02-6203-6593



어린이들에게 친숙한 명작 동화 ‘정글북’을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노래와 율동으로 각색한 가족뮤지컬 ‘정글소년 모글리’.

이미 영화,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되어 우리에게 익숙한 ‘정글북’을 화려한 난타퍼포먼스와 특수 제작된 애니메이션 영상으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정글소년 모글리’는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스토리와 아름답고 웅장한 음악, 배우들의 섬세한 연기로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리를 제공하는 ‘정글소년 모글리’는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스토리와 아름답고 웅장한 음악, 배우들의 섬세한 연기로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벨라보체합창단 제3회 정기연주회

일 시 | 6월 11일 토요일 오후 7:00 대극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벨라보체합창단 010-5500-3086



부산에서 활동하는 아마추어 혼성합창단인 벨라보체합창단의 세 번째 정기연주회. 이태리어로 ‘아름다운 목소리’를 뜻하는 벨라보체합창단은 2014년 1월 창단 이후 매주 한차례 모여 합창음악의 즐거움을 누려오고 있다. 지휘자 조현수가 지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빈국립음

대를 만장일치 최고점수로 졸업하고 오사카국제음악콩쿠르에서 2회 입상 및 특상을 수상한 바이올리니스트 김세준과 백상홍 호른4중주단이 게스트로 출연, 우리 귀에 친숙한 가곡과 가요, 오페라 아리아 등 다양한 연주곡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별, 못잊어, 고독, 귀천, 사랑 그놈, 사랑비, 서쪽 하늘, 오페라 ‘마술피리’ 중 ‘복수의 분노 마음에 불타고’(모차르트 곡) 등 수곡
• 지휘/조현수
• 반주/이현주
• 게스트/김세준(바이올린), 백상홍 호른4중주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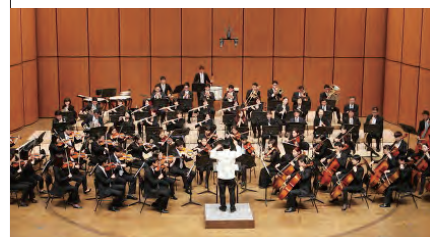
라온제나 심포니오케스트라 제8회 정기연주회

일 시 | 6월 11일 토요일 오후 6:00 중극장
입장료 | 무료
문의 | 라온제나 심포니오케스트라
010-9507-9090

악기 전공 연주자와 프로급 아마추어 연주자로 구성된 후 지난 2009년 새롭게 출범한 라온제나 심포니오케스트라의 8번째 정기연주회.

현재 60여명의 단원이 활동하고 있는 라온제나 심포니오케스트라는 그동안 정기연주회와 사랑나눔 연주회, 작은 음악회 등을 통해 음악사랑을 실천해왔다. 단체명인 ‘라온제나’는 순우리말로 ‘기쁜 나, 즐거운 우리’라는 뜻.

- 지휘/김태훈
- 플루트/황미리



신라시니어스카이어 창단연주회

일 시 | 6월 12일 일요일 오후 5:00 **중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신라시니어스카이어 010-5252-5008



시니어를 대상으로 단순한 여가선용 차원의 놀이와 재미위주의 교육이 아닌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신라시니어스카카데미 회원들로 구성된 신라시니어스카이어 창단연주회.

지난 2014년 5월 50여명의 회원들로 창단한 신라시니어스카이어는 매주 한차례 모여 합창연습을 통해 노래실력을 쌓으며 즐거운 합창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우리 귀에 친숙한 대중적인 곡들로 관객들과 만난다.

- 단창/이중하
- 지휘/이은정
- 피아노/남현숙
- 오케스트라 편곡/이상준
- 소프라노/이영선
- 해금/조위현

국악밴드 모락의 '엄마의 콘서트'

일 시 | 6월 12일 일요일 오후 4:00 **소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청작예술공동체 '아츠미르' 010-2396-0540

포기하거나 접어두었던 꿈을 무대 위에서 당당히 연주함으로써 음악을 통해 여성으로서 깨닫고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과제, 남성의 역할, 남녀평등의 문제, 일과 가정의 양립 등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결성된 국악밴드 '모락'의 특별한 무대. 가족에 대한 사랑과 앞으로 무대 위에서 펼쳐질 엄마들의 꿈을 응원하는 위촉 창작곡으로 우리 시대 엄마들에게 위안과 감동, 희망의 선율을 들려준다.

- 연출/전상배(공연예술장작소 어니언킹 대표)
- 기획/서현인(창작예술공동체 아츠미르 대표)
- 연주/이경미(가야금), 장은주(대금), 서현인(해금), 박순자(피리), 정주아(대피리), 조은경(소금), 차민영(건반), 김민호(타악), 우리라(첼로), 이하나(노래)



부산하모니합창단 제13회 정기 연주회

일 시 | 6월 18일 토요일 오후 7:00 **대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부산하모니합창단
 610-1304, 010-5663-3347



부산의 대표적인 민간합창단으로 자리매김한 부산하모니합창단의 정기연주회. 지난 2003년 창단 후 합창음악 장르의 다양한 시도와 국내외 합창대회 등에 입상하며 실력을 인정받은 부산하모니합창단은 2014년 미국 DCINY의 초청으로 뉴욕 링컨센터에서 5개국과 합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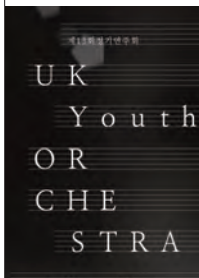
무대를 가졌으며 올해 7월에는 NOVINCANTO 합창단 초청으로 이탈리아 연주가 예정되어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작곡공모를 통해 선정된 작곡가 김상아(경성대학교), 손한묵(부산대학교), 김은진(동아대학교)의 창작합창곡과 예술합창의 진수라고 할 수 있는 르네상스 시대의 무반주 다성합창, 우리 귀에 친숙한 팝과 가요 등 다양한 레퍼토리를 들려준다.

- 지휘/김강규
- 피아노/김민선
- 특별연주/Laura Andrew(플루티스트)
- 안무지도/홍기태

유나이티드 코리안 유소오케스트라 제13회 정기연주회

일 시 | 6월 18일 토요일 오후 5:0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5천원
 문 의 | 양보람 010-3863-3087



부산, 경남에 거주하는 초, 중, 고등학생들로 구성된 자선 오케스트라 '유나이티드 코리안 유소오케스트라(UKYO)'의 제13회 정기연주회.

전문 지휘자와 각 파트별 강사들의 지도 아래 매주 토요일 기량을 연마해온 UKYO는 매년 2~3회 정기연주회와 다수의 찾아가는 음악회 등 각종 연주회를 개최하여 수익금 전액을 가정형편이 어려운 난치병 어린이들에게 전달해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지휘자 전영수가 지휘하고 플루티스트 장극태, 하윤서의 협연으로 우리 귀에 친숙한 클래식 명곡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비제/카르멘 모음곡
 폰키엘리/시간의 춤
 그리그/페르 키타트 중 '산 속 마왕의 궁전에서'
 스트라빈스키/봄의 제전 등

사제 간의 듀오 음악여행 II 선우난영&김현정 듀오 리사이틀

일 시 | 6월 19일 일요일 오후 5:0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 의 | 아트뱅크코레아 442-1941



연주자이자 교육자로 20여년간 변함없는 마음으로 많은 제자를 양성해 온 안양대학교 선우난영 교수와 그의 제자 피아니스트 김현정이 함께하는 '사제 간의 음악 여행' 두 번째 무대.

스승인 선우난영 교수는 서울대학교 및 동대학원, 프랑스 파리 국립음악원을 졸업하고 이태리 아테네오 음악협회 초청 독주회 등 수차례 독주회와 이태리 G. Verdi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및 국내 유명 오케스트라와 협연무대를 가져왔다. 안양대학교 음악대학과 러시아 하바로브스크 국립예술대학 석사과정 수석 졸업, 이탈리아 Roma Arena Academy Diploma를 취득한 제자 김현정은 한국일보 콩쿠르 동상, 한국피아노노우협회 콩쿠르 3위에 입상한 바 있으며 현재 명문화, 한국피아노노우협회 회원으로 다양한 무대에 서고 있다. 스승과 제자가 함께 엮어내는 아름다운 하모니로 관객들이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한다.

2016 Art Festival 예술제 제29회 무용정기공연

일 시 | 6월 20일 월요일 오후 7:00 **대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부산예술고등학교 514-1229, 1230

부산예술고등학교에 재학중인 무용학도들의 꿈과 열정을 담은 무용 정기공연 무대.

부산예술고등학교 무용부장 이은영의 총 안무, 연출로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등 그동안의 수업을 되돌아보는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

[프로그램]

우리춤 장단에 물들다(연출 및 채구성/이은영)/부채춤(김백봉류), 사풍정감(이매방류), 장고춤(김백봉류), 태평무(강선영류), 입춤(최현류), 동래학춤, 장단 그 신명

be connected(안무/송미란)

해적(Le Corsaire) 중에서(재안무/이화성)



단비울남성앙상블 창단 17주년 기념 제12회 정기연주회

이음(異音), 공감(共感)

일 시 | 6월 20일 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단비울남성앙상블 010-2418-6468

...

지난 1999년 다양한 직업의 성악 애호가들로 창단한 단비울남성앙상블의 창단 17주년을 기념하는 제12회 정기연주회 '이음(異音), 공감(共感)'.

남성 특유의 탄탄하고 풍부하고 안정감 있는 화음으로 다양한 무대에서 관객과 만나온 단비울남성앙상블은 이번 무대에서 서정적인 우리 가곡과 성가곡, 그리고 뮤지컬 넘버, 영화OST, 가요 등 정겨운 합창무대와 기타 듀오의 맑고 아름다운 선율을 만날 수 있다.

- 지휘/강성철 • 피아노/권혜진
- 특별출연/기타 듀오 신건호, 윤병용, 드림 한정훈



부산원로교향악단 제9회 정기연주회

일 시 | 6월 21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부산원로교향악단 010-3074-0366

...



2008년 척박했던 부산지역의 클래식 음악발전을 위해 초석을 다져왔던 제1세대 음악인과 부산시립교향악단 퇴직단원 등 부산의 원로음악인들로 출발한 부산원로교향악단의 제9회 정기연주회.

지난 2011년 8월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 새로이 한

걸음을 내딛었던 부산원로교향악단은 앞으로 부산 클래식 음악 역사를 올바르게 정립하고 새로운 음악 세대들에게 전승시키고자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이번 무대에서는 상임지휘자 이웅희가 지휘하고 소프라노 임혜정, 테너 서훈하 협연으로 멘델스존의 '교향곡 제3번'을 시작으로 베버와 푸치니 등 다양한 곡을 들려준다.

- 지휘/이웅희
- 협연/소프라노 임혜정, 테너 서훈하

제12회 동의피아노소사이어티 정기연주회

일 시 | 6월 21일 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동의피아노소사이어티 010-2252-3010

...



부산에서 교육과 연주활동을 하는 동의대학교 음악과 졸업생, 대학원생들로 결성된 동의피아노소사이어티의 제12회 정기연주회.

동의피아노 소사이어티는 그동안 정통 피아노 음악과 다양한 장르의 피아노 음악을 연주, 발표하여 클래식 음악의 대중화와 아울러 대

중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프로그램

- 쇼팽/스케르초 제4번
- 라흐마니노프/소나타 제2번 작품 36
- 메시앙/프렐류드 제7, 8번
- 드보르작/슬라브무곡
- 뮌히하우젠/제자 등
- 연주/신진희, 김아영, 최진현, 백미정&전미정, 조은주&서주옥, 노귀혜&오서향, 서소리&박정난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박영규와 헤븐 싱어즈

일 시 | 6월 24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V석 7만원,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B석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부산문화회관 607-6065, 3100

...



테너 홍지형, 바리톤 강경원, 베이스 권영기 등 부산의 대표적인 남성 성악가 세 명으로 결성된 '헤븐 싱어즈'와 연기자로서 뿐만 아니라 뛰어난 노래 실력과 무대 장악력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탤런트 박영규와 함께하는 특별한 무대 '박영규와 헤븐 싱어즈'.

시민들에게 다양한 음악 감상의 즐거움을 선사하고 대중 스타와의 콜라보레이션 무대를 통해 클래식 음악 인구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무대에서는 유명 오페라 아리아로 마련되는 1부 무대에 이어 2부에서는 대중에게 친숙한 뮤지컬 명곡, 가요, 팝송 등을 들려준다.

- 특별출연/소프라노 박은주, 왕기현
- 연주/(사)네오필하모닉오케스트라
- 반주/하영하

소프라노 윤경연 귀국 독창회

일 시 | 6월 24일 금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윤경연 010-3150-7978

...



부산대학교를 졸업하고 이탈리아로 유학, 로마 산타체칠리아 국립음악원, 로마 아카데미아 성악 3년 전문사 과정 디플로마, 데포뮤직 성악 전문과정 1년 디플로마를 취득하고 로마 아카데미아 오페라 전문 연주과정 코스, 유럽 피아노 교수 음악협회 연주코스 등을 수

료한 소프라노 윤경연 귀국 독창회.

윤경연은 제6회 Festival Talenti nel Basso Lazio Concorso Internazionale 'Daniele Paris' Canto Lirico 특별상, 제18회 Concorso di Musica Edizione Europea 'Citta di Mercato S. Severino' Canto Lirico 1등상, 제7회 Rassegna Musicale 'I Giovani e L'Arte' Concorso Lirico 1등상(assoluto), 제18회 Concorso Internazionale 'V. Scaramuzza' Canto Lirico 1등상을 수상한 바 있다.

- 피아노/김예지
- 해설/김성민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윤학원코랄 '아! 대한민국'

일 시 | 6월 25일 토요일 오후 5:00 대극장

입장료 | R석 2만원, A석 1만원, A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 부산문화회관 607-6066, 3100

...



한국합창의 고품격화, 대중화를 이끌어온 '합창계의 대부' 윤학원이 이끄는 윤학원코랄의 특별한 무대 '아! 대한민국'.

지휘자 윤학원의 섬세하면서도 철두철미한 지도와 열정으로 최고의 소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윤학원코랄은 특히 정제된 모음과 완벽한

자음의 일치를 통해 울려 퍼지는 '윤학원코랄'만의 독특한 톤 컬러로 르네상스, 마드리갈에서 현대음악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레퍼토리를 소화해내고 있다.

프로그램

- 박지훈/MISSA BREVIS
- 오병희/Go! Classic, Go! Cinema
- 우효원/아! 대한민국 등 수곡
- (※위 프로그램은 사전 공지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임지휘자 및 단장/윤학원
- 반주/김지혜

유나이티드 코리안 오케스트라 특별연주회 '협주곡의 밤'

일 시 | 6월 25일 토요일 오후 5:00 **중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양보람 010-3863-3087

...
지난 2006년 소아암, 심장병 등 난치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어린이 환자들을 돕기 위해 설립된 유나이티드 코리안 오케스트라(UKO:United Korean Orchestra)가 마련하는 '협주곡의 밤'. 부산에서 최초로 설립된 민간 자선 오케스트라인 유나이티드 코리안 오케스트라는 그동안 연주회 수익금 전액을 기부함으로써 난치병 어린이를 위한 사랑나눔을 실천해오고 있다.
지휘자 이동신이 지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차세대 연주자들과 함께 감미로운 사랑의 선율을 들려준다.
• 지휘/이동신



나르시스 벨리댄스 국제 페스티벌

일 시 | 6월 26일 일요일 오후 7:00 **소극장**
입장료 | 균일 2만 5천원
문 의 | 나르시스 벨리댄스
468-0229, 010-9069-0229

...
나르시스 벨리댄스 1주년을 기념해 세계벨리댄스대회 우승자 초청 워크샵 및 갈라쇼로 마련되는 나르시스 벨리댄스 국제 페스티벌.
실용무용으로서의 벨리댄스를 실현하고 무대예술로서의 특별한 경험과 타 지역 벨리댄스와의 교류를 위해 마련한 이번 무대에서는 나르시스 벨리댄스 포헤란 대표를 비롯해 벨리댄서들이 출연, 화려하면서도 아름다운 벨리댄스의 세계로 안내한다.

[프로그램]

Sophia Kong(from Malaysia), Basic class, Mania class(street shabby), Narcisse Bellydance Troups(Iraqi) 등
• 솔로/박은희, 정진희, 노영우, 이소영, 포헤란



부산시립합창단 제162회 정기연주회 G.포레 '레퀴엠' & C.구노 '장엄 미사'

일 시 | 6월 28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1만원, S석 7천원, A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607-3108, 3142



매년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미사와 레퀴엠 음악으로 추모의 마음을 전해 온 부산시립합창단이 올해 G.포레의 '레퀴엠'과 C.구노의 '장엄미사'로 호국선열의 넋을 기리는 제162회 정기연주회.

부산시립합창단 수석지휘자 전상철이 지휘하고 부산시립교향악단, 소프라노 왕기현, 테너 양승엽, 바리톤 이규원, 오르가니스트 김미나가 함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죽음의 자장가'라는 별칭처럼 죽음을 어두운 공포가 아닌 인간의 영원한 안식처처럼 부드럽고 아름답게 노래하면서 사랑하는 이를 잃은 이와 떠난 자의 마음을 동시에 어루만지면 위로하는 포레의 '레퀴엠'과 여성 소프라노 중 가장 유명한 '성 세실리아'를 위한 미사곡으로, 하늘의 놀라운 은총을 따스한 감수성으로 표현한 구노 '장엄미사'를 들려준다.

부산메트로폴리탄팝스오케스트라 오페라를 읽어주는 남자 '갈라 콘서트'

일 시 | 6월 28일 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 의 | 부산메트로폴리탄팝스오케스트라
070-7727-0188, www.bmpo.co.kr



'오페라를 읽어주는 남자' 시리즈를 통해 아름다운 명작 오페라의 감동을 전해온 부산메트로폴리탄팝스오케스트라의 오페라를 읽어주는 남자시리즈 '갈라 콘서트'. 그동안 오페라 '카르멘'을 시작으로 '라보엠', '투란도트', '라 트라비아타' 등 세계 명작 오페라를 해설과 함께 연주,

호평받은 부산메트로폴리탄팝스오케스트라는 이번 무대에서 그동안 무대에 올렸던 오페라의 주요 아리아를 한데 모아 갈라콘서트 형식으로 보다 풍성한 무대를 선사한다.

- 지휘/윤상운
- 출연/소프라노 정혜리, 윤지영, 김시하
테너 장진규, 조요환, 바리톤 정승화
- 연주/부산메트로폴리탄팝스오케스트라

부산음악대축제II 시민대합창제

일 시 | 6월 29일 수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부산음악협회 634-1295

...
부산 시내 25개 아마추어합창단들이 참가하는 부산음악축제 두 번째 무대 '시민대합창제'. 음악이 좋아 모인 합창단원들의 아름다운 양상불 무대를 감상할 수 있는 이번 무대에서는 우리 귀에 친숙한 한국가곡을 풍성한 합창음악으로 들려준다.

[프로그램]

선구자, 고향 그리워, 보리밭, 내 맘의 강물, 동심초, 산유화, 산촌, 고향의 노래, 님이 오시는지, 남촌, 그리운 금강산, 가고파, 희망의 나라로 등

[참가팀]

해운대소리합창단, 해운대구립소년소녀합창단, 갈매합창단, 브라보아버지합창단, 해운대NH여성합창단, 부산코러스합창단, 부산콘서트콤파이어, 신라시니어합창단, 해운대마린콤파이어, 부산울산원음합창단, 센텀합창단, 금성하모니합창단, 부산다어울림합창단, 부산중구시니어합창단, CBS여성성가합창단, 경현해피콤파이어, 부산하모니합창단, 벨라보체합창단, 현대나르시어합창단, 민들레합창단, 정관여성햇빛합창단, 부산시의회사회합창단, 예그린코러스합창단, 부산여성합창단, 동백합창단

서울 부산 클라리넷 커넥션

일 시 | 6월 29일 수요일 오후 7:30 **소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최우선 010-3014-5774

...
부산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클라리넷티스트 황수빈, 최연주, 박관희, 최우선으로 결성된 주빌레 클라리넷 앙상블의 무대.
올해 2월 창단된 주빌레 클라리넷 앙상블은 불어로 '몹시 기쁘하다'라는 뜻으로, 누구든지 클라리넷 연주를 들으면 마음 속 깊은 곳까지 기쁨이 가득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붙인 이름이다.
이번 무대에서는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클라리넷티스트 이승권, 김건주와 함께 클래식에서부터 재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의 연주로 클라리넷만의 색다른 매력을 선사한다.



로드뮤지컬 '브레멘 음악대'

일 시 | 6월 30일 목요일 오전 10:15, 11:2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단체 예매시 5천원)

문 의 | 극단 남비곰비 02-882-9001

...



꿈을 찾아 여행을 떠나는 네 동물의 모험담이 익살맞은 캐릭터와 유쾌한 사건들로 꾸며지는 로드뮤지컬 '브레멘 음악대'.

그림형제의 동명의 동화를 각색한 '브레멘 음악대'는 나이가 많아 일을 못하는 감수성 풍부한 당나귀 바하와 이빨이 빠져 너구리에게도 맞고 다니는 사냥개 와우, 털이 빠지고 볼품없어져 주인에게 쫓겨난 고양이 로디, 일기예보를 매일같이 틀려 후라이드 치킨이 될 위기에 처한 암탉 송송 등 기구한 운명에 처한 네 마리 버려진 동물들이 사랑과 음악을 찾아 떠나는 모험담으로, 빠른 템포의 극적 구성과 동물들의 의인화를 통해 어린 이들에게 친근감있게 다가간다.

장경미 The 5th 독주회
초심으로 돌아가서

일 시 | 6월 30일 목요일 오후 7:30 소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학생, 단체 예매시 50% 할인)

문 의 | 장경미 010-6431-6440

...



부산대학교 국악과 및 동대학원 한국음악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전남대학교 대학원 국악과 가야금 전공 박사과정에 재학중인 장경미의 다섯 번째 독주회.

진주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을 역임하고 현재 중요무형문화재 구례향채줄풍류 이수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종묘제례악 전수자, 일파가야금합주단 악장, 퓨전국악팀 별마루, NEW, The 모리 리더로 활동중인 장경미는 제1회 대구국악대전 장원, 제6회 우륵가야금대회 금상, 제20회 가락문화제 최우수상 제38회 전국전통예술경연대회 최우수상, 제19회 울산 전국국악경연대회 최우수상 등 다수 콩쿠르에서 수상한 바 있다.

- 사회/이상인(탈런트)
- 거문고/김명희
- 바이올린/하은영
- 타악/윤승환, 정인성
- 가야금/김경현, 김태리, 심예린, 박하영, 이예빈, 조채린

토요상설무대

일 시 | 매주 토요일 오후 4:00 소극장

입장료 | 선착순 무료(7세 이하 어린이는 입장할 수 없습니다)

문 의 | 부산문화회관 607-6055

6월 4일 앙상블 아토 ART-O와 함께 하는
'여름 + 이야기'

부산에서 활동하는 청년 연주자들로 결성된 실내악단으로 소규모 실내악에서 벗어나 현악 8중주 편성으로 더욱 풍성한 울림과 다양한 무대를 선보이고 있는 앙상블 아토의 무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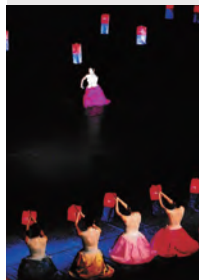
[프로그램]

조플린/엔테테이너(영화 '스팅' 삽입곡)
모리코네/가브리엘 오보에(영화 '미션' 삽입곡)
바버/현을 위한 아다지오
마스카니/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중 '인터메zzo'

드보르작/유모레스크

슈만/어린이정경' 중 '트로이메라이'

- 바이올린/손은혜, 류승연, 장아람
- 비올라/김가민
- 첼로/김기량, 오현진
- 특별출연/피아니스트 김은정

6월 11일 부산시립무용단 '드라마 음악과
함께하는 춤 여행(Dance journey
with drama music)'

영화, 가요, 민요 등 우리 귀에 친숙한 음악을 배경으로 우리춤의 아름다움과 서정성, 신명을 담아낸 부산시립무용단 '드라마와 함께하는 춤 여행'.

[프로그램]

판소리 '춘향가' 중 '사랑가'(출연/장래훈, 김주령, 황동하, 정진희)

드라마 '대장금' 중 '오나라'(출연/박상용, 최의옥, 김동숙, 오숙례)

민요 '창부타령'(출연/김공주, 이현정, 김경미, 전현우, 장재훈, 이도윤)

가요 '목포의 눈물'(출연/황동하, 정진희, 남도옥)

가요 '천년의 사랑'(출연/서정연, 이현숙, 장영진)

영화 '타이타닉' 중 'My heart will go on'(출연/권봉정, 이상원)

영화 '사랑과 영혼' 중 'Unchained Melody'(출연/남도옥, 전현우, 장재훈, 이도윤)

웃게하소서(민요 '장타령', 영화 'The war' 아리랑, 가요 '어쩌다 마주친 그대', 인도가요 'Tunak Tunak tun', 영화 '파리넬라' 중 헨델 '울게하소서')

• 출연/부산시립무용단 전 단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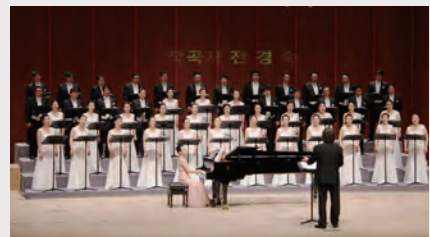
6월 18일 JEM 합창단

지난 2012년 6월 창단 후 정기연주회, 오페라 합창, 환우들을 위한 열린음악회, 오페라 읽어주는 남자 시리즈, 향사회 30주년 기념음악회 등 다양한 무대에 서온 JEM 합창단이 우리 귀에 친숙한 뮤지컬 넘버를 들려준다.

[프로그램]

뮤지컬 '렌트' 중 'Seasons of Love', 뮤지컬 '사운드 오브 뮤직' 중 '도레미송', '에델바이스',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중 'Think of me', 'All I ask of you',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중 '지금 이 순간', 뮤지컬 '마이 페어레이디' 중 'I could have a dance all night', 뮤지컬 '라이온킹' 중 'Circle of Life', 'Can you Feel the Love', 'Lion sleeps tonight', 뮤지컬 '레미제라블' 중 'One day more', 'Do you hear the people sing'

- 지휘/김재준
- 피아노/서형진

6월 25일 부산시립합창단 '내가 사랑하는
오페라(My Favorite Opera)'

우리 귀에 친숙한 오페라 아리아 명곡을 들려주는 부산시립합창단 '내가 사랑하는 오페라'.

[프로그램]

로시니/오페라 '세빌리아의 이발사' 중 '방금 들린 그대 음성'

모차르트/오페라 '마술피리' 중 '지옥의 복수심이 끓어오르고'

베르디/오페라 '리콜레토' 중 '여자의 마음'
베르디/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중 '축배의 노래'
베르디/오페라 '시몬 보카네그라' 중 '찢어질 것 처럼 아픈 영혼'

조르다노/오페라 '페도라' 중 '금지된 사랑'

현제명/오페라 '춘향전' 중 '동편 하늘이 밝아온다', '월매 아리아', '사랑의 이중창', '나는 이곳에서 제일 가는 사또님인데' 등

- 소프라노/염남이, 최선희, 권순유, 손사론, 박성의
- 알토/손미숙
- 테너/최준식, 김진영, 김주리, 김웅태, 최원갑
- 바리톤/최성규, 김태우, 구영금
- 피아노/이승윤, 이경미
- 찬조출연/부산시립교향악단 현악4중주

Music 음악

금정수요음악회

일 시 | 매주 수요일 오후 7:30(4일 공연없음)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금정문화회관 519-5662~3

...

1일 피아노조와 함께하는 'Delikat Tanzmusik'



피아니스트 이아영, 김혜린, 정경아가 들려주는 피아노 듀오무대.

이아영은 경원대학교와 독일 슈투트가르트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현재 부산예술고등학교, 부산교육대학교 외래교수로, 김혜린은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현재 부산예술중·고등학교, 부산교육대학교 강사로, 정경아는 동아대학교 피아노과와 독일 트로빙엔 국립음대, 아우구스부르크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부산교육대학교 외래교수, 동아대학교, 부산예술고등학교 강사로 후학양성에 힘쓰고 있다.

8월 제5회 러시아음악연구회 정기연주회 '러시아 풍경'

지난 2014년 창단 후 러시아 음악의 깊이있는 연구를 통해 다양한 레퍼토리의 발굴, 보급을 위해 힘써 오고 있는 부산러시아음악연구회의 무대.

- 소프라노/박미경, 서유희, 조희정, 노미숙
- 바리톤/안상철 • 베이스/기범
- 피아노/고영주, 김유진, 이수진

15일 피아니스트 박미은의 독일 연가곡 순례 첫번째 이야기 '멀리 있는 연인에게'



부산대학교와 독일 쾰른 국립음대, 뒤셀도르프 국립음대를 졸업한 박미은은 부산반주연구회 회장, 독일가곡연구회 부회장 역임하고 다양한 무대에서 활동해오고 있다.

[프로그램]

모차르트/그대의 마음은 진실하지요, 누가 내 연인의 괴로움을 알고 있오라, 가리라, 그러나 어디로?, 위대한 영혼과 고귀한 마음

베토벤/멀리 있는 연인에게, 입맞춤, 그대를 사랑해, 아델라이데

- 피아노, 해설/박미은
- 소프라노/박현정 • 테너/이은민

22일 백민정 & 이마리솔과 함께하는 듀오콘서트 '유럽에서 온 편지'

2012년 런던의 '월드 피아니스트 시리즈'에 한국 대

표로 초청되어 오프닝 콘서트에서 한국 작곡가 진은숙의 피아노 에튀드를 연주, '내면의 폭발적인 에너지와 감수성, 뛰어난 테크닉이 어우러진 연주'라는 찬사를 받은 피아니스트 백민정과 바로크합주단(단장 김민) 최연소 멤버로 발탁되는가 하면 유럽에서 솔로리스트, 챔버 뮤지션으로서 활발히 활동중인 바이올리니스트 이마리솔의 듀오무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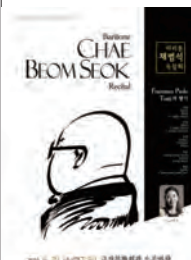
[프로그램]

베토벤/바이올린 소나타 제3번 작품 12
그리그/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제3번 Shinuh Lee/바이올린 환타지 제2번 'Laudate dominum'

프로코피예프/바이올린 소나타 제2번 작품 94a

29일 2016 바리톤 채범석 독창회

'Francesco Paolo Tosti의 향기'



부산대학교 음악학과와 이태리 L.Perosi 국립음악원, A.I.Arts 아카데미를 졸업하고 현재 부산예술고 어머니합창단 지휘자, 서구여성합창단 지휘자, 효원성악회 회장, 부산남성성악가 앙상을 회원, 이태리음악연구회 회원으로 활동중인 바리톤 채범석 독창회.

사랑, 이별, 슬픔, 죽음, 희망이라는 테마로 나누어 토스티의 가곡을 들려준다.

제53회 을숙도 명품콘서트 '베를린 필하모닉 클라리넷 수석 안드레아스 오텐잠머'

일 시 | 6월 1일 수요일 오후 8:0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균일 1만원(예매시 30% 할인)

문의 | 을숙도문화회관 220-5812

...



탁월한 음색으로 관객과 평론의 마음을 사로잡은 오스트리아의 클라리넷리스트 안드레아스 오텐잠머 초청무대로 마련되는 제53회 을숙도 명품콘서트.

현재 베를린 필하모닉 수석 클라리넷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안드레아스 오텐잠머는 4살 때부터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해 10살 때 빈 음악공연예술대학교에서 첼로를 공부한 후 2003년 클라리넷으로 전공을 바꾸어 요한 힌들러를 사사했다.

구스타프 말러 청소년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활동하기도 한 오텐잠머는 하버드대학교에 재학중이던 지난 2009년 베를린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아카데미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으며 2010년부터 2011년까지 베를린 도이치심포니 수석주자로 활동하기도 했다.

- 피아노/호세 가야르도

해운대문화회관 목요상설 천원의 행복

일 시 | 매주 목요일 오후 7:30(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해운대문화회관 고운홀

입장료 | 균일 1만원(해운대문화회관 누리회원 균일 1천원)

문의 |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



2일 굿데이 남성중창단 '남성중창으로 듣는 우리가곡과 7080 가요' 시립합창단을 비롯해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전문 성악인들로 결성된 굿데이 남성중창단의 무대.

'Good-좋은, Day-하루'의 뜻처럼 연주를 통해 '좋은날'을 선물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관객과 만나온 굿데이 남성중창단은 이번 무대에서 가곡, 김광석 메들리 등 우리 귀에 친숙한 우리가곡과 7080 가요를 들려준다.

9일 Die Cellisten 8

서울시립교향악단 초빙수석, 대구울림챔버 리더, 부산솔로이스츠앙상블 리더로 있는 첼리스트 정준수를 주축으로 부산의 첼로계를 이끌어갈 차세대 첼리스트 김기량(울산시립교향악단 단원), 김무늬(진주시립교향악단 단원), 배성아(창원시립교향악단

단원), 신정성(울산시립교향악단 단원), 이민지(포항시립교향악단 단원), 오현진(울산시립교향악단 단원), 조혜리(한국CMAK음악인협회 회원)로 구성된 Die Cellisten 8(첼리스트 8)의 무대.

[프로그램]

로시니/오페라 '세빌리아의 이발사' 서곡
베토벤/미뉴에트 사장조
아일랜드 민요/런던데리의 노래, 대니보이
스트라델라/Sinfonia a tre
율리우스 클렌델/즉흥곡 등 수곡

16일 아동극단 징검다리 '우당당 과학 탐험대' 고집쟁이 '팬'과 '포크박사'의 좌충우돌 과학실험을 다룬 연극으로, 관객이 직접 참여하여 체험할 수 있는 과학과 연극이 만난 '우당당 과학 실험대'.

- 작, 연출/김익현
- 실험/차일환, 서지원
- 출연/백정임, 박성준, 고정보 외

23일 동화나라 인형마루 '혹부리 영감과 깨비 이야기' 전래동화만의 특유의 해학을 바탕으로 노래하고 춤추며 즐길 수 있는 인형극 '혹부리 영감과 깨비 이야기'.

29일 예람인 '내 귓가에 머무는 노래'

실력있는 젊은 예술가들이 모여 클래식을 어려워하는 대중들에게 보다 가깝게 다가가고자 결성된 성악회 '예람인'의 무대로, 우리가곡 및 오페라 아리아를 들려준다.

안은지 바이올린 독주회

일 시 | 6월 2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일반 2만원, 학생 1만원
문의 | 윤예술기획 010-9025-2012

...



경원대학교 음악대학(현 가천대 예술대학)을 졸업하고 도미, 매네스 음악대학에서 석사학위, 보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바이올리니스트 안은지 독주회. International Academy of Music in Italy, Green Mountain Chamber Music Festival,

InterHarmony International Music Festival 등 페스티벌 및 콘서트와 마스터 클래스에 참가하며 음악적 영역을 넓혀온 안은지는 지난해 귀국독주회에 이어 1년만에 독주회를 가지는 등 지속적으로 관객들과 음악적 교감의 장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안은지는 현재 대구 MBC교향악단 제2바이올린 객원 수석, 실내악 그룹 The Blossom 멤버로 활동하고 있으며 동아대학교에 출강하여 후학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 피아노/김영실

밀라노의 아름다운 추억들

일 시 | 6월 3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의 | M&M 성악연구회 010-4434-6605

...



소프라노 신정순, 박초롱, 메조소프라노 손혜은, 테너 박재화, 윤승환, 바리톤 고봉수, 베이스 이준석 등 이태리에서 유학하고 현재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성악가들이 함께 하는 특별한 무대 '밀라노의 아름다운 추억들'.

유학시절의 음악적 열정을 되새기며 아름다운 이태리 가곡을 비롯해 우리 귀에 친숙한 한국가곡 및 유명 오페라 아리아를 들려준다.

[프로그램]

로시니/피렌체 꽃파는 아가씨
카르달로/무정한 마음
조두남/벚노래
이흥렬/꽃구름 속에
모차르트/오페라 '돈 조반니' 중 '거기서 그대 손을 잡고'
푸치니/오페라 '토스카' 중 '별은 빛나건만' 등 수곡
• 피아노/김아영

거꾸로 가는 음악여행

일 시 | 6월 3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의 | SMR 엔터테인먼트 010-5715-6627



BBS남성중창단 전속반주자, SMR성악연구회 객원 반주자로 있는 피아니스트 이해진, 김해시립합창단 단원인 소프라노 백성희, 동의대 예총콘서트바토리 반주강사, 사하구 장미여성합창단 반주자, SMR성악연구회 전속반주자로 있는 피아니스트 김신정, 부산중구 참솔구립합창단, 부산Bravo아버지합창단 반주자, 피아노 전문연주단체 '길가온' 멤버로 활동중인 피아니스트 구화진의 무대.

[프로그램]

이루마/River Flows In You
그라나도스/모음곡 '교예스카스' 중 '비탄, 또는 처녀, 그리고 나이트게일'
슈베르트/'백조의 노래' 중 '세레나데' 등 수곡
• 게스트/심신지(바이올린,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단원), 이가은(아모스양상블 단원)
• 사회/이병권

국립부산국악원 토요신명무대 '행복한 국악나무'

일 시 | 매주 토요일 오후 3:00
국립부산국악원 예지당
입장료 | A석 1만원, B석 8천원
문의 | 국립부산국악원 811-0114

...



국립부산국악원이 매주 토요일 오후 마련하는 토요신명무대.

4일 국립부산국악원 기악단 제13회 정기공연 '풍류와 산조' 국립부산국악원 기악단이 현악풍류 '황하정 도드리', 강태홍류 산조합주, 관악풍류 '표정만방자곡'을 들려준다. 11일 프로그램

자진한잎, 춘앵전, 가야금병창, 진주교방굿거리와 한량춤, 사나위, 창작타악, 춤 · 판 18일 프로그램

해령, 가인전목단, 기악독주, 판소리, 살풀이춤, 경기도당굿, 수영아류 중 '미알할미 과장' 25일 국립부산국악원 무용단 제8회 정기공연 조선시대 숙종의 명령과 보조를 받아 70세 이상 모친을 모시고 있는 신하 7명이 1691년 8월 경수연(慶壽宴)을 치른 후 기념으로 제작했던 '칠대부인 경수연도(七太夫人 慶壽宴圖)'를 스토리텔링한 악가무 종합극 '왕이 모신 잔치: 孝'를 선보인다.

2016 예타래와 함께하는 우리음악 느끼기

일 시 | 6월 4일 토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최지환 010-7676-9124

...

예술의 장르를 넘나들거나 세계음악과의 크로스오버를 통해 우리음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오고 있는 예타래의 창단 18주년 기념 정기연주회. 예타래는 1998년 창단 후 '예타래와 함께하는 우리음악 느끼기' 기획연주와 이탈리아 5개 도시 순회연주, 전주 세계소리축제 초청공연, 통영국제음악제 초청공연, '숨쉬는 땅' 기획공연, 슬로바키아 국립오케스트라와의 협연 등 수많은 연주회를 통해 우리음악의 새로운 해석과 음악의 영역확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오고 있다.



부산청소년리코더합주단 16기 향상음악회

일 시 | 6월 4일 토요일 오후 4: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강희숙 010-2562-6561

...

부산의 대표적인 리코더 연주단체인 부산리코더앙상블이 결성한 부산청소년리코더합주단이 그동안 연습을 통해 쌓아온 단원 개개인의 리코더 연주기량과 앙상블 능력을 선보이기 위해 마련하는 향상음악회. 이번 무대에서는 16기 단원들이 들려주는 리코더 앙상블 'The Syncopated Clock(L. Anderson)'과 Prowo, 헨델, 삼마르티니, 텔레만 등 바로크 시대 거장들의 알토 리코더 2중주 소나타를 비롯해 연주반 단원들이 선사하는 비발디 4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콘체르토 등 리코더 앙상블의 다양한 매력을 감상할 수 있다.



무지크바움 살롱음악회 재즈밴드 'Diamond Bridge'

일 시 | 6월 4일 토요일 오후 5:00 무지크바움
입장료 | 균일 1만 5천원
문 의 | 무지크바움 070-7692-0747,
cafe.daum.net/musikbaum.busan

...
그동안 실력있는 연주자들과 함께 부산의 살롱문화를 이끌어온 무지크바움 살롱음악회.
이번 무대에서는 '음악적 이상을 연결하는 다리'라는 뜻을 지닌 젊은 재즈밴드 'Diamond Bridge'의 무대가 펼쳐진다. 재즈의 대중화를 위해 결성된 재즈밴드 'Diamond Bridge'는 그동안 KBS부산, 극동방송, 재즈클럽 등 다양한 무대를 통해 관객과 소통해오고 있다.

- 연주/김지홍(리더, 피아노), 황대웅(베이스), 김경모(기타), 이수은(보컬)



동래문화회관 숲속의 열린음악회 내 마음속 심표, 休~~~ - 오페라 아리아, 가곡, 그리고 칸초네의 밤

일 시 | 6월 7일 화요일 오후 8:00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 의 | 동래문화회관 550-6611

...
초여름밤 경쾌한 울림과 시원한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는 숲속의 열린음악회 '내 마음속 심표, 休~~~'.
이번 무대에서는 소프라노 박지인, 테너 양승엽, 장진규, 베이스 유형광 등 이태리, 독일, 미국, 폴란드 등 각 나라의 명문음대에서 유학을 마치고 현재 부산을 중심으로 활발히 연주활동을 펼치는 음대 교수 출신 남녀 성악가들의 무대를 만날 수 있다.

[프로그램]
에릭 사티/당신을 원해요
거쉬인/썸머타임
비제/오페라 '카르멘' 중 '꽃노래'
이수인/내 마음의 강물
푸치니/오페라 '나비부인' 중 '잘 있오라, 행복했던 집이여' 등 수곡

- 출연/소프라노 박지인, 테너 양승엽, 장진규, 베이스 유형광
- 피아노/양광기

소프라노 안소영 독창회

일 시 | 6월 8일 수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안소영 010-4058-3470



(사)충무 나라사랑 공연단, 사하구 장미합창단 솔리스트, 반야사 불모중창단, 범어사합창단, 부산불교연합합창단, M빅토리안중창단 단원으로 활동중인 소프라노 안소영 독창회.
동의대학교 예술종합 콘서트, 토리 음악학과와 동의대학교 산업문화대학원(석사)을 졸업한 안소영은 메소드 필하모닉오케스트라 협연 콩쿠르에서 2등에 입상했으며 부산내셔널심포니오케스트라 신인음악회, 오페라 '사랑의 묘약', '세빌리아의 이발사'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프로그램]
출가, 구름 걷힌 달처럼, 한 마음 있음이여, 산사의 저녁, 꽃향기 가득한 밤, 오페라 '돈 조반니' 중 '나에게 그대의 손을, 연인이여'(모차르트 곡) 등 수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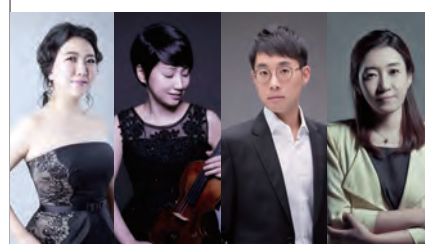
- 사회/주석남
- 특별출연/유용준(바리톤), 최우선(클라리넷), 김산정(피아노), 정아람(바이올린), 이가은(첼로)

무지크바움 살롱음악회 앙상블 덴토나이즈(Dentonites)

일 시 | 6월 9일 목요일 오후 7:30 무지크바움
입장료 | 균일 1만 5천원
문 의 | 무지크바움 070-7692-0747,
cafe.daum.net/musikbaum.busan

...
미국 노스텍사스대학교에서 박사 및 연주자과정으로 학위를 받은 소프라노 박상희와 바이올리니스트 허은혜, 피아니스트 김성연, 박은정으로 결성된 앙상블 덴토나이즈의 무대로 마련되는 무지크바움 살롱음악회.
이번 무대에서는 연주자들이 음악수업을 받은 미국의 현대음악을 중심으로 다양한 곡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바버/Excursions 작품 20
볼컴/에덴의 동산 중 '악마의 키스'
A. 바치/세계의 브라우닝 노래 작품 44
코플랜드/에밀리 디킨슨의 12편의 시 등



스트로크 타악기 앙상블 제12회 정기연주회

일 시 | 6월 11일 토요일 오후 6: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스트로크 타악기 앙상블
010-4494-3520



...
지난 2005년 부산, 경남지역에서 활동하는 젊은 타악기 연주자들로 결성된 후 그동안 다양한 무대를 통해 타악기의 다양한 매력을 알려온 스트로크 타악기앙상블의 12번째 정기연주회.
매년 지속적인 정기연주회와 통영국제음악제, 부산실내악페스티벌, 안동전국타악기페스티벌 등에 참가해 깊이 있는 타악기음악의 해석과 수준 높은 예술적 표현으로 호평을 받아온 스트로크 타악기앙상블은 새로운 레퍼토리 개발과 찾아가는 음악회로 관객과 소통해왔다.

- 연주/이상진, 장경식, 장수영, 심정보, 황지숙, 정재은, 이영아, 고정선, 박현석, 박종식, 예병현, 이상은, 최대섭, 김태형, 김단비, 박선영, 이일순, 김영훈, 이경민
- 사회/문혜진
- 작곡/김수진

지휘자 이성훈의 음악여행 친구들 그 네 번째 이야기

일 시 | 6월 11일 토요일 오후 7: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르 보아즈 보컬레 앙상블
010-3586-1938



...
국립합창단 부지휘자를 역임하고 현재 부산대학교 합창 지도교수, 르 보아즈 보컬레 앙상블, 부산가톨릭합창단, 주교좌 중앙교회 세실리아 성가대, 뽀레나 앙상블, 부산Bravo아버지합창단, 동래구옥셈합창단 상임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는 지휘자 이성훈이 그의 음악적 여정에서 만난 음악친구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무대.
2013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네 번째를 맞는 이번 무대에서는 아마추어 연주자들의 음악에 대한 열정과 사랑을 확인할 수 있다.

- 출연/소프라노 김영아, 박수현, 김혜진, 성태민, 이도경, 테너 이경춘, 이화재, 배부현, 강시명, 이영찬, 바리톤 이양규, 베이스 강도규
- 피아노/이소진
- 사회/조선영전부산MBC아나운서

센토챔버소사이어티 정기연주회 '정화된 밤'

일 시 | 6월 13일 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균일 2만원(학생 50% 할인)
문 의 | 아트뱅크코리아 442-1941

...



부산시립교향악단 바이올린 수석 이은옥을 주축으로 젊은 연주자들로 구성된 센토챔버소사이어티의 정기연주회. 부산의 실내악 문화를 이끌어 나가는 주역으로 부산 음악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센토챔버소사이어티는 지난 2011년 금정문화회관 기획공연을 시작으로 2012년 갤러리 연주회, 2013년 MBC목요음악회 '발렌타인 콘서트', 2014년 아트뱅크코리아 창립 15주년 특별연주회, 2015년 '러시아 음악의 밤' 등 다양한 무대를 통해 관객들에게 실내악의 아름다운 선율과 묘미를 들려주고 있다.

- 바이올린/서은아, 여주현, 이은옥, 홍은지
- 비올라/김민경, 이성호, 손주연
- 첼로/김근혜, 김판수, 서성은, 최지현
- 피아노/김미현 • 오보에/조정현

2016 영화의전당 마티네콘서트 뮤지컬, 영화에 빠지다 -뮤지컬 배우 강필석

일 시 | 6월 14일 화요일 오전 11:00
영화의전당 하늘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 의 | 영화의전당 780-6000



창작과 라이선스를 아우르는 한국 뮤지컬계의 대표 배우 강필석과 함께하는 특별한 무대 2016 영화의전당 마티네 콘서트 6월 무대.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을 졸업한 후 2004년 한국초연 '지킬 앤 하이드'로 뮤지컬에 데뷔한 강필석은 2005년 뮤지컬 '갯마을'에서 첫 주역으로 발탁된 후 뮤지컬 '브룩클린',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쓰릴미', '나인', '닥터 지바고' 등 다양한 작품에서 활발한 활동을 보이며 자신만의 연기세계를 구축해가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뮤지컬 '위키드', '킹키부츠', '여신님이 보고계셔' 등 현 뮤지컬계에서 가장 각광받고 있는 음악감독 양주인과 함께 영화를 뮤지컬로 제작한 작품 그리고 뮤지컬에서 영화로 재탄생된 작품을 중심으로 다양한 뮤지컬 넘버들을 들려준다.

(사)부산네오파하모닉오케스트라 제29회 정기연주회 라 무지카-名品名詞

일 시 | 6월 16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VIP석 3만원, R석 2만원, S석 1만원
문 의 | (사)부산네오파하모닉오케스트라
070-8899-7308, 010-2323-6589



지난 2009년 창단된 후 매년 50회 이상 폭넓은 연주 활동을 펼치고 있는 (사)부산네오파하모닉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지난 2013년부터 금정문화회관 상주단체로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사)부산네오파하모닉오케스트라는 이번 무대에서 지휘자 홍성택의 지휘로 영상과 음악, 토크가 결합된 색다른 무대 '라 무지카-名品名詞'를 펼친다. (주)메타리더그룹 대표원장 양지원의 사회로 성악가 (재)레인보우희망재단 이사장이자 전 롯데자이언츠 2군 감독이었던 박정태가 토크콘서트 명사로 출연, 스크린 영상과 함께 토크쇼 형식으로 클래식 음악을 풀어낸다.

- 협연/테너 문한솔

아르스 현악4중주단 창단 15주년 '동행'

일 시 | 6월 16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아르스 현악4중주단 010-8551-09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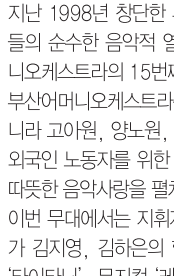
신라대학교 교수인 바이올리니스트 조현미를 리더로 움챔버오케스트라 악장, 로얄심포니오케스트라 수석인 바이올리니스트 서은아,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수석인 비올리스트 이성호, 신라대학교 외래교수인 첼리스트 하경희로 구성된 아르스 현악4중주단이 창단 15주년을 맞아 마련한 특별한 무대 '동행'. 이번 무대에서는 경성대학교 예술종합대학 학장으로 있는 피아니스트 조현선,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으로 있는 클라리네티스트 장재혁의 협연으로 프로 코피에프, 모차르트, 라흐마니노프 곡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프로코피에프/히브리 주제에 의한 서곡 작품 34
모차르트/클라리넷5중주 가장조 K.581
라흐마니노프/피아노5중주 내림마장조 작품 44

제15회 부산어머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일 시 | 6월 18일 토요일 오후 7:00
영화의전당 하늘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화장 정은숙 010-8514-8947



지난 1998년 창단한 후 다양한 무대를 통해 어머니들의 순수한 음악적 열정과 끼를 선보여온 부산어머니오케스트라의 15번째 정기연주회. 부산어머니오케스트라는 그동안 정기연주회 뿐만 아니라 고아원, 양노원, 병원 등 찾아가는 봉사음악회,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음악회 등 소외된 이웃을 찾아 따뜻한 음악사랑을 펼쳐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지휘자 다니엘S김이 지휘하고 성악가 김지영, 김하은의 협연으로 영화 '미션임파서블', '타이타닉', 뮤지컬 '레미제라블', '오페라의 유령' 등 영화와 뮤지컬 음악을 주제로 한 다양한 연주곡을 들려준다.



해운대소방서와 함께하는 선샤인오케스트라 창단연주회

일 시 | 6월 18일 토요일 오후 7: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초대
문 의 | 선샤인오케스트라 010-5660-3919



지난 2015년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음악으로 이야기하고 행복과 감정을 소통하는 아마추어오케스트라 선샤인오케스트라의 창단 연주회. 지휘자 원준연이 지휘하고 플루티스트 김강린, 해림초등학교 1학년 김태희가 협연하는 이번 무대에서 로시니 '알제리의 이탈리아 여인' 서곡을 시작으로 다양한 연주곡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로시니/알제리의 이탈리아 여인' 서곡
브람스/헝가리 무곡 제5번
모차르트/플루트협주곡 제1번 사장조 K.314
케텔비/페르시아의 시장
최성환/관현악곡 '아리랑' 등
• 지휘/원준연 • 플루트/김강린 • 노래/김태희

소프라노 천정주 독창회

일 시 | 6월 21일 화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전석 초대
문 의 | 천정주 010-8540-4342



경희대학교 성악과를 졸업하고 네덜란드 Maastricht 음악대학 성악과를 수료한 소프라노 천정주 독창회. 천정주는 그동안 해운대성 가정성당 성가대원, 선택합창단, 뮤즈콘서트콰이어합창단, 벨라보체합창단 단원으로 있으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이태리 가곡을 비롯해 독일가곡, 한국가곡, 오페라 아리아 등 다양한 곡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 루찌아/아베 마리아
- 김동진/저 구름 흘러가는 곳
- 임금수/강 건너 봄이 오듯
- 푸치니/오페라 '잔니 스키기' 중 '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 슈만/현정 등 수곡
- 찬조출연/장대호(피아노), 김민정(플루트), 김정원(첼로)

부산챔버스퀘어와 함께하는 클래식 산책 제17회 프롬나드 콘서트 'Elegy(비가)'

일 시 | 6월 23일 목요일 오후 7:00
부산상공회의소 부산챔버스퀘어

입장료 | 전석 무료
문 의 | 부산상공회의소 홍보팀 990-7090~3

127년 역사의 부산상공회의소와 부산경제를 살펴볼 수 있는 역사관 '부산챔버스퀘어'를 알리고, 음악과 함께하는 편안한 휴식의 장소와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프롬나드 콘서트 6월 무대.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KNN방송교향악단, 부산월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 예술감독으로 있는 마에스트로 오충근이 지휘하고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악장 황지원, 소프라노 고예정이 협연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비가(Elegy)'라는 주제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특별한 무대를 마련한다.



무지크바움 살롱음악회 피아니스트 황성훈 독주회 '쇼팽의 시'

일 시 | 6월 23일 목요일 오후 7:30 무지크바움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 의 | 무지크바움 070-7692-0747, cafe.daum.net/musikbaum.busan



한국예술종합학교와 독일 하노버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 이탈리아 로마 산타 체칠리아 국립음악원을 졸업하고 Maria Canals 국제콩쿠르 3위, Epinal 국제콩쿠르 2위, 프랑스 음악해석 특별상, Jaen 국제콩쿠르 2위, Porto 국제콩쿠르 4위 및 현대음악해석 특별상, Luis Sigall 국제콩쿠르 2위 및 청중 특별상을 수상한 피아니스트 황성훈 독주회.

황성훈은 그동안 피아니스트로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Rina Sala Gallo, Euterpe, Claude Bonneton, Terra degli Imperiali, G.Raciti 국제콩쿠르 심사위원을 역임한 바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피아노의 시인' 쇼팽의 대표적인 연주곡을 들려준다.

음악풍경 청년음악가 시리즈 22-24 '청년이 살아야 음악도 산다' 플루트 최가원, 피아노 임혜명

일 시 | 6월 24일 금요일 오후 7:30 무지크바움
입장료 | 일반 1만원, 청소년 5천원
문 의 | 음악풍경 987-5005

그동안 역량있는 신예 음악가들을 발굴, 데뷔무대를 제공해온 음악풍경 청년음악가 시리즈 '청년이 살아야 음악도 산다' 6월 무대. 동아대학교 음악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 재학 중인 플루티스트 최가원과 부산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부산대학교 음악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피아니스트 임혜명이 열정적인 무대를 펼친다.

[프로그램]

- 브람스/피아노 소나타
- 리스트/파가니니 연습곡
- 타파넬/미농 등
- 진행/고민지



김현정 바이올린 리사이틀

일 시 | 6월 24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아트뱅크코레아 442-1941



대연여자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 도미, 맨하탄음대 예비학교, 메네스음대를 졸업하고 뉴욕 시립대학 퀸즈칼리지 음악대학원(석사)을 졸업한 바이올리니스트 김현정의 두 번째 독주회. 실내악, 오케스트라 활동으로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김현정은 브니엘예술중학교, 동의대학교 강사를 역임하고 현재 신라대학교에서 후학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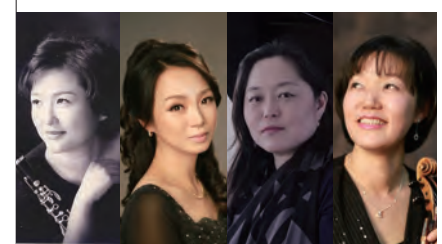
- 베토펴/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제8번
- 사장조 작품 30-3
- 브람스/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제2번
- 가장조, '툰' 작품 100
- 비탈리/샤콘느 사단조
- 피아노/이진성

김희진, 엄남이, 주선영, 홍기정 4인 음악회

일 시 | 6월 25일 토요일 오후 7: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우리아트 920-9545

클라리네티스트 김희진, 소프라노 엄남이, 피아니스트 주선영, 바이올리니스트 홍기정의 4인 음악회. 김희진은 부산대학교와 독일 쾰른국립음대를 졸업하고 마산시립교향악단 수석을 역임했으며, 엄남이는 부산대학교 음악학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부산시립합창단 차석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선영은 부산대학교 음악학과와 독일 데트몰데음대, 하노버 음대, 네덜란드 로테르담 음대, 독일 쾰른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현재 노르웨이 Barratt Due 음대 피아노 전임강사로 있으며, 홍기정은 부산대학교 음악학과와 독일 뮌스터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BSO 수석, 뮤지카 비바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기타듀오 폴리포니, 우;연 조인트 콘서트

일 시 | 6월 26일 일요일 오후 6:00

해운대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서승완 010-5198-0074

...



2005년 기타리스트 서승완, 김경태로 결성된 후 클래식, 영화음악, 국악, 남미 무곡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각종 기타페스티벌과 국제음악제 프린지, 방송국 초청연주 등을 통해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쳐온 폴리포니 기타듀오와 지난 2012년

기타리스트 이기오, 심현으로 결성된 후 대부분 곡들을 직접 작, 편곡하여 클래식 기타만이 가지는 매력적인 음색을 선사해온 기타듀오 '우;연'이 함께하는 조인트 콘서트.

[프로그램]

심현/바람길
손호성(편곡/심현)/꿈속의 왈츠
알베니즈/전설
엔니오 모리코네/시네마천국
피아졸라/리베르탱고
카르도스/밀롱가 등 수곡

양상블 디토 시즌 10 'The Revolutionary: 혁명가들'

일 시 | 6월 29일 수요일 오후 7:30

부산학생예술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 S석 5만원, A석 3만원, B석 2만원

(학생 50% 할인)

문 의 | 부산학생예술문화회관 366-8114

...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을 중심으로 '클래식'의 공감'을 모토로 지난 10년을 숨가쁘게 달려온 프로젝트 그룹 양상블 디토의 역사적인 '시즌 10' 부산 무대.

클래식 음악 중에서도 가장 소외받는 실내악으로 지난 10년간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공연을 매진시키며 실내악 저변을 넓혀온 양상블 디토는 지난 가을 기돈 크레머 & 크레메라타 발티카와의 공연으로 국내 외 100회 공연을 돌파하기도 했다.

2016년 올해 기념비적인 '10년'을 맞아 한계를 넘은 자 베토벤의 정신을 이어받아 클래식 음악사의 혁명적 발자취를 남긴 작곡가를 테마로 관객과 만나는 이번 무대에서는 2부 파발레곡인 베토벤의 걸작 피아노 트리오 '대공'을 가기 위해 1부에서는 16세기부터 20세기를 잇는 미니멀리즘 음악의 대가 아르보 파트,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의 마드리갈 작곡가이자 대담한 화성법으로 유명한 카를로 제수알도, '표현주의의 정수'라 일컫는 에오슈 야나체크의 곡을 들려준다.

특히 이번 '시즌 10'을 통해 시즌 2부터 디토의 멤버로 활동했던 바이올리니스트 스테판 피 재키브와 시즌 3부터 함께한 첼리스트 마이클 니콜라스가 안경을 고하면서 디토의 한 시기를 마감하며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양상블 디토 2기를 준비한다.

[프로그램]

아르보 파트/Spiegel im Spiegel

제수알도/모로 라소(나를 고통 속에 죽게 내버려 두오)

야나체크/현악사중주 '크로이처 소나타'

베토벤/피아노 삼중주 '대공 트리오'

• 연주/리처드 용재 오닐(비올라), 스테판 피 재키브 (바이올린), 마이클 니콜라스(첼로), 다니엘 정 (바이올린), 대니 구(바이올린), 스티븐 린 (피아노)



금정문화회관 11시 브런치 콘서트 해피버스데이, 라벨

일 시 | 6월 28일 화요일 오전 11: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균일 1만 5천원(커피 제공)

문 의 | 금정문화회관 519-5661, 3

...



금정문화회관이 매월 다양한 주제와 장르로 마련하는 브런치 콘서트 6월 무대로, 프랑스가 낳은 세계적인 작곡가 모리스 조제프 라벨의 생일을 맞아 펼쳐지는 클래식 연주 콘서트 '해피버스데이, 라벨'.

작곡가 라벨은 영화 '배트맨-다크나이트', '버드맨' 등 수많은 영화와 무용의 배경음악으로 사용되었으며, 지금도 끊임없이 예술작품 영감의 원천이 되고 있는 '볼레로'와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를 작곡한 근대 클래식의 대표 작곡가로, 이번 무대에서는 귀로 익숙했던 라벨의 음악만이 아닌 '작곡가 라벨'을 만나는 의미있는 시간으로 꾸며진다.

특히 이번 무대는 특유의 유머코드를 지닌 음악칼럼니스트 김문경의 해설과 섬세하면서도 카리스마 넘치는 피아니스트 박진우가 함께 한다.

제2회 부산 오페라 하우스 건립 기념 그랜드 갈라 콘서트

일 시 | 6월 30일 목요일 오후 7:3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일반 3만원, S석 5만원, VIP 7만원

(단체 10인 이상 예매시 20% 할인)

문 의 | SnD 010-9168-9434

...

부산 오페라 하우스 건립을 기념해 한국국제예술교류협회가 마련하는 국제교류음악제 두 번째 무대 '그랜드 갈라 콘서트'.

해금주자 강민승(한국), 열후 연주자 이비(중국), 첼리스트 세르게이 리자노프(폴란드), 트럼페터 드미트리 로카렌코프(우크라이나) 등 4개국 초청 연주자들과 재독 피아니스트 황성훈, 전통 독일 오페라 가수로 활동중인 윤소은, 소프라노 신선미와 바리톤 정승화, 소프라노 김성경, 마린과이어가 우크라이나 체르니시 필하모니와 함께 한다.

• 지휘/김영근(음악감독)



Play 연극

연극 '스캔들'

일 시 | 3월 17일(목)-6월 19일(일) 평일 오후 7:30, 주말·공휴일 오후 5:00, 8:00(월요일공연 없음) BNK부산은행 조은극장 스타홀

입장료 | 균일 3만원(만 18세이상 관람가,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BNK조은극장 1588-2757

...



연극 '보잉보잉'의 작가로도 유명한 프랑스 코미극의 대가 마르크 까뮈레티의 작품을 우리나라 정서에 맞게 각색한 성인들을 위한 화끈한 섹시 코미디극 '스캔들'.

겉으로는 완벽한 부부이지만 남편의 친구, 미모의 모델과 각각 바람을 피우는 아내 고은과 남편 우진, 그리고

친구의 아내와 바람을 피우는 대학교수 주일과 우진의 섹시한 모델 애인 제시카, 여기에 우연히 엮이게 된 만능 요리사 셰프김, 이 다섯 남녀의 서로를 속고 속이는 발빠른 해프닝이 19금 연극에 맞는 짜릿한 대사와 거침없는 연기 속에 펼쳐진다.

• 원작/마르크 까뮈레티

• 각색/박은혜

• 연출/장우진

뮤지컬 '맛의 기억'

일 시 | 4월 15일(금)~6월 19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3:00, 6:00
일·공휴일 오후 4:00(월요일 공연없음)
부산메트로홀

입장료 | 균일 3만원
문의 | B(주)플레이더부산 1600-0316



기억을 잃어버리고 바닷가를 떠돌고 있던 수정 앞에 수수께끼 같은 남자 대현이 나타나고, 맛으로 기억을 찾기위해 부산의 유명 먹거리를 찾아다니던 수정은 대현에게 집밥으로 기억을 찾게 해달라며 조르기 시작하는데... 수정은 과연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을 수 있을까.

사람의 감각 중에서 가장 기억에 오래 남는다는 미각, 그 '맛의 기억'을 통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과 사랑, 그리고 잊고 살아왔던 아름답고 행복한 추억을 전해줄 창작뮤지컬 '맛의 기억'.

- 작/이민혁
- 연출/이규인
- 음악감독/박윤희

로맨틱 뮤지컬 '러브 어게인'

일 시 | 4월 20일(수)~6월 12일(일)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공휴일 오후 2:00, 5:00(월요일 공연없음)
AN아트홀 서면

입장료 | 균일 3만 5천원
문의 | 미니티켓 1600-1716



사랑하는 남자와의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한 수면제를 삼킨 한 여자가 삶과 죽음의 경계, 중간계에서 남녀 사신(死神)들을 만난다. 사신들은 산 것도 죽은 것도 아닌 애매모호한 상태에 빠진 여자를 이승으로 되돌려 보내려 하지만, 사랑에 상처받은 그녀는 돌아가기를 거부한다.

사신들은 그녀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그녀에게 사랑과 삶을 되돌아 볼 수 있는 여행을 제안한다. 삶 속에서 사랑의 다양한 에피소드를 보여주며 그녀를 살리려는 사신들과 죽기를 고집하는 여자의 티격태격 여행은 시작되는데...

사랑이 넘쳐나는 시대에 더욱 필요한 진솔하면서도 소박한 사랑이야기 '러브 어게인'.

연극 '쉬어매드니스'

일 시 | 4월 21일(목)~6월 19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공휴일 오후 4:00, 7:00(월요일 공연없음)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관

입장료 | 균일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 BNK조은극장 1588-2757



정신없고 산만한 미용실 '쉬어매드니스' 위층에 살고 있던 왕년에 잘 나가던 유명 피아니스트가 살해된다. 손님으로 가장해 잠복하고 있던 형사들은 미용실에 함께 있던 사람들을 용의자로 지목하고,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관객들은 목격자이자 배심원이 되어 용의자들의

행적을 캐묻는다.

저마다 완벽하고 치밀한 알리바이를 내세워 자신을 변호하는 4명의 인물들, 범인은 바로 여기, 미용실 안에 있다. 과연 당신이 지목할 범인은 누구인가? 연극 '쉬어매드니스'는 범인을 잡으려는 관객들과 숨겨려는 배우들의 신경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매혹적인 관객들의 증언에 따라 사건이 재연되면서 매혹적인 결말을 선보인다.

코믹연극 '코메디 레시피'

일 시 | 5월 5일(목)~7월 10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공휴일 오후 2:00, 5:00(월요일 공연없음) 에저소 소극장

입장료 | 균일 3만원
문의 | 미니티켓 1600-1716



자라온 환경, 살아가는 방식 어느 하나 맞는 게 없지만 어쩔 수 없이 한 집에 함께 살고 있는 두 여자와 죽어도 이 집에서 살아야 하는 한 남자 간의 좌충우돌 스토리를 담은 휴먼 코미디극 '코메디 레시피'.

현대를 살아가는 청춘들 그리고 청춘을 맞이하는 청소년들이 진정한 '성인'이 되기 위한 과정으로 선택한 '나 홀로 서기'에 대해 다룬 '코메디 레시피'는 모든 것이 걱정투성이인 요즘 젊은이들의 일상, 꿈, 우정, 사랑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로 만들어 웃음이라는 레시피로 맛있게 버무려 관객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극단 팻브릿지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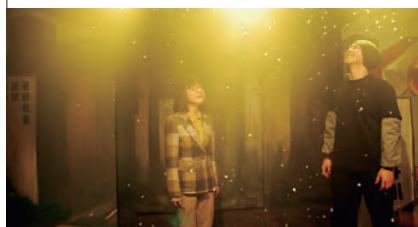
일 시 | 5월 13일(금)~7월 17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5:00(월요일 공연없음)
가온아트홀 1관

입장료 | 균일 3만원
문의 | 극단 팻브릿지 070-4279-3377

올해로 창단 10주년을 맞는 극단 팻브릿지가 10주년 기념행사로 마련한 '팻스티벌' 첫 번째 무대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지난 2008년 초연 후 꾸준한 관객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아온 아니 생긴 여자 박정봉의 무공해 유기농 로맨스극 '못생겨서 죄송합니다'는 짙은 슬픔과 유쾌한 웃음이 공존하는 스토리와 라디오와 현실, 현재와 미래를 오가며 진행되는 빠른 극 전개, 상상력 넘치는 무대장치까지 극의 재미를 더해준다.

- 작, 연출/김민우



연극 '몽타주'

일 시 | 5월 19일(목)~8월 28일(일) 오후 5:00, 8:00(월요일 공연 없음)
BNK부산은행조은극장 2관

입장료 | 균일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추리소설을 읽는 듯한 사실적이면서도 박진감 넘치는 전개로 영화를 뛰어넘어 오감을 자극하는 연극 '몽타주'. 유년시절 아버지를 죽인 연쇄살인범을 쫓기 위해 천재적인 몽타주 화가로 성장한 서정민과 연쇄살인범 유흥준, 연쇄살인범으로부터 서정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강

력반 형사 조상철과 서정민의 친오빠 서정훈의 치밀한 추리게임을 그린 작품으로, 등장인물들의 숨겨진 사연이 치밀한 공방전을 통해 서서히 드러난다. 연극 '몽타주'는 지난 2008년 한국 최초의 추리소설인 이혜조의 '쌍옥적(1908년)' 탄생과 한국추리 문학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완성한 전격 추리연극으로, 2013년 초연된 후 지금까지 1,500여회 공연, 전국 25개 도시 순회공연을 통해 관객과 만나고 있다.

뮤지컬 '영웅을 기다리며'

일 시 | 5월 20일(금)~7월 3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공휴일 오후 2:00, 5:00(월요일 공연없음)

KNN시어터

입장료 | 균일 4만원

문의 | (주)디오르골씨어터컴퍼니 664-7880

...



난중일기의 찢겨진 페이지에서 착안해 이순신 장군의 3일간의 미스터리를 기발한 발상의 코미디로 재구성한 창작뮤지컬.

평범한 인간 이순신이라는 발상의 전환으로 시작된 '영웅을 기다리며'는 치열한 전투현장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던 이순신이 자신을 암살

하려는 일본 무사에게 사로잡혀 3일간 동행하는 내용으로, 배고프면 서럽고 열 받으면 욕도 잘하는 인간적인 이순신을 만날 수 있다.

2008년 창작팩토리 최우수상, 2012년 창작뮤지컬 지원작에 선정된 작품으로, 잠 못드는 이순신의 육두문자 화음이 만들어낸 기발한 뮤지컬 넘버와 한밤중 부르짖는 세레나데 등 참신하고 재미있는 18곡의 뮤지컬 넘버와 파워풀한 안무가 극의 재미를 더해준다.

호러 로맨스 연극 기묘한 이야기

일 시 | 5월 27일(금)~8월 21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2:00, 5:00(월요일 공연없음)

부산축제소극장

입장료 | 균일 3만원

문의 | 집컴퍼니 1899-9498

...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 있는 한 부부의 기묘한 이야기를 오싹한 분위기와 진한 감동, 연출 특유의 유머코드로 풀어낸 호러 로맨스 연극 '기묘한 이야기'.

평범한 신혼부부인 요한과 수연, 아이를 갖게된 후 예민해진 수연으로 인해 요한과 수연을 찾는 다름을 하게 되고 그 다름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이어진다. 사고가 자신의 잘못이라 질책하는 요한 앞에 수연의 혼을 불러주겠다는 노숙자가 나타나고...

평범한 부부에게 일어난 갑작스러운 죽음과 후회, 그리고 단 두 시간의 기묘한 만남이 무겁지 않은 웃음과 진한 감동으로 다가온다.

- 연출/이성호
- 출연/이주훈, 정영성, 한승헌, 서원호, 황아영, 김가현, 최성애, 이보희, 허세지, 임우현 외

댄스뮤지컬 '사랑하면 춤을 춰라'

일 시 | 5월 31일(화)~6월 12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3:00, 7:00, 일요일 오후 3:00(월요일 공연없음)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R석 4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문의 | 영화의전당 780-6030

...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도 공감할 수 있는 단순한 이야기 속에 힙합, 재즈, 현대무용, 브레이크댄스 등을 유쾌하게 배합시켜 무대와 객석이 춤으로 하나되는 난 바벌 댄스컬 '사랑하면 춤을 춰라'.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란 친구 준, 선, 빈 등 3인의 탄생, 성장, 사랑의 모든 감정을 언어가 아닌 춤으로 표현한 '사랑하면 춤을 춰라'는 지난 2004년 10월 초연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4000회 넘는 공연기간 중 전국문화예술회관 70개 도시 초청공연을 비롯해 미국과 일본, 중국, 영국, 베트남, 싱가포르, 러시아 등 한국을 넘어 전 세계 60여개 도시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200만 관객을 돌파했다

생, 성장, 사랑의 모든 감정을 언어가 아닌 춤으로 표현한 '사랑하면 춤을 춰라'는 지난 2004년 10월 초연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4000회 넘는 공연기간 중 전국문화예술회관 70개 도시 초청공연을 비롯해 미국과 일본, 중국, 영국, 베트남, 싱가포르, 러시아 등 한국을 넘어 전 세계 60여개 도시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200만 관객을 돌파했다

한결아트홀 기획공연 '이윤주 연극전' 방바닥 굽는 남자

일 시 | 6월 2일(목)~12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4:00(월요일 공연없음)

한결아트홀

입장료 | 일반 3만원, 대학생 2만5천원, 중고생 2만원

문의 | 한결아트홀 1588-9155

...



부산이 낳은 명배우이자 연출가였던 이윤주를 추억하는 이윤주 연극전 '방바닥 굽는 남자'.

지금 이곳 한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주변부 인생으로 밀려나버린 4명의 남자들이 벌이는 진지한 놀이극 '방바닥 굽는 남자'는 지난 2010년 동아연극상 작품상, 신인연출상, 무대미술상을 수상한 작가 김지훈과 연출가 이윤주의 만남으로 화제가 된 작품이다.

- 작/김지훈
- 연출/이윤주
- 재연 연출/이윤택
- 출연/홍민수, 김철영, 조승희, 신인철, 최민혁, 이보라

Dance 무용

부산시립무용단 區 문화회관 순회공연 드라마음악과 함께하는 춤 여행

일 시 | 6월 9일 목요일 오후 7:30

영도문화회관 대공연장

14일 화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17일 금요일 오후 7:30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 무료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607-3107, 3154

...

區 문화회관 순회공연을 통해 우리춤의 매력을 선사하는 부산시립무용단 '드라마음악과 함께하는 춤 여행'. 대중음악을 통해 우리춤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무대로, 남녀 2인무로 영원한 사랑을 그린 '사랑가'(판소리 '춘향가' 중)를 시작으로 한량무와 산조춤 한 폭의 동화화로 이미지한 '오나라'(드라마 '대장금' OST), 목포항을 배경으로 이별의 끝없는 아픔, 서러움, 그리움을 담아낸 '목포의 눈물(가요)', 슬프지만 행복한 사랑이 만들어가는 풍경을 3인무로 그린 '천년의 사랑(가요)', 바닷가에서 펼쳐지는 남녀의 애절한 사랑을 배와 갈매기의 이미지로 형상화한 'My heart will go on'(영화 '타이타닉' OST) 등 다양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국립부산국악원 상설공연 왕비의 잔치

일 시 | 5월 13일(금)~12월 25일(일) 수~금요일 오후 8:00, 주말·공휴일 오후 4:00

(월~화요일 공연없음)

해운대그랜드호텔 전용극장

입장료 | 균일 3만원

문의 | 국립부산국악원 811-0114

...

부산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한국 전통공연예술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지역관광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획된 국립부산국악원 상설공연 '왕비의 잔치'. 궁중의 화려함과 영남의 민영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왕비의 잔치'는 올해 국립무용단 예술총감독을 맡은 바 있는 국수호 명무의 안무로 궁중정재를 비롯 동래학춤, 동래고무, 고성오광대, 북의 대합주 등 지역민속무용과 국수호 안무가의 창작춤, 판소리 '음식가'가 추가되는 등 보다 새로운 모습으로 관객과 만난다.



名舞流一家 -황지인, 하연화, 김일지

일 시 | 6월 4일 토요일 오후 7: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 의 | 하연화무용단 010-9350-5273

...



한국 전통춤의 맥을 잇고 있는 3인의 대표춤꾼 황지인, 하연화, 김일지의 무대. 황지인은 동아대학교 무용학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김진홍전통춤보존회 회원, 예술공동체 예인청 대표로, 하연화는 2014 제9회 우봉 이매방춤 전국무용경연대회 대상을 수상하고

중요무형문화재 제97호 살풀이춤 이수자, 부산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10호 동래고무 이수자, 춤패 배김새 대표로, 김일지는 중요무형문화재 제39호 처용무 전수자, 김일지한국전통예술원 원장, (사)한국전통무용연구회 교도지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 특별찬조출연/김갑용(동래한량춤 이수자), 이윤혜(중요무형문화재 살풀이 이수자), 박대성(부산시 무형문화재 박대성류아쟁산조 예능보유자), 박한영(중요무형문화재 대금산조 이수자), 남기성(연출가, 춤꾼)
- 반주/젊은소리쟁이(장구 박준식, 타악 양진안, 구름 정효선, 대금 문준모, 아쟁 최영훈, 피리 김창경)

Movie 영화

동래문화회관 '문화가 있는 날' 예술의전당 on screen 국립발레단 '호두까기 인형'

일 시 | 6월 29일 수요일 오후 7:30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동래문화회관 550-6611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펼쳐진 우수공연 실황을 대형 스크린을 통해 만나볼 수 있는 '예술의전당 on screen'. 실황 영상은 물론 객석에서 볼 수 없는 무대 구성구석과 공연의 흥미로운 뒷얘기를 담아낼 스크린 콘서트 6월 상영회에서는 국립발레단의 '호두까기 인형'을 상영

한다. 발레 '호두까기 인형'은 크리스마스이브 호두까기 인형을 선물 받은 소녀 '마리'의 꿈속에서 펼쳐지는 모험과 낭만을 그린 발레 작품으로, 국립발레단은 2000년 러시아 볼쇼이발레단 버전의 '호두까기 인형'을 국내 초연한 이후 지금까지 동일한 버전의 '호두까기 인형'을 선보여 왔다.

Concerts 콘서트

2016 국카스텐 콘서트 'Squall' -부산

일 시 | 6월 18일 토요일 오후 6:00 KBS부산홀

입장료 | R석 9만 9천원, S석 8만 8천원

문 의 | (주)WSM 1566-5490

...

Event 행사

HEALING CLASSICAL MUSIC 영상감상회

일 시 | 매주 목요일 오전 11:00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문화센터 교양강의실

문 의 | 김옥균 010-6367-0149

오지탐험가 도용복과 낭만DJ 최성원이

함께하는 낭만팝아카데미

일 시 | 매주 월요일 오후 2:30 음악감상실 Sara

문 의 | 최성원 010-9462-0037

부산시네마아카데미·시네바움 6월 강좌

일 시 | 매주 목요일 오후 7:00

부산시네마아카데미·시네바움

입장료 | 균일 1만원(문자 예약)

문 의 | 부산시네마아카데미·시네바움
010-3827-2005, 010-2774-3455

...

9일 예술산책 '화가 김환기, 추상화의 선구자인가?'(강사/최석태·미술평론가)

14일 시네마 톡 '다큐멘터리 법전'(강사/오민욱·영화감독)

15일 시네마 톡 'V for Vendetta'(강사/이성철·창원대학교 교수)

20일 시네마 송 '맘마미아로 듣기, 쓰기, 말하기, 노래하기'(강사/ET maria·영어전문통역사)

23일 시네마 톡 '피아니스트 세이모어의 뉴욕 소네트'(강사/곽근수·음악평론가)

28일 도병찬의 뮤직파일 '핑크 플로이드-The Wall'(강사/도병찬)

30일 영화로 보는 사진 'The Bang Bang Club'(강사/뿌리야 김·사진예술가)

[렉처콘서트] 월드뮤직, 세계음악여행(17) '칸초네(Canzone)'

일 시 | 6월 11일 토요일 오후 4:30

부산시민공원 시민사랑채 안용복방

입장료 | 무료

문 의 | 최정옥 010-3853-6634,
cafe.naver.com/yefeel

...



[프로그램]

1부 칸초네 소개 영상(20분)

2부 칸초네 음악감상 및 해설

• 기획 및 해설/최정옥

월드뮤직 해설가이자 클래식음악 애호가인 최정옥이 2014년 10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월드뮤직 음악감상회. 월드뮤직을 중심으로 영화, 사진, 미술과 결합시켜 각 민족의 역사 토대 위에 인문학적 해설을 하는 '렉처콘서트' 형식으로 진행한다.

무지크바움 클래식 인문학 강좌 곽근수의 맛있는 클래식 제7강 바로크 음악 '바흐'

일 시 | 6월 14일 화요일 오후 8:00 무지크바움

입장료 | 균일 1만 5천원

문 의 | 무지크바움 070-7692-0747,
cafe.daum.net/musikbaum.busan

...



클래식음악 해설가로 활동하고 있는 음악평론가 곽근수가 진행하는 무지크바움 클래식 인문학 강좌 '곽근수의 맛있는 클래식'.

이번 강좌에서는 '오스트리아와 독일의 바로크 음악'이라는 주제로 테이블 음악(Tafelmusik)으로 유명한 텔레만과 서양음악의 가장

위대한 거장으로 오페라를 제외한 모든 장르에서 수많은 작품을 남긴 바흐의 작품세계를 탐구한다.

시를 짓고 듣는 사람들의 모임

시마당 제163회 시낭송회 호국 보훈의 달 추념 시낭송회

일 시 | 6월 27일 월요일 오후 6:30
영광도서관 4층 문화사랑방
입장료 | 무료
문의 | 회장 안태봉 010-8374-0626

부산시민회관 추억의 영상음악회 도병찬의 뮤직파일

일 시 | 6월 28일 화요일 오전 11: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입장료 | 무료
문의 | 부산시민회관 630-5200



부산시민회관이 전 KBS한
국방송 라디오 프로듀서로
30여년간 라디오 음악방송
을 진행해온 DJ 도병찬과
함께 마련한 추억의 영상음
악회 '도병찬의 뮤직파일'.
브런치형 추억의 영상음악
회로 매월 한차례 정기적으
로 개최되며 사전예약 없이
무료로 관람이 가능하다.

국립부산국악원 문화가 있는 날

차와 이야기가 있는 오전의 국악콘서트 '다담(茶談)'

일 시 | 6월 29일 수요일 오전 11:00
국립부산국악원 예지당
입장료 | 균일 1천원
문의 | 국립부산국악원 811-0014



향긋한 차 한잔을 마시며 명
사들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국악의 아름다움에 빠질 수
있는 국악콘서트 '다담(茶談)'.
6월 무대에서는 '바리연가집
(2014)'으로 제7회 구상문학
상을 수상한 사랑법의 저자
강은교 시인을 만나본다.

1968년 '사상계' 신인문학상
을 수상하며 등단한 강은교
시인은 이후 '허무집(1971)', '사랑법(1973)', '우리
가 물이 되어(1987)', '바리연가집(2014)', '네가 그
리우면 나는 울었다(2015)' 등 다수의 시집을 출판하
며 독자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프로그램

생소병주 '수롱음', 대금·거문고중주 '하현도드리',
우조시조 '월정명', 창작음악 '아리랑 변주곡', '그 저
녁부터 새벽이 오기까지'

Display 전시

디오라마 월드

작지만 큰 세상, 기차로 떠나는 세계여행

일 시 | 2015년 12월 17일(목)~Open run
KNN 월석아트홀 디오라마전용관
입장료 | 어른 1만 2천원, 어린이 1만원
문의 | 디오라마전용관 1577-7600

조현화랑 'PRESENT'展

일 시 | 4월 29일(금)~6월 12일(일) 조현화랑 부산
문의 | 조현화랑 부산 747-8853

국내에서 처음 소개하는 멜 보크너, 리타 아크만,
정 지앙을 비롯해 바티 커, 헤르난 바스, 길버트 앤
조지, 엘라드 라스리 등 세계미술시장에서 주목받
고 있는 해외작가 7명의 근작과 신작을 소개한다.



부산시립미술관 기획전

영상과 올림-1970년대 일본의 판화

일 시 | 4월 19일(화)~7월 10일(일)
부산시립미술관 3층 소전시실
문의 | 부산시립미술관 744-2602

김덕기 작품전

'베네치아로 가는 길-The Road to Venezia'

일 시 | 5월 4일(수)~6월 11일(토) 소울아트스페이스
문의 | 소울아트스페이스 731-5878



부산시립미술관 기획전

위대한 일상

일 시 | 5월 4일(수)~7월 10일(일)
부산시립미술관 3층 소전시실
문의 | 부산시립미술관 744-2602

열네번째 여성현대미술작가회

일 시 | 5월 18일(수)~6월 12일(일) 정준호 갤러리
문의 | 정준호 갤러리 943-1004

류제비 '바람이 시작되는 곳 (The place wind starts)'

일 시 | 5월 24일(화)~6월 24일(금) 갤러리 아인
문의 | 갤러리 아인 747-2612



김연기, 허병찬 2인전 '어머니의 時'展

일 시 | 5월 26일(목)~6월 4일(토)
BNK부산은행갤러리
문의 | BNK부산은행갤러리 246-89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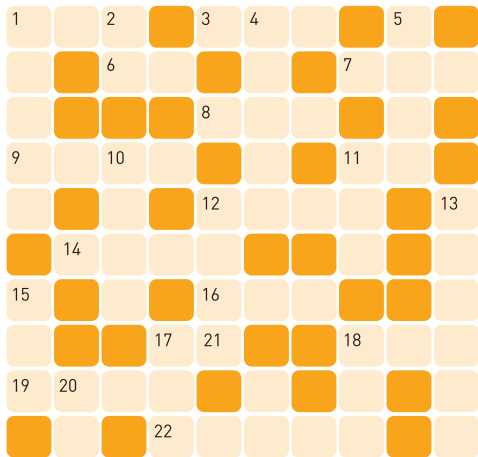


윤아미 개인전 '빌린 이야기'展

일 시 | 6월 14일(화)~6월 28일(화)
예술지구_p ADP 2관
문의 | 예술지구p-포톤 070-4322-3113



퍼즐로 배우는 문화상식



공간소극장 | 051-611-8518 큰집 | 051-245-3320
조은극장 | 1588-2757 옐로인 플라워 | 080-337-3370

공간소극장
SPACE THEATER

韓國傳統飲食店
큰 집

BNK 부산은행 조은극장

yelloin
YELLOW IN

옐로인 플라워

지난호 정답

돈 키 호 테 그 말
조 빗 날 보 러 와 요
반 하 녀 들 백 건 우
니 트 족 백 건 우
두 십 이 야 사
이 탈 리 아 카 미 인 도
윤 톰 크 루 즈 볼
주 산 지 스 베 트 남
천 지 를 이
노 천 명 바 이 올 린 섬

가로열쇠

- ① 음악에 대한 진지한 자세와 끊임없이 연구하는 태도로 '간반 위의 순례자', '간반 위의 구도자'라 불리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7월 7일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으로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관객과 만났다.
- ③ 체코의 수도.
- ⑥ 사적 제3호. 수월성파라고도 하며, 실학의 영향으로 거중기, 활차 등 근대적인 기기를 축성공사에 사용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 ⑦ 가장 한국적인 소리를 가진 소리꾼으로, 대표곡으로 찔레꽃, 봄비, 허허하다 등이 있다.
- ⑧ 중국의 4대 기사 가운데 하나인 '서유기'의 주인공인 원숭이.
- ⑨ 라틴어 Hospes(손님)에서 유래한 말로, 죽음이 가까워 온 환자에게 목숨연명을 대신 평안한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를 돕는 봉사활동.
- ⑪ 1970년대 유럽의 음악 인기순위를 장악했던 스웨덴 그룹. 그의 대표곡들로 제작된 뮤지컬이 바로 '말미아'이다.
- ⑫ 매혹적인 여성 스타일의 대명사. 그녀가 발인 정보활동의 성격과 범위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제1차 세계대전중 독일 스파이로 활동한 혐의로 프랑스에서 총살당했다.
- ⑭ 스페인 작가 세르반테스의 풍자 소설. 근대소설의 선구가 되었으며 영화, 뮤지컬, 발레로도 제작되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 ⑮ 300여년 간 베트남 민족운동의 지도자로 아시아의 반식민지운동을 이끌었던 가장 영향력 있는 20세기 공산주의 지도자. 남부 베트남의 수도였던 사이공이 사회주의국가로 통일된 후 이 지도자의 이름으로 바뀌었다.
- ⑰ '저지 탐험', '달세계 여행', '해저 2만리', '80일간의 세계일주' 등 현대 공상과학소설의 기초를 다지는 데 크게 기여한 프랑스 작가.
- ⑱ 노르웨이의 민속 전통에 뿌리를 두고 세세한 서정 감각으로 음악을 작곡한 노르웨이 작곡가. 대표곡으로 '페르 칸트 모음곡', '홀베르그 모음곡' 등이 있다.
- ㉑ 주로 베이스로 오페라/평범한 일상생활에서 끌어낸 인물들과 멜로드라마적이며 폭력적인 줄거리가 특징을 작곡한 이탈리아 작곡가. 1889년 오페라 공모전에서 1등을 차지한 단막 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가 유명하다.
- ㉒ 애플의 전 CEO이자 공동 창립자로, 매킨토시 컴퓨터 등 혁신적인 기술과 디자인의 개인용 컴퓨터를 개발해 보급했고, 아이폰을 통해 스마트폰 시대를 이끈 IT분야의 혁신의 아이콘으로 꼽힌다.

세로열쇠

- ① 차이코프스키의 대표적인 발레모음곡으로, 1877년 모스크바에서 초연되었으며 중세 독일의 전설에 바탕을 둔 낭만적 줄거리로 전 4막 36곡으로 구성되어 있다.
- ② 사람처럼 행동하고 말하는 동물들을 주인공으로, 인간의 여러식음과 악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지어낸 이야기.
- ④ 지난 2006년에 개봉된 이준익 감독, 박종훈, 안성기 주연의 영화로, 2008년에는 뮤지컬로도 제작되어 많은 사랑을 받았다.
- ⑤ 비람둥이의 대명사로 알려졌지만 그는 모험가이자 작가이고, 성직자면서 바야올린 연주자, 도박꾼, 복권의 창안자, 연금술사 등 다양한 삶을 살았다.
- ⑩ 이탈리아의 작가 C. 콜로디의 동화 속 주인공으로, 제페트 할아버지가 나무토막을 이용해 만든 작은 나무인형이다.
- ⑪ 오페라, 칸타타, 오라토리오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독창곡.
- ⑫ 세계7대자연경관 후보지로 선정되기도 한 알프스산맥의 미봉(美峰)으로, 스위스 체르마트 마을 남쪽 10 km, 스위스와 이탈리아의 국경에 놓여 있다.
- ⑬ 그림형제가 수집한 독일 동화로, 가난으로 인해 숲속에 버려진 남매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다. 원래는 15세기부터 독일 각지에서 파다하게 퍼진 영아 살해 관련 민담을 모티브로 하고 있으나 작가가 그 내용을 순화시켜 발표했다고 한다.
- ⑮ 벨리니의 가장 유명한 오페라이자 19세기 벨칸토 전통의 정점에 있는 최고의 오페라로 평가받는 작품. 극중 여주인공이 지나칠 정도로 비중이 커서 '프리마돈나 오페라'라고도 불리는데 이 시대 최고의 소프라노 마리아 칼라스가 압도적인 카리스마와 강렬한 목소리로 완벽한 오페라로 기억되고 있다.
- ⑰ 한때 지중해 전역에 세력을 떨쳤던 해상공화국의 요지였으며 오늘날에는 주로 운하, 예술, 건축과 독특하고 낭만적인 분위기로 유명한 이탈리아의 해상도시.
- ⑱ 1950~60년대 방황하는 미국 청소년들의 사랑과 우정을 그린 뮤지컬로, 당시 청소년들의 유행 트랜드였던, 머리에 바르는 포머트 기름에서 유래했다. 1972년 브로드웨이에서 초연된 후 존 트라볼타, 올리비아 뉴튼존 주연의 영화로도 제작되어 많은 사랑을 받았다.
- ㉑ 눈 위를 치는 데 쓰는, 좁고 긴 기구를 신은 채 눈 위를 달리고 활강하고 점프하는 운동.
- ㉒ 단테의 신곡과 초서의 캔터베리 서사시에 나오는 77지 죄악을 소재로 다른 데이빗 핀치 감독, 브래드 피트, 모건 프리먼 주연의 스릴러 영화.

5월호 퍼즐 당첨자

공간소극장
초대권 김나정(금정구 장전온천천로)
김현경(부산진구 범전로)
박은혜(부산진구 백양대로)
유지훈(동래구 총렬대로)
최민혁(해운대구 우동1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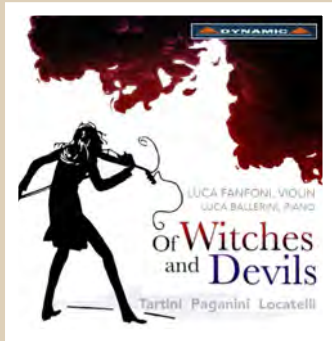
큰집
식사권 김광열(부산진구 양지로)
박소미(부산진구 동평로)
신진욱(수영구 수영로)
이중화(서구 보수대로)
정수연(중구 구덕로)

옐로인 플라워
꽃다발 증정권 박임순(수영구 광안로)
이명호(동래구 동래로)

조은극장
초대권 박은영(남구 수영로)
김대은(금정구 금샘로)
김영권(사상구 냉정로)
서승현(서구 망양로)
홍민수(해운대구 장산로)

※ 생일, 결혼기념일 등 축하사연을 보내주시는 분들 중 두 분을 추첨해 꽃다발 증정권을 드립니다.

RECORD



❖ 드보르작 '교향곡 8번', 수크 '현을 위한 세레나데'

바이에른 방송 교향악단, 마리스 안손스(지휘)

▶ 체코 음악을 평정한 두 거장의 하모니

드보르작의 '교향곡 8번'은 드보르작이 미국으로 가기 전 체코에서 작곡한 작품들 중 가장 뛰어난 곡 중 하나이다. 유럽적인 탄탄한 구성과 체코의 지역적 특색이 완벽하게 결합되어 있으며, 드보르작의 남다른 음악적 재능과 개성적인 표현이 훌륭히 어우러져 있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수크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는 19세기에 유행했던 밝고 가벼운 다악장의 작품으로, 수크는 자신의 '세레나데'에 드보르작의 딸인 오틀카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담았다. 오늘날 이 곡은 차이코프스키, 드보르작과 함께 가장 뛰어난 낭만 세레나데로 인정받고 있다. 1949년 독일 뮌헨에서 설립된 바이에른 방송 교향악단은 바이에른 라디오 방송국이 운영하는 단체로, 창단 때부터 방송국의 전폭적인 지원과 유능한 연주자들의 대거 영입, 초대 상임지휘자인 오이겐 요훔의 집중적인 지도 등으로 단기간에 급성장했으며, 2003년부터 마리스 안손스가 지휘를 맡고 있다.

❖ 타르티니 · 파가니니 · 로카텔리

루카 판포니(바이올린), 루카 발레리니(피아노)

▶ 마녀와 악마의 바이올린

'마녀와 악마'라는 단어가 자극적이긴 하나 타르티니의 '악마의 트릴', 파가니니의 '마녀의 춤'에 이어 로카텔리의 '화성의 미궁'이 수록된 이번 음반을 한 단어로 설명하기에는 가장 적절할 것이다. 판포니의 날선 바이올린과 깔끔한 음향은 이 같은 분위기를 한층 부각시키고 있다. '마녀'와 '악마'에 이어 이번 음반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다면, 파가니니가 생전에 사용했던 바이올린과 새로 발견된 악보에 의거해 연주된 '기도소타나'일 것이다. 이번 음반에 수록된 작품들이 처음 세상에 등장했을 때 당시 사람들이 받았던 충격의 잔상을 어렴풋이 느껴볼 수 있다. 파가니니, 로마니니, 비오티 세 개의 콩쿠르를 석권하고 파르마 음악원에서 가르치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루카 판포니는 이탈리아 최고의 연주자로 손꼽히고 있다.

❖ 타르티니 '바이올린과 바소콘티누오를 위한 소나타'

츠르코비르 쉬슈코비츠(바이올린), 루카 페리니(하프시코드 & 오르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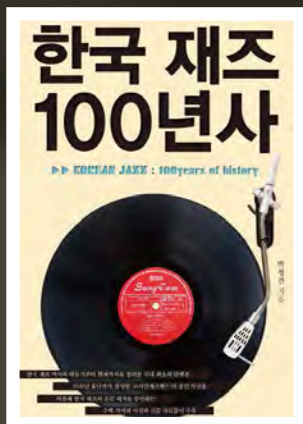
▶ 타르티니의 바이올린으로 연주되는 '악마의 트릴'

타르티니의 대표적인 '버림받은 디도'와 '악마의 트릴'을 비롯해 타르티니의 유일한 '스코라투라' 작품인 '파스토랄' 등이 수록된 음반이다. 이번 음반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탈리아 파푸아의 성 안토니 대성당에 소장된 악보와 슬로베니아 피란의 타르티니 기념관에 소장되어 있는 타르티니의 바이올린(아마티, 1715~1725년 제작)으로 연주된 그야말로 원곡에 충실한 연주라는 점이다. 타르티니 전문가인 쉬슈코비츠는 타르티니의 독주 바이올린 소나타가 담긴 전작에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준다. 원곡의 전율을 짐작할 수 있는 귀중한 음반이다.

BOOK

❖ 한국 재즈 100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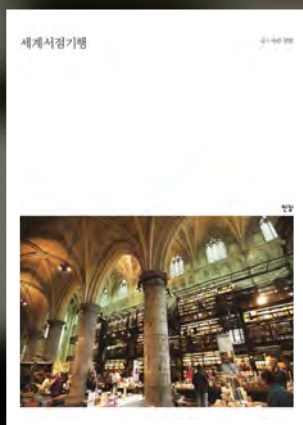
박성건 지음 / 이리 / 408p / 1만 8천 원



대중음악 평론가 박성건 씨가 해방 이전부터 현재까지 한국 재즈의 역사를 총망라했다. 최근 우리 문화계에 복고 열풍이 트렌드로 떠올랐다. 영화나 드라마의 시대 배경과 소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복고열풍이 분다. 그 복고 열풍 속에서 음악이 있다. LP판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고, 턴테이블만의 음색을 찾는 이들도 많다. 디지털세계가 발전하고, 유행이 빨리 변해갈수록 우리의 감성은 옛 향수를 찾고 또 내면의 공허함을 채우고 싶어한다. 광복 이후 미8군이 주둔하던 시절까지 한국대중가요의 대부분이 재즈였다. 중장년층의 추억에 간직된 재즈는 젊은 세대에게도 새로운 문화로 다가오고 있다. 1926년 흥남파가 조직한 '코리아재즈밴드'부터 현재 가수 나윤선까지 한국 재즈계의 사연도 만만치 않다. 그러나 한국 재즈의 역사를 제대로 정리한 책은 없었다. 저자가 재즈를 즐기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집필을 하기로 결심했던 이유이다.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한국 재즈를 연구한 저자는 2013년부터는 월간 <재즈피플>에 연재를 시작하며 단행본의 토대를 마련했다. 그 후 60~70년대 많은 자료들을 보강하고, 한국 재즈의 대표적인 60여 장의 앨범 컬렉션을 수록해 이 책을 완성했다.

❖ 세계서점기행

김언호 지음 / 한길사 / 616p / 8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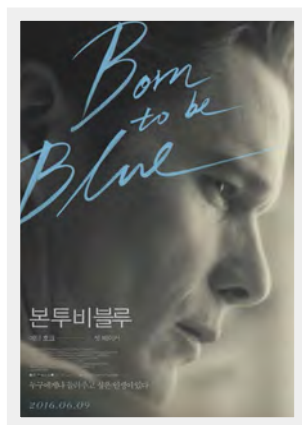
40년간 책을 만들어온 출판인 김언호 씨가 책의 정신, 서점의 철학을 말한다. 저자는 이 책을 위해 2015년 해외여행을 여덟 번이나 다녀왔다. 유럽·중국·미국·일본 그리고 한국의 개성 있는 독립서점을 방문하고, 그 서점들을 이끌고 있는 서점인들을 만났다. 영국과 프랑스, 네덜란드와 노르웨이의 독립서점은 유럽 서점 스타일과 전통을 구현하는 서점인들의 생각을 보여준다. 미국의 서점 네 곳은 서점의 또 다른 성격을 보여준다. 이들 서점들은 오늘날 유럽과 미국이 추구하는 정신과 문화의 깊이와 넓이를 읽게 한다. 중국의 서점은 문자의 나라이자 책의 나라이며 독서의 나라인 중국을 말해준다. 중국의 새로운 지적 차원이며, 약동하는 중국사회의 인문정신이다. 일본의 개성 있는 두 서점 크레용하우스와 기타자와서점 이야기는 출판대국·독서대국 일본을 읽게 한다. 이 책에는 부산의 영광도서와 보수동 책방골목의 이야기도 있다. 부산을 뿌리로 한 우리 서점의 빛나는 역사이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거대 온라인서점의 출현으로 무너져 내리는 서점의 안타까운 현실을 느끼게 하지만, 그래도 서점이 우리의 희망임을 말해주는 책이다. 이 디지털 문명시대에 서점의 길, 출판의 정신을 묻고 있다.

❖ 음반의 역사

헤르베르트 하프너 지음, 홍은정 옮김 / 경당 / 272p / 1만 8천 원



에디슨이 축음기(포노그래프)를 발명했을 때, 사람들은 이 놀라운 기계에 환호성을 보내기는커녕 소리를 붙잡아놓았다가 다시 재생한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 이런 기계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결코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러시아에서는 포노그래프를 선보이는 자리에서 한 장교가 이 '자동으로 이야기하는 동물'을 고발했다. 전시 담당자는 3개월간의 구금 처분을 받고 벌금을 냈으며 기계도 없애버려야 했다. 뉴욕의 빈센트 주교는 포노그래프의 진동판에 대고 직접 이삭야, 예레미야 등 예언자의 이름을 줄줄 읊은 뒤 다시 반복되는 소리를 들은 뒤에야 비로소 복화술사가 몰래 숨어 있지 않다는 것을 납득했을 정도이다. 이 책은 “눈에 보이지 않는 소리는 잡아둘 수 없다”는 옛 사람들의 고정 관념을 깨고 나온 녹음과 재생이라는 인류 문명의 새로운 기술의 탄생과 여정을 되돌아보고 미래를 전망한다. 에디슨의 실린더 레코드에서부터 오늘날의 디지털 기술에 이르기까지 한 세기 남짓한 시간 사이에 벌어진 놀라운 기술적 발전을 독일의 문화평론가인 헤르베르트 하프너가 소개해준다. 레코딩 기술과 음반 자체에만 국한되지 않고 음반의 발달에 따른 음악계와 사회의 변화도 짚어냈다.



한국영화인 헌정 프로젝트 '임권택&안성기 Week!'

지난 3월 CGV아트하우스 서면에 한국영화를 대표하는 영화감독 임권택의 이름을 딴 '임권택관'이 개관했다. 독립·예술영화 전용관인 CGV아트하우스가 '한국영화인 헌정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한국영화의 위상을 높인 영화인의 영화 인생과 대표작을 담아 관객들이 그들의 업적을 보다 가깝고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헌정관으로, '임권택관' 이외에도 서울 CGV아트하우스 압구정에는 '안성기관'이 문을 열었다. 이들 헌정관에서는 관객 1명이 영화 1편을 볼 때마다 티켓 매출 중 100원이, 여기에 CGV아트하우스가 매칭 기부금 100원을 더해 총 200원이 적립되며, 이렇게 적립된 금액은 연말 임권택 감독과 안성기 배우의 이름으로 한국 독립영화의 후원금으로 사용된다. 한국영화계의 거장 임권택은 영화 '서편제', '취화선', '천년학' 등 102편의 영화를 연출하며 칸영화제 감독상, 베를린영화제 명예황금곰상을 수상하는 등 한국 영화를 크게 알렸다. '임권택관'에서는 임권택 감독이 한국 영화에 남긴 업적을 조명하고 이를 통해 한국 영화사를 짚어보는 다양한 기획전과 이벤트가 진행된다. 우선 오는 10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에는 '임권택&안성기 Week!'라는 타이틀로 영화 '취화선', '서편제', '인정사정 볼 것 없다', '라디오 스타' 등 스크린에서 다시 보기 힘든 명작들을 필름 상영으로 만날 수 있다.

재즈뮤지션 쳇 베이커 전기영화 '본 투 비 블루(Born to be Blue)'

올해 전주국제영화제 개막작인 '본 투 비 블루(Born to be Blue)'가 6월 개봉한다. '본 투 비 블루'는 재즈와 열망으로 가득찬 재즈뮤지션 쳇 베이커의 일생을 그린 작품으로, 음악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꿈꾼 그의 모습은 많은 주제를 관통하며 깊은 울림을 선사한다. 1960년대, 쳇 베이커의 삶을 다룬 '본 투 비 블루'는 성공과 몰락이 교차하는 전기 영화인 동시에 쳇 베이커의 삶을 다양한 재즈 연주와 겹쳐서 보여준다. 그리고 단순히 시대를 풍미한 영웅담이 아닌 음악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꿈꾼 예술가의 열망에 집중한다. 마약 중독으로 교도소에 다녀온 쳇 베이커가 출소 후 그의 전기를 담은 영화에 출연하는 이야기를 시작으로 영화가 시작되는 '본 투 비 블루'는 쳇 베이커가 생존해있던 과거의 현실과 영화적 판타지의 경계를 오가며 전개된다. 영화와 재즈가 잘 어우러진 수작으로, 쳇 베이커의 음악과 로버트 뷔드로 감독의 연출, 데이빗 브레드 음악감독의 음악에 쳇 베이커라는 복잡한 인물을 표현해 낸, 주연배우 에단 호크의 연기가 조화롭게 어우러진다. 특히 에단 호크가 쳇 베이커이고, 쳇 베이커가 곧 에단 호크라 평할 수 있을 만큼 에단의 연기는 완벽하다는 평을 받았다.

유럽 전역을 감동시킨 영화 '천국에 있는 것처럼'

마음을 여는 노래를 만들고픈 천재 마에스트로 다니엘과 작은 마을 합창단이 만나 기적 같은 노래를 탄생 시키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 '천국에 있는 것처럼'은 개봉 당시 유럽 전 지역에 걸쳐 폭발적인 사랑을 받았던 스웨덴 영화이다. 영화 '천국에 있는 것처럼'은 2004년 스웨덴에서 개봉된 후 영화와 함께 OST '가브리엘라 송'이 주목을 받으며 유럽 전역에서 1년 2개월간 TOP 10위권을 기록하는 등 큰 흥행을 거뒀으며 이후 2007년 호주에서도 개봉되며 103주간 상영, 당시 최고의 흥행 기록을 세운 영화 '타이타닉'의 관객수를 넘기며 신드롬을 일으키기도 했다. 특히 서정적인 가사와 감동적인 선율로 많은 관객들의 마음을 훔친 영화 속 OST '가브리엘라 송'은 '최고의 음악영화를 찾고 있다면, 무조건 보라!', '수 없이 반복해서 듣고, 봐도 흐르는 눈물!', '음악은 아픈 마음을 연다!' 등 영화가 유럽 관객들의 찬사를 받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이 노래는 개봉 후에도 스웨덴 음원 차트 'Svensktoppen'에서 68주 동안 상위권을 차지할 정도로 폭발적인 사랑을 받아 지금까지도 유럽 유명 가수와 합창단을 통해 애창곡으로 선정되어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 영화 속 주인공인 다니엘 역은 영화 '밀레니엄' 시리즈와 '미션 임파서블:고스트 프로토콜'로 유명한 스웨덴 국민배우 미카엘 니키비스트가 열연해 관객들에게 뜨거운 감동을 선사한다.



2016 디카로 보는 부산

부산의 워터 프론트

매년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시민들이 직접 찍은 사진을 모아 '오늘의 부산'을 기록하는 '디카로 보는 부산'이 올해도 어김없이 열린다. 행사이다. 오늘의 부산을 현장에서 직접 시민의 눈으로 보고 촬영해 사진집으로 기록하는 의미있는 행사로, 올해로 벌써 12번째를 맞이하고 있다. 2016년 올해의 주제는 '부산의 워터 프론트'. '워터 프론트(water front)'는 도시라는 개념이 포함된 용어로, 도시가 큰 강이나 바다, 호수 등과 접하고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 지난해 부산시는 도심수변구역을 강변사업구역을 전략구역으로 설정해 향후 10년간 바다와 하천을 연결하는 수변문화도시를 조성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6년의 기록들은 10년 후, 100년 후 모습과 비교할 수 있는 우리 부산의 중요한 역사적 근거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6 디카로 보는 부산'에 참여할 참가자는 8월 17일까지 (사)문화도시 네트워크 사무국 메일(cupu@hanmail.net)로 사전 신청받아 행사일인 8월 20일 12시부터 다음날인 21일 12시까지 그 기간에 찍은 사진을 웹하드를 통해 업로드하면 된다. 베스트 포토는 심사를 통해 연말에 발행될 '2016 디카로 보는 부산' 사진집에 게재된다. 자세한 사항은 (사)문화도시 네트워크 760-1494로 문의.



영화의전당

영화제작워크숍 8기, 다큐멘터리 제작 워크숍 2016

영화의전당에서는 영화 시나리오에서 사운드 믹싱에 이르기까지 영화 제작 전 과정을 배우고 최고의 촬영장비를 이용하여 팀별 영화를 완성하는 '영화제작워크숍 8기'를 모집한다. 강좌 기간은 6월 25일부터 12월 25일까지이며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6시부터 3시간 진행된다. 강사는 영화평론가 박인호(시나리오담당), 촬영감독 정성욱(촬영담당), 영화의전당 아카데미 담당 전인룡(연출, 조명담당), 영화의전당 기자재 담당 김동익(편집담당), 영화의전당 녹음실 담당 김동환(사운드담당)으로, 워크숍 후 완성된 작품은 시네마테크 상영관에서 공개 상영회를 거친 후 관객과의 대화시간을 가진다. 또, 6월 12일부터 8월 21일까지 매주 목요일과 일요일에는 '다큐멘터리 제작 워크숍 2016'이 열린다. 다큐멘터리 기획부터 촬영, 편집, 후반작업까지 다큐멘터리 전 과정을 배우고 완성해보는 워크숍 과정으로, 강사는 다큐멘터리 감독 김영조, 김지곤, 영화의전당 아카데미 담당 전인룡, 기자재담당 김동익이 맡아 강의한다. 수강생 접수는 영화의전당 홈페이지(www.dureraum.org) 혹은 이메일(cinemaacademy@hanmail.net)로 신청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영화의전당 780-6112, 6116, 6118로 문의.



요하네스 이텐(Johannes Itten)의 미학적 색채론에 의한 색으로 읽는 미술이야기

문화도시네트워크와 함께하는 예술인문학 강좌 세 번째 시간으로, 색채학박사이자 섬유미술가인 배선주가 진행하는 '요하네스 이텐(Johannes Itten)의 미학적 색채론에 의한 색으로 읽는 미술이야기'가 6월 한달간 네 차례 펼쳐진다. 색은 조형예술에 있어서 가장 감성적인 측면이 가한 조형요소 중 하나로, 같은 조형이라 할지라도 색채표현이 달라지면 전혀 다른 분위기를 띠게 된다. 사회적 소통의 수단으로 사용된 색의 상징성, 단순히 눈의 시각적 지각과 더불어 이러한 감성적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우리는 색채효과라고 한다. 예로부터 이러한 색채효과는 종교와 정치뿐만이 아닌 모든 장르의 문화영역에 이용되어 왔다. 이번 강좌에서는 인문학적 접근에 의한 미학적 색채론을 확립한 스위스의 화가이자 색채학자인 요하네스 이텐의 색채 미학적 분류에 따라 색을 분류하여 해석하여 미술을 풀어나가는 재미를 느낄 수 있다. 강사 배선주는 이당우리색연구소를 운영하며 '우리 색 이야기', '색으로 풀어보는 미술 이야기' 등 칼럼과 연재를 통한 색 읽기와 '한국의 색'이라는 주제의 국내외 전시를 통해 '우리 색 찾기'에 열중하고 있다. 강좌는 6월 7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부산시민공원 다솜관 동백꽃방에서 진행되며 누구나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사)문화도시네트워크 760-1494로 문의.



NEWS

부산시립무용단 區 문화회관 순회공연

6월 9일 영도문화회관, 14일 해운대문화회관, 17일 동래문화회관



부산문화회관을 자주 찾을 수 없는 지역민들을 위해 직접 찾아가 시민들을 만나온 부산시립무용단이 6월, 區 문화회관 순회공연을 통해 우리춤의 매력을 전한다.

부산시립무용단은 6월 9일 영도문화회관을 시작으로 14일 해운대문화회관, 17일 동래문화회관에서 영화, 가요, 민요 등 우리 귀에 친숙한 음악을 배경으로 우리춤의 아름다움과 서정성, 신명을 담아낸 '드라마와 함께하는 춤 여행'을 펼친다.

특히 이번 무대는 대중음악을 통해 우리춤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무대로, 남녀 2인무로 영원한 사랑을 그린 '사랑가'(판소리 '춘향가' 중)를 시작으로 한량무와 산조춤 한 폭의 풍속화로 이 미지한 '오나라'(드라마 '대장금' OST), 목포항을 배경으로 이별의 끝없는 아픔, 서러움, 그리움을 담아낸 '목포의 눈물(가요)', 슬프지만 행복한 사랑이 만들어가는 풍경을 3인무로 그린 '천

년의 사랑(가요)', 바닷가에서 펼쳐지는 남녀의 애절한 사랑을 배와 갈매기의 이미지로 형상화한 'My heart will go on(영화 '타이타닉' OST)' 등 다양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중전시실 추가 대관



부산문화회관에서는 2016년 하반기 리모델링 예정에 따라 6월 까지 대관신청받았던 중극장, 중전시실에 한해 9월 11일까지 기간을 연장해 추가 대관신청을 받는다.

- **대관시설** : 중극장, 중전시실
- **대관기간** : ~ 2016. 9. 11(일)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 대관 서비스 - 대관현황(대관사설별 클릭) 참조
- **접수방법** : 홈페이지 온라인 대관신청, 이메일, 방문, 우편 등
 - ▶ 접수기간 : 매월 15일~16일
 - ▶ 방문 : 부산문화회관 관리팀(관리동 1층)
 - ▶ 팩스 : 051-607-6019
 - ▶ 우편 : (48534)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76번길 1, 부산문화회관 관리팀
 - ▶ 메일 : 중극장 awesome12@korea.kr
중전시실 yoon21000@korea.kr
- *문의 : 부산문화회관 관리팀 051-607-6051(중극장), 051-607-6054(중전시실)

4인 4색 클래식 산책

2016 부산문화회관 예술아카데미



음악,
그대 이름은 인문학

정두환 [작곡가, 음악평론가]

7월 6일 ~ 7월 27일

매주 수요일 오후 7:30(기간 중 4회)



세계 공연장 순례

이장직 [전 중앙일보 음악전문기자]

9월 21일 ~ 10월 12일

매주 수요일 오후 7:30(기간 중 4회)

개요 /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전하는 달콤한 클래식 강좌, 4인 4색 클래식 산책

운영기간 / 4월 6일 ~ 10월 12일 [기간 중 총 16강]

시간·장소 / 매주 수요일 오후 7:30 국제회의장

(1회차 '내 삶에 가장 행복한 두시간', 2회차 '클래식 음악과 함께하는 힐링타임' 종료)

신청기간 / 수시 모집

수강료 / 회차별 수강 3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모집인원 / 60명(선착순)

신청방법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culture.busan.go.kr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051-607-3104



수강료
무료

엄마랑 아빠랑 함께하는 교과서 동요여행

2016. 4~11

매주 토요일 10:00~13:00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기수	교육일정	접수일정
①	4월 16일/23일/30일/ 5월 7일	4월 1일(금)~14일(목)
②	5월 21일/28일/ 6월 4일/11일	5월 2일(월)~14일(목)
③	6월 25일/ 7월 2일/9일/16일	6월 7일(월)~23일(목)
④	9월 24일/ 10월 1일/8일/15일	9월 5일(월)~22일(목)
⑤	10월 29일/ 11월 5일/12일/19일	10월 10일(월)~26일(목)

프로그램 교과서 동요속으로, 마음으로 느끼는 동요, 나만의 동요집 만들기(북아트),
엄마와 함께 부르는 추억의 동요
작곡가와와의 만남 : '아빠 힘내세요'의 작곡가 한수성, '어린 왕자에게의
작곡가 조경찬

모집대상 초등 3~6학년 50명, 학부모

수강료 무료

강사 이건륜(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 이영옥, 노금선, 김양자,
한수성(작곡가), 조경찬(작곡가), 김호선(동화구연), 김태연(북아트)

접수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culture.busan.go.kr

문의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홍보팀 051)607-3155

2016 부산문화회관 예능아카데미



클라리넷 이민호



클래식 기타 고충진



가야금 오은영



사물놀이 전학수



해금 윤해승

2016 예능아카데미 시간표

월요일 19:30 클라리넷 A반

화요일 16:30 가야금 고급반 | 18:00 가야금 입문반 | 19:30 가야금 초·중급반

수요일 19:30 클라리넷 B반

목요일 19:30 해금 | 19:00 사물놀이

금요일 14:00 클래식 기타 초·중급반 | 16:00 클래식 기타 입문반

※ 교육일정과 강습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 강 료: 10만원~15만원(정기회원 10% 할인)

접수방법: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culture.busan.go.kr 아카데미(※홈페이지 하단)

※ 전화접수는 접수기간 이후의 미달된 강습에 한함

결재방법: 카드결재-전화(607-3155) 또는 방문(사무국 홍보팀)

계좌입금(부산은행101-2021-2628-04 문화회관아카데미)

2016 예능아카데미
3기 접수

접수기간 : 2016. 6. 1(수) ~ 6. 30(목)

개강일 : 2016. 7. 4(월)



공연시간에 쫓겨 힘든 신 적 많으시죠!
한 눈에 볼 수 있는 부산문화회관 주변 안내도입니다.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 공연관람객들을 위한 특별한 혜택



식사할인 **10 %**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제시

부산문화회관 앞 가람빌딩 2층
T. 626-2592



음료할인 **10 %**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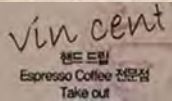
부산문화회관 앞 가람빌딩 1층
T. 622-1456



식사할인 **5 %**

부산문화회관 공연티켓 소지자

T. 624-2270



커피할인 **10 %**

부산문화회관 공연티켓 소지자

T. 623-0772 (커피에 한함)



음료할인 **10 %**

부산문화회관 공연티켓 소지자

T. 070-755-2188



음료할인 **10 %**

부산문화회관 공연티켓 소지자

T. 621-5788



꽃할인 **10 %**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제시

부산문화회관입구 본점 T. 080-337-3370
대연혁신점 T. 627-1253



티켓할인 **2 매**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제시

평일3천원, 주말/공휴일 4천원 할인
(회당 2매/ 조조, 심야, 3D제외)



상품할인 **20 %**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제시

안경나라 동래점 (일부품목제외)
T. 505-8987



Deluxe 객실할인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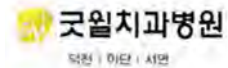
정상가 300,000원 → 할인 99,000원
(세금포함/조식불포함/성수기 기간제외)
T. 678-1000



우대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제시

T. 752-9811(광안)
T. 747-9812(해운대)



우대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제시

T. 330-6000(덕천) / T. 209-6000(하단) / T. 606-6000(서면)



우대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제시

T. 819-0173



우대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제시

T. 929-5000



우대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제시

T. 819-0173

부산문화회관

정기 회원

가입안내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제도는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교향악단·국악관현악단·합창단·무용단·극단) 기획공연, 정기연주회, 특별연주회를 보다 편리하고 저렴하게 관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구 분	회 비	할인매수
골드회원	50,000원	4매
블루회원	30,000원	2매
그린회원	20,000원	1매

* 단체가입 할인 : 20명 이상(10%), 30명 이상(20%), 50명 이상(30%)

회원가입

- 가입신청 : 전화 또는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culture.busan.go.kr)
– 무통장입금 : 부산은행 036-01-034846-1(예금주/부산문화회관)
※ 홈페이지 가입 : 인터넷(무료)회원 등록 후 마이페이지에서 정기회원 전환 유료결제
- 방문신청 : 부산문화회관 관리동 2층 예술단사무국 홍보팀

관람권 예매

- 예매 : 전화(607-3100) 또는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culture.busan.go.kr)
– 무통장입금 : 부산은행 036-01-034848-7(예금주/부산문화회관)
- 수령 : 정기회원 카드 또는 예매확인증 지참(매표소 제시)

회원혜택

- 가입기간(1년)
- 정기회원증 발급 우송(7일)
- 골드회원 초대권 2매 증정
– 가입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사용, 예술단 5개단체(정기·특별연주회) 중 선택
- 부산시내 공연장 정보를 담은 월간지 <예술예의 초대> 우송
-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정보 제공
-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관람료 할인(10~30%)
- 부산시립예술단(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합창단, 무용단, 극단) 기획공연, 정기연주회, 특별연주회 관람료 할인(10~30%)

- 부산시내 각 공연장에서 열리는 외부단체공연 입장료 할인 (주최측과 협의된 공연)
-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립예술단 아카데미 수강료 할인 (문화대학, 시민예능교실, 예술·예능아카데미 등)
- 부산시립예술단원과 함께 떠나는 테마가 있는 여행

할인쿠폰 발행

- 공간소극장, BNK부산은행조은극장, 필하모니, 모차르트, 송림정, 카페 빈센트, JUWA Coffe, Gallery&Cafe 가우디, 메가박스(서면점), 엘로인플라워(부산문화회관 입구 본점, 대연혁신점), 안경나라(동래점), 크라운하버호텔 부산, 새날한의원, 굿윌치과병원, 웰니스병원, 엘리움여성병원, 세흥병원 ※ 업체사정으로 변경 가능

주의사항

- 입장권 예매취소는 공연하루 전 16:00까지 가능(당일 취소 불가)
- 입장권 예약하고 3일 이내 미입금 시 예매취소
※ 정기회원(유료) 가입 5일 이후 취소 불가

가입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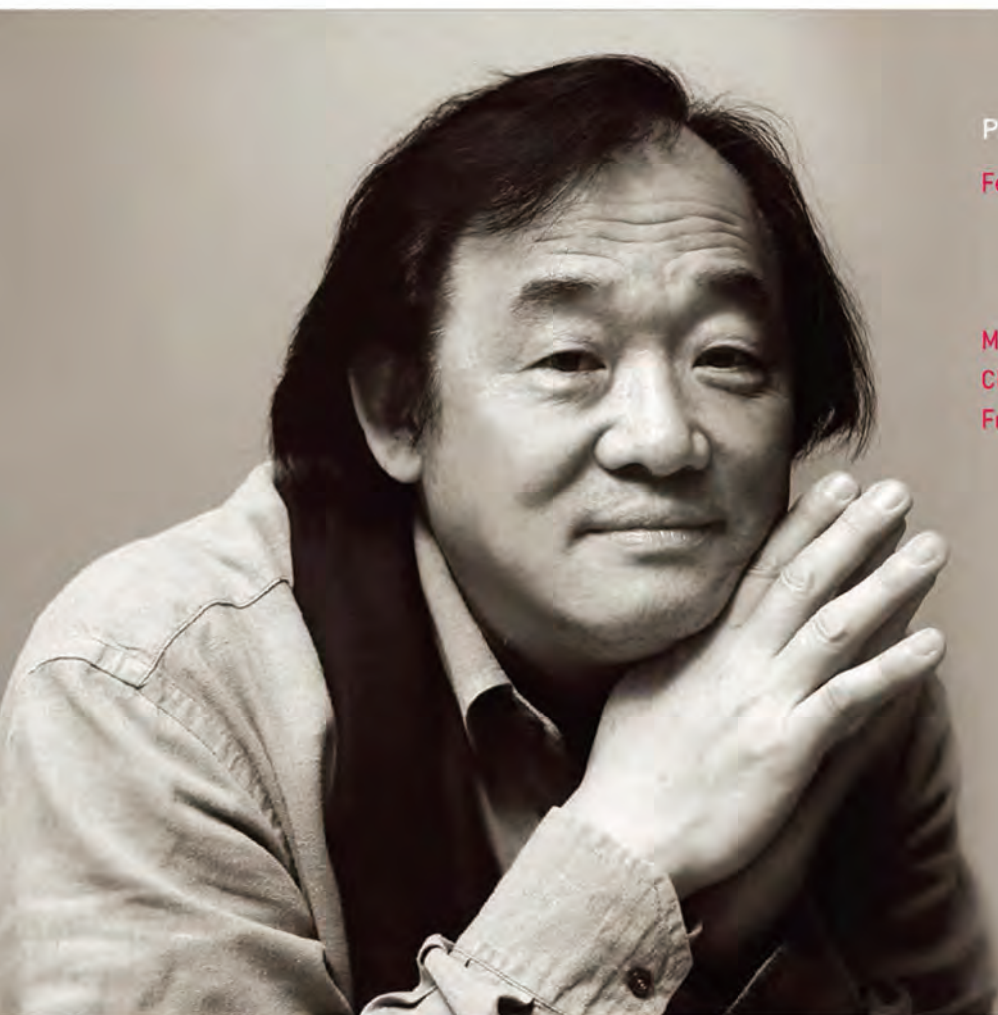
-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홍보팀 051-607-3100, FAX 051-607-3109
- 평일 09:00~18:00(토·일요일·공휴일 제외)

부조니 탄생 150주년 기념

백건우 피아노 리사이틀

2016. 7. 7(목) 19: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Program

- | | |
|--------------------------|----------------------------|
| Ferruccio Busoni | Elegy BV249 No.2 |
| | Fantasia nach J.S.Bach |
| | Elegy BV249 No.4 |
| | Sonatina No.6 |
| Maurice Ravel | Sonatine |
| Claude Achille Debussy | Préludes Book 1 No.3, 6, 7 |
| Frédéric Francois Chopin | Scherzo No.1&No.2 |

주최. 부산광역시 K 국제신문 주관. 부산문화회관 공연문의.051) 607-6065

예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http://culture.busan.go.kr> 티켓. V석 12만원 R석 9만원 S석 7만원 A석 5만원 B석 2만원

화승에 다닙니다

장애가 있는 친구와 함께 가구공방을 다니며
가구를 만드는 꿈을 이루게 해주는 곳.
요리도, 커피도, '꿈틀 프로젝트'를 통해
나를 나눔으로 성장하게 해주는 곳.
텃밭을 일구어 수확한 푸른 채소를 나눠 먹고,
그 채소를 회사 식당에 팔아 어려운 이웃을 돕는
'화승이랑'으로 나눔과 도움의 보람을 주는 곳.
장애 비장애 형제들과 함께 놀며 그 안에서
더 큰 나를 발견하게 하는 곳.
교육도, 문화도 함께라는 가치를
더 크고, 더 멀리 나누는 곳.
희망 가득한 이곳에
내 꿈의 미래가 있습니다.

나는
화승에 다닙니다.



화승그룹

(국내) 화승R&A 화승소재 화승T&C 화승공조 화승인더스트리 화승엑스월 화승네트웍스

(해외) 중국 - 화승기차배건(태칭)유한공사(HST), 북경화승R&A기차배건유한공사(HSB), 화승특종고무(태칭)유한공사(HSR), 장천제화대련유한공사(HSD), 청도장천제화유한공사(HSQ), 화승태양소재(태칭)유한공사(HSP), 화승상해국제무역유한공사(HSS), 화승호천(태칭)국제무역유한공사(HSTN), 미국 - 화승아메리카홀딩스(HSAH), 화승앨라배마(HSAA), 화승USA(HSAU), 화승네트웍스아메리카(HSNA) 멕시코 - 화승멕시코(HSAM), 인도 - 화승인도(HSI AUTO), 화승인도네트웍스(HSNI), 화승소재인도(HSMI) 터키 - 화승터키(HSTR), 베트남 - 화승비나(HS VINA), 화승붕따우(HVT), 화승베트남케미컬(HVC), 장천비나(CCVN), 화승베트남네트웍스(HSVN)